

KDI 경제전망

KDI ECONOMIC OUTLOOK

2020 상반기



KDI 경제전망

KDI ECONOMIC OUTLOOK

2020 상반기



KDI 경제전망 연구진

| | | |
|-----------|---|---------------|
| 총 | 괄 | 정 규 철(연구위원) |
| 중 | 합 | 조 덕 상(연구위원) |
| 예 | 측 | 한 정 민(연구위원) |
| 국 | 내 | 정 규 철(연구위원) |
| 총 | 생 | 황 세 진(전문연구위원) |
| 산 | | 조 덕 상(연구위원) |
| 경 | 기 | 한 정 민(연구위원) |
| 소 | 비 | 허 진 욱(연구위원) |
| 설 | 비 | 구 회 일(전문연구위원) |
| 투 | 자 | 남 창 우(연구위원) |
| 자 | | 이 인 정(전문연구위원) |
| 건 | 설 | 정 규 철(연구위원) |
| 투 | 자 | 이 유 진(전문연구위원)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 남 창 우(연구위원) |
| | | 이 인 정(전문연구위원) |
| 수 | 출 | 최 우 진(연구위원) |
| 입 | | 안 소 연(전문연구위원) |
| 자 | 본 | 최 우 진(연구위원) |
| 거 | 래 | 안 소 연(전문연구위원) |
| 노 | 동 | 이 종 관(연구위원) |
| 시 | 장 | 김 수 빈(연구위원) |
| 물 | 가 | 정 규 철(연구위원) |
| | | 황 세 진(전문연구위원) |
| 금 | 융 | 남 창 우(연구위원) |
| 시 | 장 | 박 준 석(전문연구위원) |
| 재 | 정 | 허 진 욱(연구위원) |
| | | 전 혜 지(전문연구위원) |
| 세 | 계 | 이 상 규(전문위원) |
| 경 | 제 | 박 종 은(연구위원) |
| | | 구 회 일(전문연구위원) |
| | | 박 준 석(전문연구위원) |
| 편 | 집 | 이 상 규(전문위원) |
| 간 | 사 | 구 회 일(전문연구위원) |
| | | 신 용 숙(선임행정원) |

『KDI 경제전망』은 국내외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단기 경제전망을 실시함과 동시에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 요인과 대책을 연구하여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은 물론 기업의 경영과 학계의 연구 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연 2회 발간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출처 및 집필자를 명시하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44-550-4114 팩스번호 044-550-4088

※ 본 자료는 KDI 홈페이지(<http://www.kdi.re.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목 차

| | |
|-----------------------------|-----|
| 요 약 | 5 |
| 제 1 부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 | |
| I.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13 |
| II. 2020~21년 국내경제 전망 | 23 |
| 1.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 | 25 |
| 2. 2020~21년 국내경제 전망 | 25 |
| 3. 전망의 위험요인 | 27 |
| III. 정책방향 | 29 |
| 1. 재정정책 | 31 |
| 2. 통화정책 | 33 |
| 제 2 부 경제현안 분석 | |
| I. 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 | 39 |
| II.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시경제 경로 전망 | 47 |
| 제 3 부 국내외 경제동향 | |
| I. 국내경제 동향 | 57 |
| 1. 국내총생산 | 59 |
| 2. 경 기 | 65 |
| 3. 소 비 | 70 |
| 4. 설비투자 | 73 |
| 5. 건설투자 | 77 |
| 6.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81 |
| 7. 수출입 및 국제수지 | 83 |
| 8. 노동시장 | 93 |
| 9. 물 가 | 99 |
| 10. 금융시장 | 106 |
| 11. 재 정 | 113 |
| II. 세계경제 동향 | 119 |
| 1. 개 괄 | 121 |
| 2. 주요 국가별 경제상황 | 128 |
| 3. 환율 및 금리 | 161 |
| 4. 원자재 가격 | 164 |

요 약

■ 우리 경제는 2020년에 민간소비와 수출이 큰 폭으로 위축되며 0.2% 성장한 후, 2021년에는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3.9% 성장할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위축과 유가 하락 등이 겹치면서 2020년에 0%대 중반을 기록하고, 2021년에도 0%대 중후반의 낮은 상승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취업자 수는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충격을 정부정책이 부분적으로 보완하면서 2020년에는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한 후, 2021년에는 고용 부진이 완만하게 회복되며 20만명 정도 증가할 전망임.

1.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민간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음.

- 1/4분기에는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에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집중됨.

■ 수요 측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접촉 기피로 민간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된 반면, 투자는 작년에 부진했던 기저효과 등으로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

- 민간소비는 국내총소득이 감소하고 소비심리가 악화되는 가운데, 해외여행 제한으로 서비스수입이 급감하면서 큰 폭으로 축소됨.
- 설비투자자 건설투자는 각각 반도체 관련 기계류와 토목부문이 개선되면서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
- 수출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주요국의 봉쇄조치로 인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성장세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각됨.

■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성장경로에 대한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상황임.

- 거시경제 경로가 코로나19 확산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점에서 코로나19 방역은 인명피해 축소뿐 아니라 원활한 경기 회복을 위한 전제조건임.

■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 지원과 거시경제 안정, 경제시스템 보호에 중점을 두고 경제 정책을 운용해 나갈 필요

- 재정정책은 취약계층 지원과 민간수요 위축 완화를 위해 확대 편성된 재정지출 계획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
- 통화정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와 물가 하방압력에 대응하여 가급적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최대한 인하한 후,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할 필요
- 대규모 기업 파산과 실업의 발생은 생산능력 저하로 이어져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경기 회복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유동성 공급과 고용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경제시스템을 보호해야 함.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제 협력과 공조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필요

■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한 한시적 정책이 생산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

-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한 광범위한 지원 정책이 향후 기업의 건전한 진입과 퇴출을 지속적으로 제한하여 신성장 산업 발달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단기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의 악화 우려로 이어지지 않도록, 코로나19 이후의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
- 아울러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이 글로벌 가치사슬 위축이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전개되지 않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경주할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대내외 충격과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제·사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코로나19 이후 부각될 신성장 산업으로 자원이 원활하게 재배분될 수 있도록 경제 구조의 유연성을 개선할 필요
-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및 IT 산업의 확대 등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교육시스템 개혁도 필요

II. 2020~21년 국내경제 전망

1.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

- 세계경제가 2020년 상반기에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후, 2020년 하반기부터 완만하게 회복되는 것으로 전제
 - 최근 IMF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2020년에 -3.0%의 역성장을 기록한 다음, 2021년에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5.8%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원유 도입단가(두바이유 기준)는 2020년에 45% 정도 하락한 배럴당 35달러 내외를, 2021년에는 40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제
-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2020년에 4% 정도 절하된 후, 2021년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

2. 2020~21년 국내경제 전망

- 우리 경제는 2020년에 민간소비와 수출이 큰 폭으로 위축되며 0.2% 성장하는 데 그친 후, 2021년에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3.9% 성장할 전망
 - 민간소비는 서비스소비를 중심으로 급감한 가운데,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둔화되면서 거주자의 국내소비가 비교적 빠르게 회복하겠으나, 당분간 국가 간 이동제한이 지속되면서 거주자의 국외소비는 내년까지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설비투자는 글로벌 반도체수요의 회복과 작년의 기저효과 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충격이 반영되면서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됨.
 - 건설투자는 토목부문이 SOC를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2018년 이후 지속된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판단됨.
 - 수출과 수입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당분간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다가 올해 하반기에는 상품수출을 중심으로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판단됨.
- 경상수지는 수출물량이 축소되었으나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2020년에 작년과 유사한 흑자폭을 유지하고, 2021년에는 내수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로 흑자폭이 축소

-
- 소비자물가는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위축과 유가 하락 등이 겹치면서 낮은 상승률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됨.
 - 실업률은 가파른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2020년에 작년(3.8%)보다 소폭 높은 3.9%를 기록할 전망
 - 취업자 수는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충격을 정부정책이 부분적으로 보완하면서 2020년에는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한 후, 2021년에는 고용 부진이 완만하게 회복되며 20만명 정도 증가할 전망

3. 전망의 위험요인

-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는 코로나19의 확산 범위와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의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둔화할 경우,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은 일시적인 서비스업 위축으로 제한되고 우리 경제는 하반기부터 빠르게 회복될 전망
 -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는 투자와 수출이 큰 폭으로 위축되고 경기 회복이 지연될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경로도 하향 조정될 수 있음.

2020~21년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 | 2018 ^p | 2019 ^p | 2020 | | | 2021 |
|-----------------------|-------------------|-------------------|---------|---------|---------|-------|
| | 연간 ^p | 연간 ^p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연간 |
| 국내총생산 | 2.7 | 2.0 | -0.2 | 0.5 | 0.2 | 3.9 |
| 총소비 | 3.5 | 3.1 | -1.3 | 1.3 | 0.0 | 5.2 |
| 민간소비 | 2.8 | 1.9 | -4.0 | -0.1 | -2.0 | 5.3 |
| 총고정투자 | -2.4 | -3.3 | 1.8 | 1.4 | 1.5 | 4.2 |
| 설비투자 | -2.4 | -7.7 | 0.6 | 1.3 | 0.9 | 7.9 |
| 건설투자 | -4.3 | -3.1 | 2.1 | 0.7 | 1.4 | 2.4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2.2 | 2.7 | 2.4 | 3.0 | 2.7 | 4.1 |
| 총수출(물량) | 3.5 | 1.7 | -3.5 | -3.4 | -3.4 | 4.9 |
| 상품수출(물량) | 3.3 | 0.5 | -1.8 | -1.6 | -1.7 | 3.9 |
| 총수입(물량) | 0.8 | -0.4 | -4.1 | -3.5 | -3.8 | 7.5 |
| 상품수입(물량) | 1.6 | -0.8 | -1.2 | -1.0 | -1.1 | 5.6 |
| 경상수지 | 775 | 600 | 227 | 367 | 594 | 409 |
| 상품수지 | 1,101 | 769 | 336 | 441 | 778 | 664 |
| 수출(금액) | 6,263 | 5,620 | 2,360 | 2,365 | 4,725 | 4,920 |
| (증가율) | (7.9) | (-10.3) | (-15.2) | (-16.6) | (-15.9) | (4.1) |
| 수입(금액) | 5,162 | 4,851 | 2,024 | 1,924 | 3,947 | 4,256 |
| (증가율) | (10.6) | (-6.0) | (-16.2) | (-21.0) | (-18.6) | (7.8) |
| 서비스수지, 본원 · 이전소득수지 | -326 | -169 | -109 | -74 | -184 | -255 |
| 소비자물가 | 1.5 | 0.4 | 0.6 | 0.2 | 0.4 | 0.8 |
| 근원물가 | 1.2 | 0.7 | 0.4 | 0.2 | 0.3 | 0.5 |
| 실업률 | 3.8 | 3.8 | 4.2 | 3.6 | 3.9 | 4.1 |
| (계절조정) | | | (3.9) | (4.0) | | |

주: p는 잠정치.

Ⅲ. 정책방향

1. 재정정책

- 재정정책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추가적 재정지출의 규모와 구성은 향후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적극 고려하되,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는 성격의 지출 증가는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
- 한편, 최근의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는 향후 재정건전성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병행할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적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세출 증가 속도를 최대한 통제하는 한편, 재정수입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대안 모색을 병행할 필요

2. 통화정책

- 통화정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와 물가 하방압력에 대응하여 가급적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최대한 인하한 후,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할 필요
- 저물가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인플레이션이 물가 안정목표(2%)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향후 경기 회복이나 농산물가격, 국제유가의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일부 반등하더라도 통화정책 정상화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충분히 안착할 때까지 인내할 필요

제1부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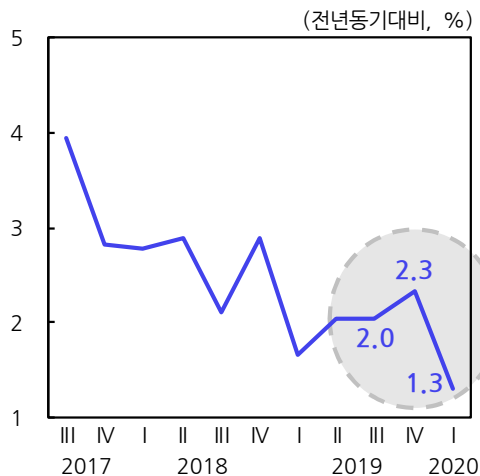
I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민간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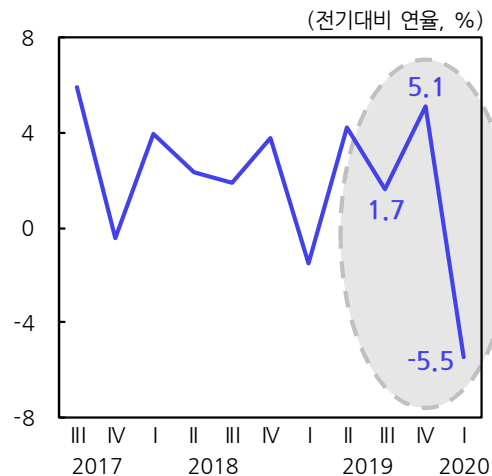
- 2020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전분기(2.3%)보다 낮은 전년동기대비 1.3%에 그쳤으며, 전기대비로도 -1.4%(연율 -5.5%)를 기록하며 급격한 경기 위축을 나타냄.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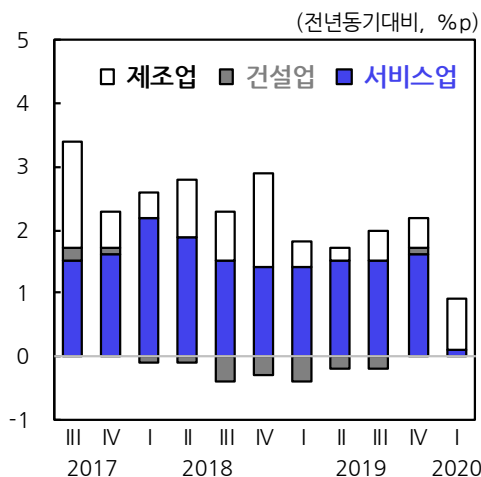
GDP 성장률(전기대비 연율)



- 1/4분기에는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에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집중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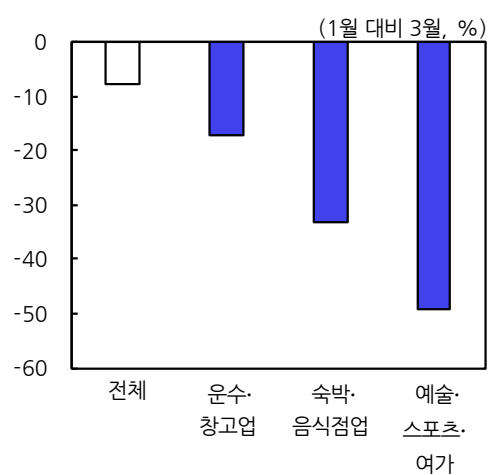
- 제조업에서는 2월 중국산 부품의 수급 차질에 따라 자동차생산이 일시적으로 감소함.

경제활동별 경제성장률 기여도



주: 주요 서비스업의 생산증가율은 계절조정 시계열의 1월 대비 3월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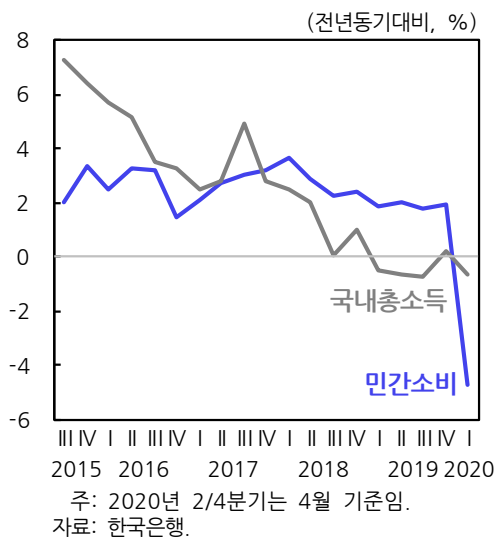
주요 서비스업의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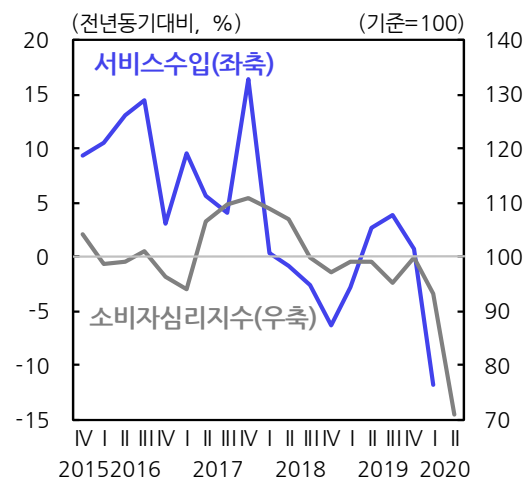
■ 수요 측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접촉 기피로 **민간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된 반면, 투자는 작년엔 부진했던 **기저효과** 등으로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

- 민간소비는 국내총소득이 감소하고 소비심리가 악화되는 가운데, 해외여행 제한으로 서비스수입이 급감하면서 큰 폭으로 축소됨.

민간소비와 국내총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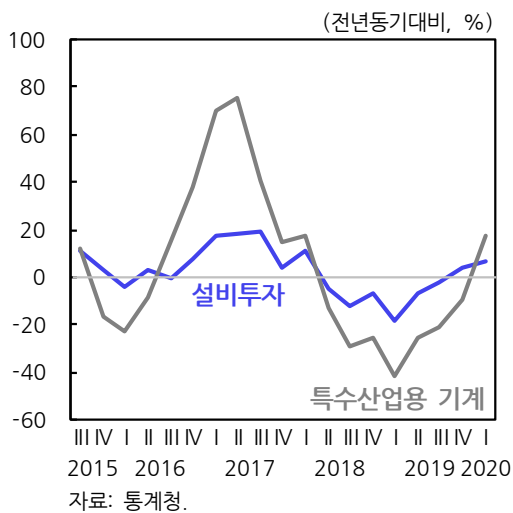


서비스수입과 소비자심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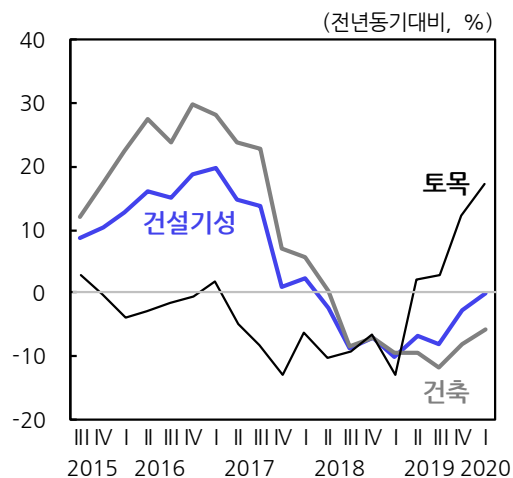


- 설비투자과 건설투자는 각각 반도체 관련 기계류와 토목부문이 개선되면서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

설비투자과 특수산업용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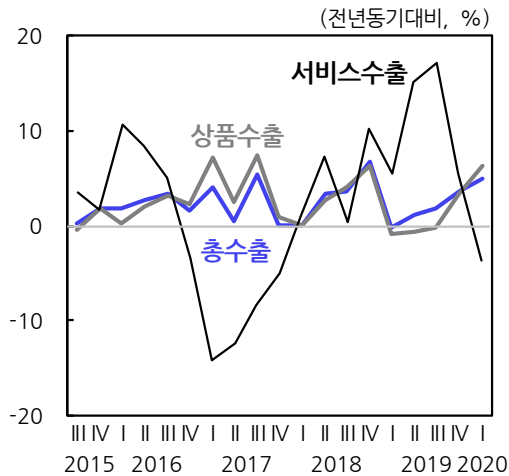
부문별 건설기성



■ 수출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주요국의 봉쇄조치로 인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성장세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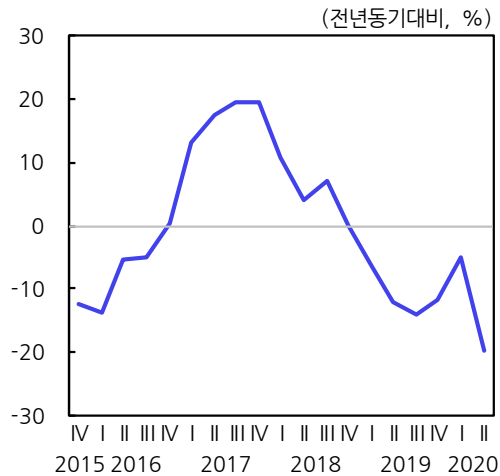
- 1/4분기에는 외국인 관광객과 밀접한 서비스수출이 감소로 전환되었으며, 2/4분기 들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상품수출도 부진한 모습을 보임.

부문별 실질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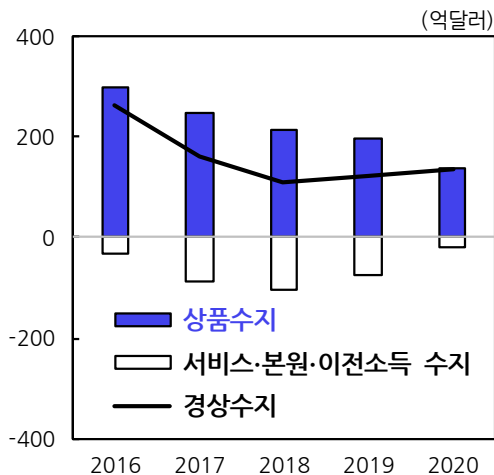
주: 2020년 2/4분기는 4월 1일~5월 10일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일평균 수출금액(상품통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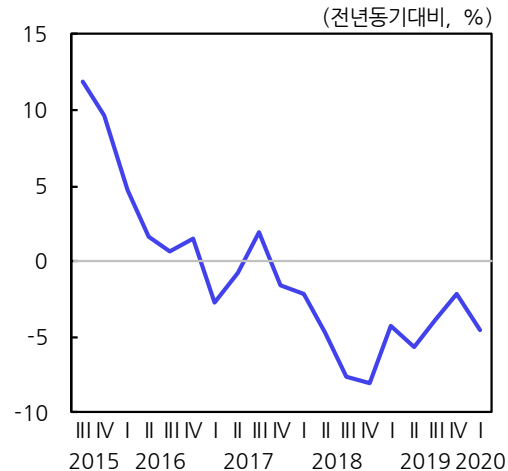
- 경상수지는 교역조건 악화로 상품수지가 축소되었으나,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가 개선되면서 흑자폭이 소폭 확대됨.

경상수지



주: 경상수지는 1/4분기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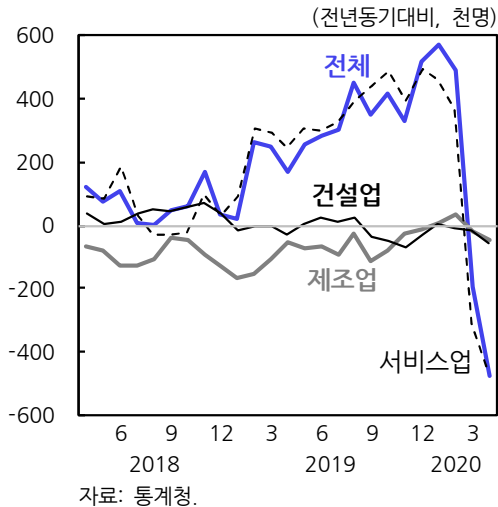
교역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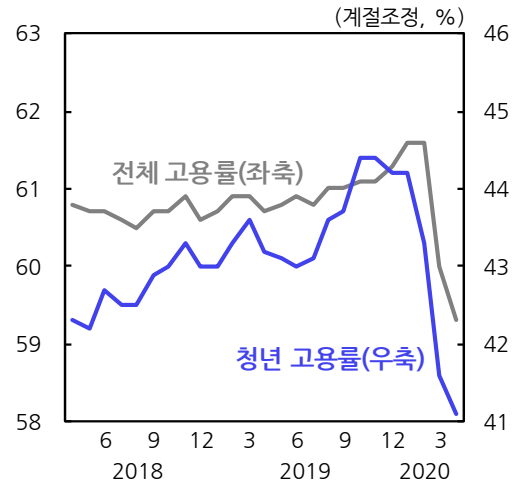
- 코로나19의 충격이 고용시장에도 반영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함.

● 특히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의 고용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음(현안분석 | 참조).

산업별 취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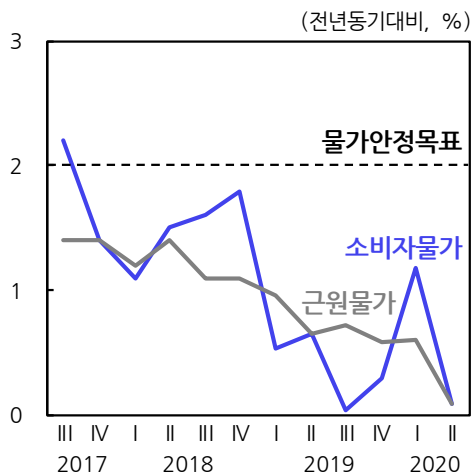
계절조정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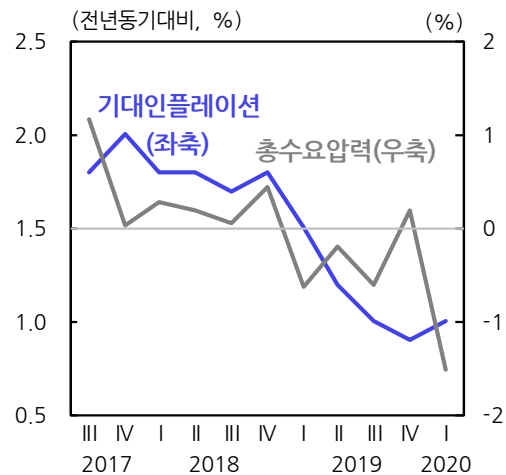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과 함께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0% 내외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

● 근원물가 상승률의 추세적인 하락으로 기대인플레이션도 낮은 수준에 머무름.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



기대인플레이션과 총수요압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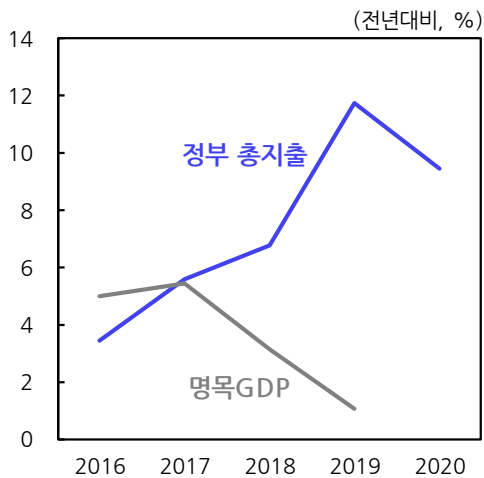


주: 기대인플레이션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이며, 2020년 2/4분기는 4월 수치임.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KDI 내부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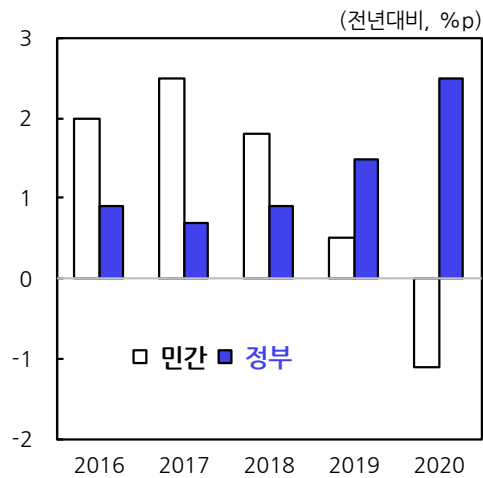
■ 민간부문의 경제활력 저하는 코로나19 위기 발생으로 더욱 심화됨.

- 정부지출이 경제규모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성장기여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반면, 민간부문의 성장세는 둔화되면서 경제 역동성이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모습

정부 총지출과 명목GDP의 증가율



경제주체별 경제성장률 기여도



주: 2020년 정부지출은 2차 추경안 기준이며, 2020년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1/4분기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 국내 금융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후 점차 안정되고 있으며, 대외건전성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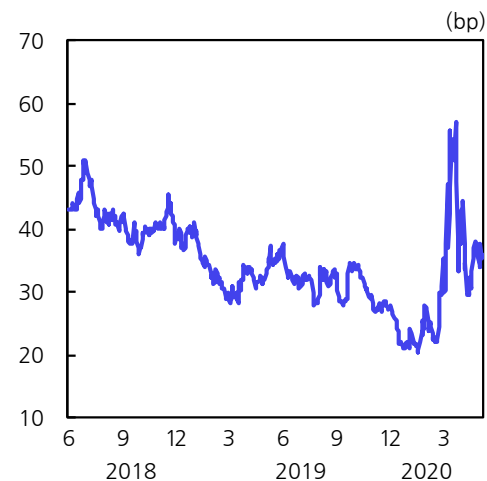
- 낮은 CDS 프리미엄과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반영함.

종합주가지수와 주식시장 변동성지수



자료: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CDS 프리미엄



■ 세계경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경제심리 위축과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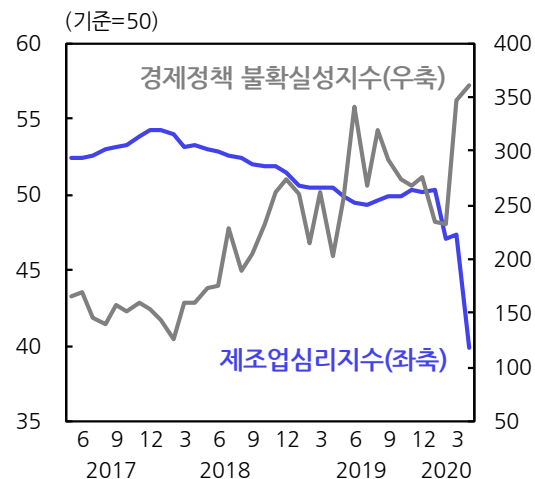
- 세계 산업생산과 교역량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주요국의 심리지표도 빠르게 악화됨.
 - 주요국에서 확장적인 거시·금융정책으로 경기 하방위험에 대처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경제에 대한 충격 강도를 감안할 때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세계 산업생산과 교역량



자료: CPB; 블룸버그.

세계 제조업심리와 경제정책 불확실성



- 국제기구에서는 최근 주요국의 경기가 급속히 위축됨에 따라 2020년 세계경제의 성장을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경기 불확실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
 - 특히,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거나 재발할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경기 회복도 상당 기간 지체될 것으로 전망함.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IMF)

(%)

| | 세계 | 미국 | 유로존 | 일본 | 중국 | 인도 | 브라질 | 한국 |
|-------|---------------|---------------|---------------|---------------|--------------|--------------|---------------|---------------|
| 2019년 | 2.9 | 2.3 | 1.2 | 0.7 | 6.1 | 4.2 | 1.1 | 2.0 |
| 2020년 | -3.0 [3.3] | -5.9 [2.0] | -7.5 [1.3] | -5.2 [0.7] | 1.2 [6.0] | 1.9 [5.8] | -5.3 [2.2] | -1.2 [2.2] |

주: [] 안은 IMF가 2020년 1월에 발표한 전망치이며, 한국은 2019년 10월 전망 기준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0.

-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성장경로에 대한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상황임(현안분석 II 참조).

- 거시경제 경로가 코로나19 확산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점에서 코로나19 방역은 인명피해 축소뿐 아니라 원활한 경기 회복을 위한 전제조건임.

-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 지원과 거시경제 안정, 경제시스템 보호에 중점을 두고 경제 정책을 운용해 나갈 필요

- 재정정책은 취약계층 지원과 민간수요 위축 완화를 위해 확대 편성된 재정지출 계획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

- 통화정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와 물가 하방압력에 대응하여 가급적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최대한 인하한 후,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할 필요

- 대규모 기업 파산과 실업의 발생은 생산능력 저하로 이어져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경기 회복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유동성 공급과 고용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경제시스템을 보호해야 함.

- 코로나19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에게 유동성을 지원할 필요

- 일자리와 구직자 간 매칭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충격에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실직자들이 경기 회복과 함께 다시 원래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병행할 필요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제 협력과 공조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필요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지원뿐 아니라, 신흥국 채무의 상환 유예,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거시정책 조율 등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국제공조가 필요함.

-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한 한시적 정책이 생산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

-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한 광범위한 지원 정책이 향후 기업의 건전한 진입과 퇴출을 지속적으로 제한하여 신성장 산업 발달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단기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의 악화 우려로 이어지지 않도록, 코로나19 이후의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

- 아울러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이 글로벌 가치사슬 위축이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전개되지 않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경주할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대내외 충격과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제·사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코로나19 이후 부각될 신성장 산업으로 자원이 원활하게 재배분될 수 있도록 경제 구조의 유연성을 개선할 필요
 - 코로나19 위기 이후 새로운 유망 산업과 사양 산업이 나타나며,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가 재편될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인 산업구조는 시장수요에 따라 재편되어야 하며, 정부는 관련 규제 개혁, 인프라 구축 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함.
 - 새로운 산업에 자원이 배분되기 위해서는 사양 산업에서 기업이 원활하게 퇴출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용 사각지대 해소, 실업자 지원 등의 사회안전망 확충이 뒷받침될 필요
-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및 IT 산업의 확대 등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교육시스템 개혁도 필요
 - 신성장 산업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 전공 선택의 유연성을 높이고, 진로교육, 직업교육과 노동시장 간 연계성 강화 등 교육시스템의 개혁이 시급함.

II

2020~21년 국내경제 전망

1.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
2. 2020~21년 국내경제 전망
3. 전망의 위험요인

1.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

- 세계경제가 2020년 상반기에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후, 2020년 하반기부터 완만하게 회복되는 것으로 전제

- 최근 IMF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2020년에 -3.0%의 역성장을 기록한 다음, 2021년에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5.8%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원유 도입단가(두바이유 기준)는 2020년에 전년대비 45% 정도 하락한 배럴당 35달러 내외를, 2021년에는 40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제

- 유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격한 수요위축과 공급과잉으로 급락하였으나, 2020년 하반기부터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함께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제

-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2020년에 4% 정도 절하된 후, 2021년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

- 원화가치가 작년에 비해 하락한 가운데, 향후에는 현재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제

2. 2020~21년 국내경제 전망

- 우리 경제는 2020년에 민간소비와 수출이 큰 폭으로 위축되며 0.2% 성장하는 데 그친 후, 2021년에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3.9% 성장할 전망

- 민간소비는 서비스소비를 중심으로 급감한 가운데,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둔화되면서 거주자의 국내소비가 비교적 빠르게 회복하겠으나, 당분간 국가 간 이동제한이 지속되면서 거주자의 국외소비는 내년까지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민간소비는 2020년에 -2.0%의 증가율을 기록한 후, 2021년에는 5.3% 증가하며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

- 설비투자는 글로벌 반도체수요의 회복과 작년의 기저효과 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충격이 반영되면서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됨.

- 설비투자는 2020년에 경기위축의 영향으로 0.9% 증가에 그친 후, 2021년에는 7.9% 증가할 전망

- 건설투자는 토목부문이 SOC를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2018년 이후 지속된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판단됨.

- 건설투자는 2020년에 1.4% 증가하며 작년(-3.1%)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고, 2021년에는 2.4% 증가하며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수출과 수입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당분간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다가 올해 하반기에는 상품수출을 중심으로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판단됨.

- 반도체 수요 회복과 주요국의 대규모 부양정책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수출은 2020년에 3.4% 감소한 후, 2021년에는 글로벌 투자 및 소비의 회복과 함께 4.9% 증가할 전망

- 수입은 2020년에 -3.8%의 감소를 기록한 후, 2021년에 내수와 수출이 모두 회복되면서 7.5%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경상수지는 수출물량이 축소되었으나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2020년에 작년과 유사한 흑자폭을 유지하고, 2021년에는 내수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로 흑자폭이 축소

- 상품수지는 2020년에 작년(769억달러)과 유사한 778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후, 2021년에 국내 투자수요의 회복에 따라 상품수입이 증가하며 664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

-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는 2020년에 -184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후, 2021년에는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서비스수입이 증가하며 적자폭(-255억달러)이 확대될 전망

-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600억달러와 400억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

■ 소비자물가는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위축과 유가 하락 등이 겹치면서 낮은 상승률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물가는 2020년에 작년과 동일한 0.4%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후, 2021년에 경기와 유가가 완만하게 회복됨에 따라 0.8% 상승할 전망

- 근원물가는 경기 위축에 따른 수요압력의 감소로 2020년에 작년(0.7%)보다 낮은 0.3%의 상승률을 기록한 후, 2021년에도 0.5%의 낮은 상승률이 지속될 전망

- **실업률은 가파른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2020년에 작년(3.8%)보다 소폭 높은 3.9%를 기록할 전망**

- 취업자 수는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충격을 정부정책이 부분적으로 보완하면서 2020년에는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한 후, 2021년에는 고용 부진이 완만하게 회복되며 20만명 정도 증가할 전망

3. 전망의 위험요인

-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는 코로나19의 확산 범위와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현안분석 II 참조).**

- 코로나19의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둔화할 경우,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은 일시적인 서비스업 위축으로 제한되고 우리 경제는 하반기부터 빠르게 회복될 전망
-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는 투자와 수출이 큰 폭으로 위축되고 경기 회복이 지연될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경로도 하향 조정될 수 있음.

2020~21년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 | 2018 ^p | 2019 ^p | 2020 | | | 2021 |
|---------------------|-------------------|-------------------|--------------|--------------|---------|-------|
| | 연간 ^p | 연간 ^p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연간 |
| 국내총생산 | 2.7 | 2.0 | -0.2 | 0.5 | 0.2 | 3.9 |
| 총소비 | 3.5 | 3.1 | -1.3 | 1.3 | 0.0 | 5.2 |
| 민간소비 | 2.8 | 1.9 | -4.0 | -0.1 | -2.0 | 5.3 |
| 총고정투자 | -2.4 | -3.3 | 1.8 | 1.4 | 1.5 | 4.2 |
| 설비투자 | -2.4 | -7.7 | 0.6 | 1.3 | 0.9 | 7.9 |
| 건설투자 | -4.3 | -3.1 | 2.1 | 0.7 | 1.4 | 2.4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2.2 | 2.7 | 2.4 | 3.0 | 2.7 | 4.1 |
| 총수출(물량) | 3.5 | 1.7 | -3.5 | -3.4 | -3.4 | 4.9 |
| 상품수출(물량) | 3.3 | 0.5 | -1.8 | -1.6 | -1.7 | 3.9 |
| 총수입(물량) | 0.8 | -0.4 | -4.1 | -3.5 | -3.8 | 7.5 |
| 상품수입(물량) | 1.6 | -0.8 | -1.2 | -1.0 | -1.1 | 5.6 |
| 경상수지 | 775 | 600 | 227 | 367 | 594 | 409 |
| 상품수지 | 1,101 | 769 | 336 | 441 | 778 | 664 |
| 수출(금액) | 6,263 | 5,620 | 2,360 | 2,365 | 4,725 | 4,920 |
| (증가율) | (7.9) | (-10.3) | (-15.2) | (-16.6) | (-15.9) | (4.1) |
| 수입(금액) | 5,162 | 4,851 | 2,024 | 1,924 | 3,947 | 4,256 |
| (증가율) | (10.6) | (-6.0) | (-16.2) | (-21.0) | (-18.6) | (7.8) |
| 서비스수지, 본원·이전소득수지 | -326 | -169 | -109 | -74 | -184 | -255 |
| 소비자물가 | 1.5 | 0.4 | 0.6 | 0.2 | 0.4 | 0.8 |
| 근원물가 | 1.2 | 0.7 | 0.4 | 0.2 | 0.3 | 0.5 |
| 실업률 (계절조정) | 3.8 | 3.8 | 4.2 (3.9) | 3.6 (4.0) | 3.9 | 4.1 |

주: p는 잠정치.

III

정책방향

1. 재정정책
2. 통화정책

1. 재정정책

■ 재정정책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추가적 재정지출의 규모와 구성은 향후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이미 확정되어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총 11.7조원 규모의 1차 추경과 12.2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의 집행을 신속히 완료할 필요

- 1, 2차 추경예산은 대부분 가계와 기업에 대한 이전지출로 구성되어 경기 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재난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보강의 목적으로 판단됨.

●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적극 고려하되,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는 성격의 지출 증가는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

- 전 세계적인 경기 위축 및 코로나19의 추가 확산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으로, 향후 보건 및 경기 상황에 따라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 연내 추가 재정지출이 필요할 경우 한시적(temporary)이고 가역적(reversible)인 성격의 지출을 중심으로 편성하며, 중장기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수입 확보 방안을 병행하여 추후 본예산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 작년부터 지속된 법인실적 악화 및 코로나19 확산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금년도 국세수입이 예산상 계획치를 큰 폭으로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획된 재정지출이 연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입예산 또한 조정할 필요

주요 재정지표

(조원, %)

| | 2019 | | 2020 | | | 2021 | 2022 | 2023 |
|--------------------|-------------------------------|-------------------------------|-----------------|-----------------|-----------------|-----------------|-----------------|-------------------|
| | 본예산 | 결산 | 본예산 | 1차추경 | 2차추경 | 중기계획 | 중기계획 | 중기계획 |
| 총수입 (전년대비 증가율) | 476.1 (6.5) | 473.1 (1.7) | 481.8 (1.2) | 481.6 (1.2) | 482.2 (1.3) | 504.4 (4.7) | 529.1 (4.9) | 554.3 (4.8) |
| 총지출 (전년대비 증가율) | 469.6 (9.5) | 485.1 (11.7) | 512.3 (9.1) | 523.1 (11.4) | 531.1 (13.1) | 546.8 (6.5) | 575.3 (5.2) | 604.0 (5.0) |
|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37.6 [-1.9] | -54.4 [-2.8] | -71.5 [-3.5] | -82.0 [-4.1] | -89.4 [-4.5] | -83.0 [-4.0] | -85.7 [-4.0] | -90.3 [-4.0] |
| 국가채무 [GDP 대비] | 740.8 [37.1] ²⁾ | 728.8 [38.1] ²⁾ | 805.2 [39.8] | 815.5 [41.2] | 819.0 [41.4] | 898.8 [43.6] | 981.8 [45.8] | 1,072.7 [48.0] |

주: 1) 경제성장을 전망치 및 중기계획은 2020년 2차 추경안에서 수정된 중기계획을 반영함.

2) 2019년 명목GDP는 (본예산) 1,994.6조원, (결산) 1,914.0조원임.

자료: 기획재정부.

■ 한편, 최근의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는 향후 재정건전성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병행할 필요

- 2차례의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년 말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또한 본예산상의 계획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 (본예산) -3.5 → (2차 추경) -4.5

* 국가채무(GDP 대비, %): (본예산) 39.8 → (2차 추경) 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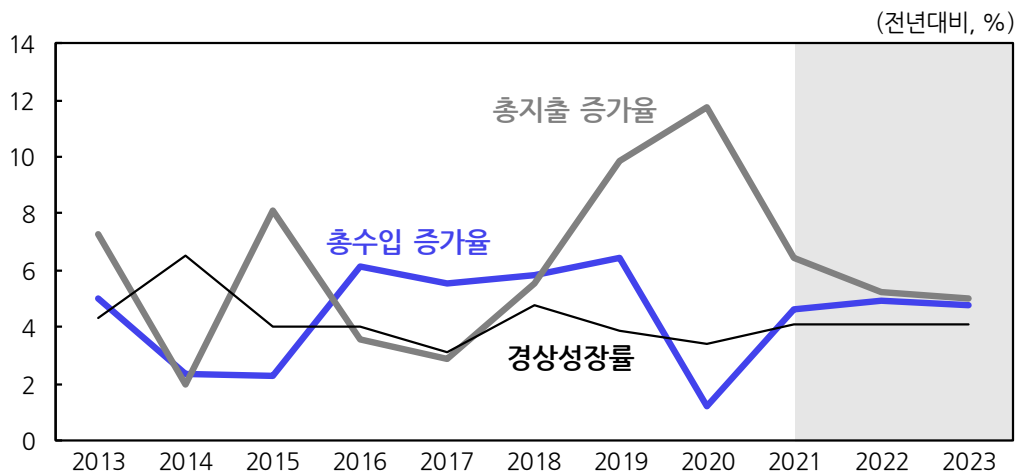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단기적 지출 확대와 조세부담 완화는 경기회복 이후의 지출 감소와 조세부담의 정상화로 보완될 것임을 명시하여 재정건전성에 대한 민간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

- 한시적 지출 및 감세조치는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신속히 복원하여 추가적 재정지출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적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세출 증가 속도를 최대한 통제하는 한편, 재정수입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대안 모색을 병행할 필요

-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크게 상회할 수는 없으므로, 이 격차를 점차 축소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총수입 및 총지출 증가율, 경상성장률



주: 1) 2013~20년의 총지출과 총수입 증가율은 해당 연도의 추경(2014년은 본예산)상의 수치를, 2021~23년의 총지출과 총수입 증가율은 2020년 2차 추경안에서 수정된 중기계획상의 수치를 적용함.

2) 경상성장률은 해당연도 (추경)예산안 및 2019~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제된 수치를 준용함.

자료: 기획재정부.

2. 통화정책

■ 통화정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와 물가 하방압력에 대응하여 **가급적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최대한 인하한 후,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할 필요**

●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경제성장세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 내외로 하락한바, 적극적인 통화정책 운용이 시급하게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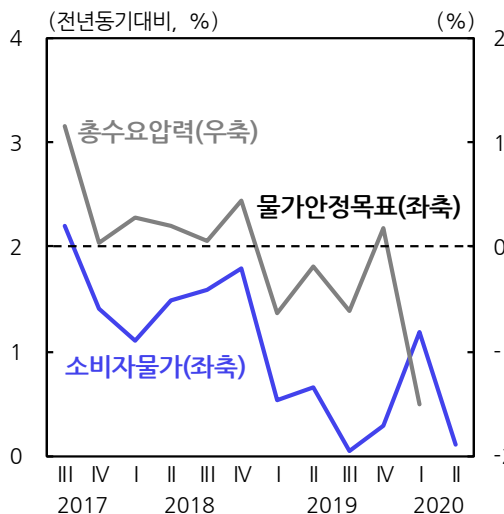
- 물가의 기초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상승률도 0% 내외로 하락하며 실질금리(기준금리 - 기대인플레이션)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바, 현 기준금리(0.75%)가 최근 상황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 우선 기준금리를 0%에 충분히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만으로는 경기 회복과 물가상승률 안정에 불충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국채 매입을 비롯한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도 적극 동원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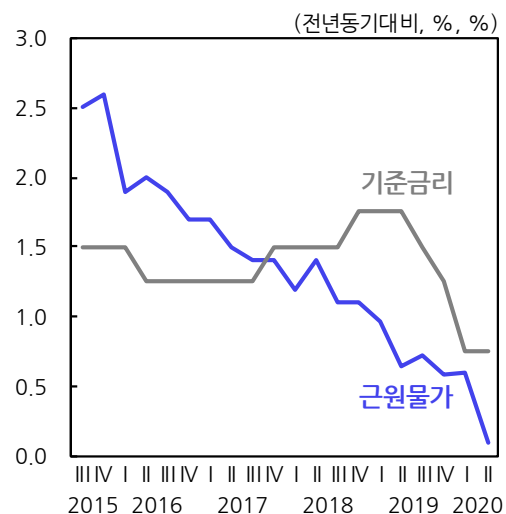
- 기준금리 인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보다 광범위한 경제주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파급효과도 크다는 점에서 우선 고려될 필요

-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국채 발행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통화당국은 민간부문의 유동성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국채 공급을 일부 흡수하는 정책조합으로 현 위기 상황에 대처할 필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총수요압력



근원물가 상승률과 기준금리



주: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소비자물가이며, 2020년 2/4분기는 4월 수치임.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KDI 내부 추정치.

■ 저물가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2%)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2013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통화정책의 물가안정목표를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하며 2019년 3월 이후 0%대를 지속함.
- 장기간의 낮은 인플레이션은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실질금리(기준금리 - 기대인플레이션) 하향 조정을 제약할 수 있음.
 -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 유지는 실질금리 하향 조정 과정에서 기준금리가 하한에 도달할 가능성을 축소한다는 점에서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됨.
- 향후 경기 회복이나 농산물가격, 국제유가의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일부 반등하더라도 통화정책 정상화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충분히 안착할 때까지 인내할 필요
 -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forward guidance)의 적극적인 활용도 물가상승률 반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통화정책목표 적용 기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목표 수준과 실제치

(%, %p)

| | 2013~15년 | 2016~18년 | 2019년 이후 |
|----------|----------|----------|----------|
| 목표 수준(A) | 2.5~3.5 | 2.0 | 2.0 |
| 실제치(B) | 1.1 | 1.5 | 0.5 |
| 격차(B-A) | -1.9 | -0.5 | -1.5 |

주: 격차는 목표 수준의 중심치를 기준으로 계산함.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제2부

경제현안 분석

경제현안 분석

I. 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

— 연구위원 한요셉

II.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시경제 경로 전망

— 경제전망실

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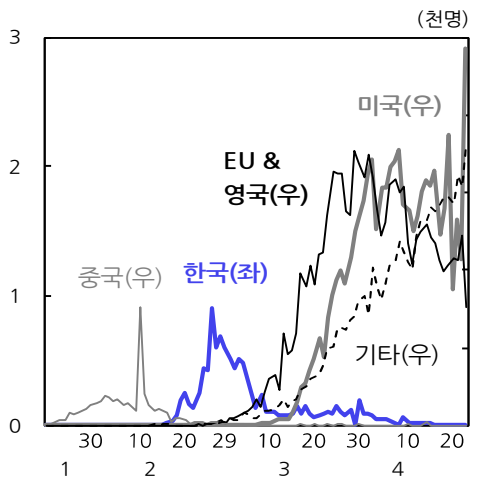
연구위원 한요셉

1. 문제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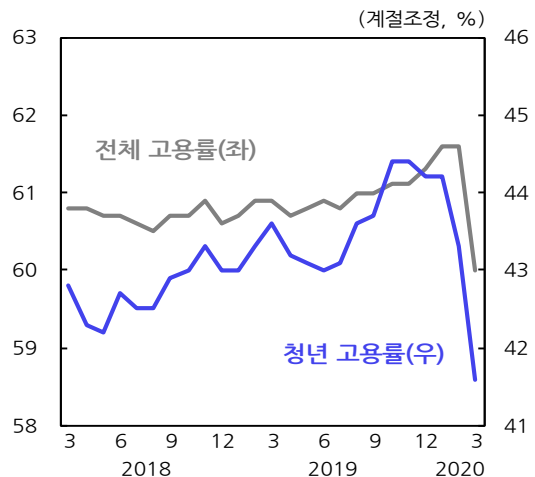
■ 청년 고용은 2019년 4/4분기에 양적인 개선 흐름이 나타났으나, 코로나19 보건위기로 인해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며 부정적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청년층(15~29세) 고용부진이 계속되던 중 지난 4/4분기에는 고용률이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는 등 고용지표상 개선세가 나타났음.
- 그러나 2020년에 발생한 전 세계적 보건위기(pandemic)로 인해 경기침체와 함께 전반적인 고용위축이 예상됨.
-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 충격은 신규구직 계층인 청년에게 특히 크게 작용하므로 청년 고용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책 수립이 필요
 - 2020년 2월과 3월의 청년 고용률은 계절조정 기준으로 1월 대비 0.9%p, 2.6%p 하락하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남.

COVID-19 신규 확진자 수



계절조정 고용률



청년층 주요 고용지표

(% , %p)

| | 2018 | | | | 2019 | | | | 2020 |
|----------|----------------|----------------|---------------|----------------|---------------|---------------|----------------|----------------|----------------|
| | Q1 | Q2 | Q3 | Q4 | Q1 | Q2 | Q3 | Q4 | Q1 |
| 고용률 | 42.1 (0.8) | 42.5 (-0.1) | 43.1 (0.3) | 42.9 (1.2) | 42.9 (0.8) | 43.2 (0.7) | 43.9 (0.8) | 44.1 (1.2) | 42.6 (-0.3) |
| 실업률 | 10.0 (-0.7) | 10.1 (-0.2) | 9.4 (0.1) | 8.3 (-0.7) | 9.7 (-0.3) | 10.6 (0.5) | 8.1 (-1.2) | 7.1 (-1.2) | 8.8 (-0.9) |
| 고용보조지표 1 | 11.8 (-0.9) | 12.0 (-0.2) | 11.5 (0.5) | 10.5 (-0.2) | 12.2 (0.4) | 13.2 (1.1) | 10.4 (-1.1) | 9.3 (-1.2) | 11.8 (-0.4) |
| 고용보조지표 2 | 21.4 (-0.5) | 21.5 (-0.1) | 20.9 (0.3) | 20.3 (0.3) | 22.1 (0.7) | 22.5 (1.0) | 20.3 (-0.7) | 18.7 (-1.6) | 21.1 (-1.0) |
| 고용보조지표 3 | 22.9 (-0.7) | 23.2 (-0.1) | 22.8 (0.6) | 22.2 (0.7) | 24.2 (1.4) | 24.7 (1.5) | 22.3 (-0.5) | 20.5 (-1.7) | 23.7 (-0.6) |

주: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임.

고용보조지표 1: (실업자+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경제활동인구 × 100

고용보조지표 2: (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 × 100

고용보조지표 3: (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확장경제활동인구 × 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2020년 이전의 청년 고용

■ 2020년 이전의 청년 고용률 수치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청년층 내 인구 비중 변화를 고려할 경우에는 2019년 3/4분기까지도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 청년층(15~29세) 내에서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20대 인구의 비중 증가만으로도 청년 고용률이 증가할 수 있음.

- 15~19세 고용률은 타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아 10대 인구가 감소하거나, 20대 인구가 증가하는 연령 구성비 변화(compositional change)만으로도 청년 고용률은 상승

* 15~19세 고용률은 2018년 7.4%로 20~24세(43.7%)나 25~29세(70.2%)보다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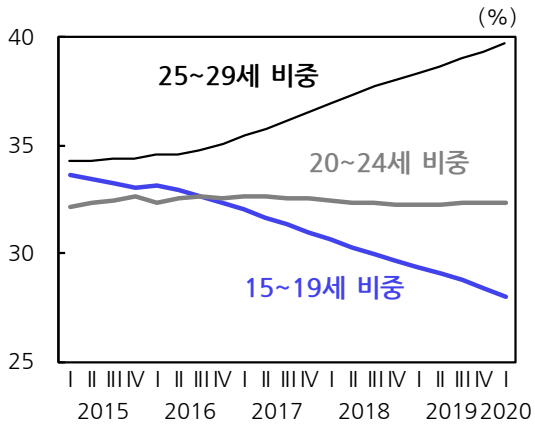
- 인구 구성이 빠르게 변화하는 최근 상황에서는 인구 구성을 고정한 상태에서 각 연령별 고용률의 변화만으로 설명되는 청년층 고용률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

● 연령별 인구 구성비의 변화를 보정할 경우 2016년 말부터 고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 고용상황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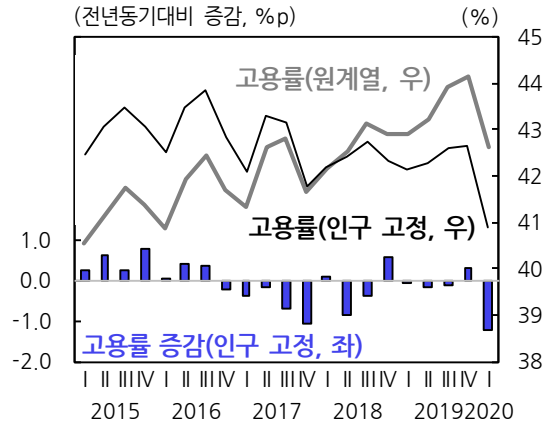
- 2016년 4/4분기 이후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으로 인한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위축 및 조선업·자동차 등 제조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청년 고용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함.

- 아울러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 정년 연장의 효과가 2017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점도 청년 고용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한요섭, 2019).

청년층 연령 구성의 변화



청년 고용률의 변화(인구 구성비 고정)



주: 인구 구성비 고정 고용률은 각 연령별(1세 단위) 및 성별 인구 비중을 2018년 3월 수준에 고정하여 계산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19년 4/4분기에는 인구 비중의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고용률이 증가하고 실업률은 하락하는 등 양적 개선 흐름이 나타났지만, 한편으로 비경제활동인구 비중도 증가

● 2019년에도 제조업 전반의 고용감소세가 계속되었으나 국내 서비스 소비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에 힘입어 서비스업 고용이 증가하였으며, 4/4분기에는 제조업 고용감소세 완화와 함께 고용회복세가 나타남.

– 2019년에 예술·스포츠·여가 및 숙박·음식점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업에서 청년층 취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내국인 서비스 소비의 지속적 확대(2018년 2.2% → 2019년 2.5%) 및 2018년 2/4분기 이후 외국인 관광객의 급증세와 밀접한 연관

* 다만, 예술·스포츠·여가 및 숙박·음식 분야는 제조업에 비해 청년층 임금수준이 낮아(2019년 8월 약 2/3) 질적 개선세로 이어지지는 못했던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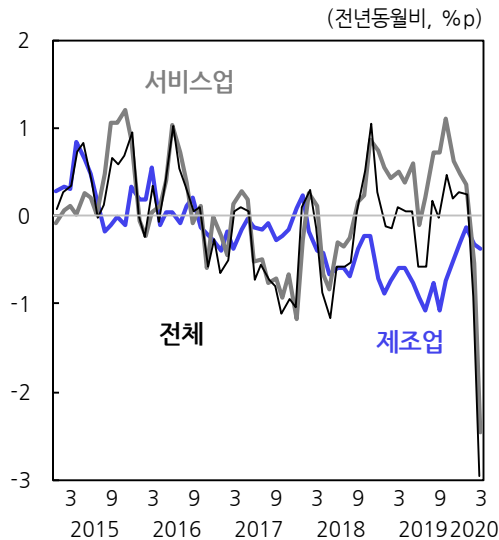
– 한편, 제조업의 경우 반도체·자동차 등에서 고용둔화가 지속되었으나 조선업에서 청년층 채용이 확대되는 흐름도 나타났고, 4/4분기에는 제조업 전체 고용감소세가 일부 완화됨.

● 한편, 2019년 3/4분기 이후 실업률을 비롯한 고용보조지표들의 급격한 하락은 실제 노동수요의 증가와 함께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의 확대에도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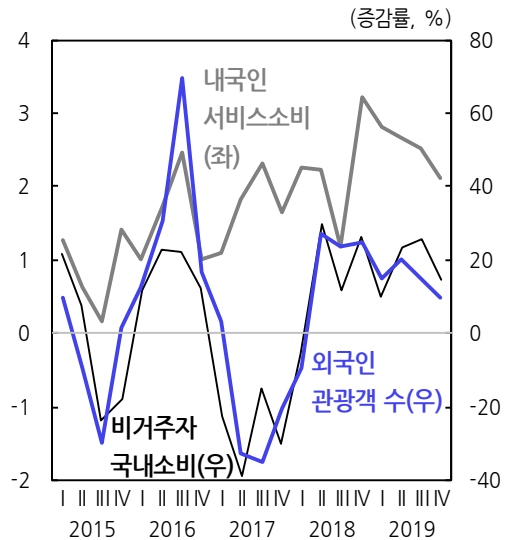
– 연령 구성비를 통제한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2019년 하반기에 큰 폭의 증가세로 전환

– 사유별로는 2019년에 '쉬었음' 사유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증가했고 하반기에는 '재학·진학준비' 사유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증가세로 전환된바, 이는 수요-공급 mismatch 등으로 구직을 포기하거나 진학을 선택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시사함.

청년 고용률 증감(인구 고정)의 산업별 분해



내국인 서비스소비와 외국인 국내소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관광공사, 「관광통계」.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의 변화

(%, %p)

| | 2018 | | | | 2019 | | | | 2020 |
|--------------------------|----------------|---------------|----------------|----------------|----------------|----------------|----------------|----------------|---------------|
| | Q1 | Q2 | Q3 | Q4 | Q1 | Q2 | Q3 | Q4 | Q1 |
| 비경제활동인구 비중(A) | 53.1 (-0.6) | 52.7 (0.2) | 52.4 (-0.4) | 53.2 (-1.0) | 52.5 (-0.7) | 51.6 (-1.1) | 52.2 (-0.2) | 52.5 (-0.7) | 53.2 (0.7) |
| 비경제활동인구 비중(B) (인구 고정) | 53.1 (0.3) | 52.8 (1.1) | 52.9 (0.4) | 53.8 (-0.3) | 53.3 (0.2) | 52.7 (-0.1) | 53.6 (0.8) | 54.1 (0.2) | 55.1 (1.8) |
| 사유별 | | | | | | | | | |
| 재학·진학준비(B1) | 40.2 (0.4) | 40.1 (1.2) | 40.4 (0.7) | 41.5 (-0.2) | 39.8 (-0.3) | 39.5 (-0.6) | 40.4 (0.0) | 41.4 (0.0) | 40.8 (1.0) |
| 취업준비(B2) | 5.3 (0.0) | 5.6 (0.1) | 5.4 (-0.1) | 5.4 (0.4) | 5.9 (0.6) | 5.7 (0.1) | 5.6 (0.3) | 5.4 (0.0) | 6.0 (0.1) |
| 쉬었음(B3) | 3.5 (0.0) | 3.3 (0.2) | 3.5 (0.4) | 3.4 (0.0) | 3.9 (0.4) | 3.8 (0.5) | 4.0 (0.5) | 3.8 (0.4) | 4.6 (0.7) |
| 그 외(B4) | 4.1 (-0.1) | 3.8 (-0.4) | 3.6 (-0.5) | 3.5 (-0.5) | 3.7 (-0.4) | 3.7 (-0.1) | 3.6 (0.0) | 3.4 (-0.1) | 3.7 (-0.0) |

주: 전체 인구 중 비중을 의미하며,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임.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인구 고정)은 연령별(1세 단위) 및 성별 인구구성비를 2018년 3월 수준에 고정하여 계산한 값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2020년 이후의 청년 고용

■ 지난 2월 이후 보건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음.

● 지난 1월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청년층 고용률은 2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되었음.

- 청년층 고용률(원계열)은 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1.1%p 상승하였으나, 2월에는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고, 3월에는 큰 폭의 하락(-1.9%p)으로 전환
- 연령별 인구비중을 고정한 고용률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0.2%p 증가하였지만 2월과 3월에는 각각 1.0%p, 3.0%p 하락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비해 고용률 증가폭이 3%p 정도 축소됨.
- 산업별로는 청년층의 경우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업(여행업 포함) 등에서 고용률 상승세가 하락세로 급격히 전환되었으며, 교육서비스업에서도 일시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남.

● 현재 청년층 고용상황의 급격한 악화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국내 통제로 인해 대면 업종의 서비스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위축되며 나타난 현상임.

- 3월 고용률은 국내 보건 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 대면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고 신규채용도 위축된 영향을 주로 반영함.
- 3월 중순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로 감염이 확산되어 각국의 통제가 강화됨에 따른 영향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며, 2분기 이후 고용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청년층 고용률 증감 추이

(%, %p)

| | 고용률 | | | | 고용률(인구 고정) | | | |
|----------------|-------|--------|--------|--------|------------|--------|--------|--------|
| | 12월 | 1월 | 2월 | 3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 청년층 고용률 | 43.8 | 44.0 | 42.9 | 41.0 | 43.8 | 43.9 | 42.7 | 40.7 |
| 전년동기비 증감 | 1.2 | 1.1 | 0.0 | -1.9 | 0.3 | 0.2 | -1.0 | -3.0 |
| 전년동기비 증감의 전월비 | (0.1) | (-0.0) | (-1.1) | (-1.9) | (0.1) | (-0.0) | (-1.2) | (-2.0) |
| 주요 산업별 고용률 증감 | | | | | | | | |
| 숙박·음식점 | 0.7 | 0.5 | 0.1 | -0.3 | 0.6 | 0.5 | 0.1 | -0.3 |
| 예술·스포츠·여가 | 0.6 | 0.5 | 0.4 | -0.1 | 0.6 | 0.5 | 0.4 | -0.2 |
| 사업시설관리·지원 및 임대 | 0.0 | -0.1 | -0.3 | -0.2 | 0.1 | -0.1 | -0.3 | -0.3 |
| 교육 | 0.2 | 0.3 | 0.2 | -0.4 | 0.1 | 0.2 | 0.1 | -0.5 |

주: 고용률(인구 고정)은 연령별(1세 단위) 및 성별 인구구성비를 2019년 12월 수준에 고정하여 계산함.
() 안은 전월대비 차이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향후 청년층 고용은 해외의 보건위기와 이에 따른 전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 더욱 위축될 전망

- 3월 중 많은 기업의 신규채용이 일시적 혹은 무기한으로 연기되었으며, 향후 상황에 따라서는 신규채용을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기업이 증가할 전망

-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3월 중 평일 채용공고 등록건수가 전년동기비 32.7% 감소하였고, 특히 신입사원 채용공고는 44.4% 감소하여 경력직(-28.0%)보다 감소폭이 큼.
- 다만, 3월 채용공고의 급감은 국내 보건 상황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도 포함하고 있어서 4~5월에 감소세가 부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은 있음.

* 4월 15일 현재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의 상반기 공채 일정은 모두 확정됨.

- 향후 해외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제조업 및 관련 분야와 내수 서비스업 등에서 고용이 위축되고, 특히 청년층의 고용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금융위기 시 고용위축은 주로 해외 요인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제조업 고용이 크게 위축되면서 내수 서비스 업종에도 파급효과가 미침(Box 1).
- 당시 타 연령대와 달리 청년층의 경우 고용률이 전년동기대비 2%p 하락하고 회복도 매우 느리게 이루어지는 등 고용위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였음(Box 1).

■ 현재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경우 이번 위기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단기적인 임금 손실 외에도 경력 상실로 인한 임금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

- 졸업 직후 10년간의 경력 동안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험적 관계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일경험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 및 매칭 효율성 증진이 임금상승의 대부분을 설명
-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대졸이나 대졸 노동시장에서 경력 상실로 인한 임금 손실이 특히 큰 것으로 추정되며, 첫 입직이 1년 늦을 경우 같은 연령의 근로자에 비해 첫 입직 후 10년 동안의 임금이 연평균 4~8%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됨(한요셉, 2017).

- 취업한 경우에도 경력 초기의 직장 선택이 제약되는 상황에서는 향후 경력 개발의 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불리한 경기 상황으로 인해 첫 직장 임금이 10% 낮아질 경우 경력 10년 차 이후로도 같은 연령의 근로자보다 임금이 10% 이상 낮거나(고졸) 전일제 취업률이 1%p 이상 낮음(전문대졸·대졸)(한요셉, 2017).

Box 1. 글로벌 금융위기 시 고용 충격의 이질성

■ 글로벌 금융위기는 해외에서 시작된 경제위기로 한국에서는 2008년 4/4분기부터 GDP에 본격적인 영향이 나타났으며, 고용에는 1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 가운데 산업과 연령대별로 상당한 이질성을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4/4분기부터 실질 GDP 감소가 본격화되었고, 2009년 4/4분기부터 회복되기 시작함.

- 실질 GDP 성장률은 2008년 4/4분기 -1.7%, 2009년 1/4분기 -1.8% 및 2/4분기 -1.2% 등을 기록

● 고용에는 2009년 1/4분기부터 고용률이 전년동기대비 1%p 이상 하락하는 등 시차를 두고 충격이 실현되었으며, 2010년 2/4분기부터 회복되기 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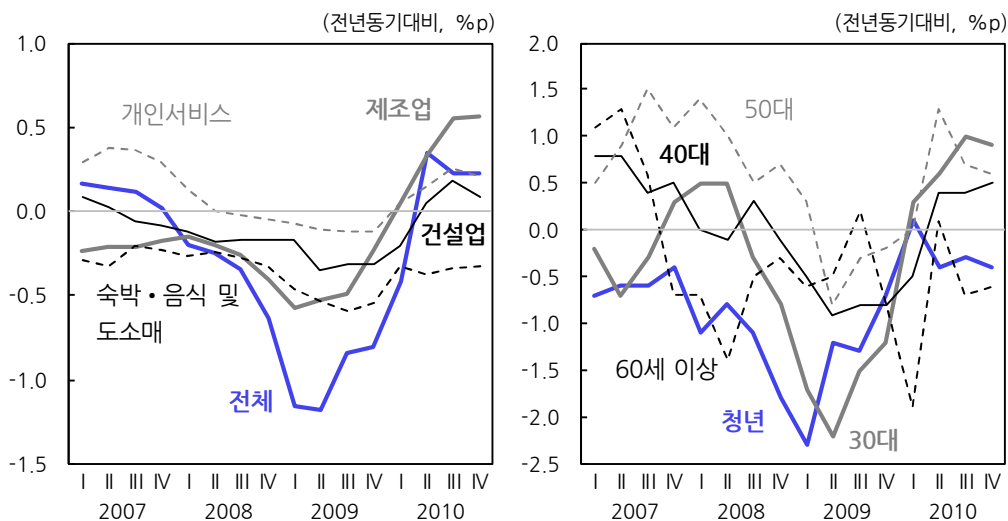
- 산업 측면에서는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고용위축이 크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청년 및 30대에서 각각 2009년 1/4분기와 2/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p 이상의 고용위축이 나타남.

● 연령에 따른 고용 충격의 차이는 신규구직 여부와 긴밀한 연관이 있음.

- 강한 고용보호제도하에서 고용 충격은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

글로벌 금융위기 시 산업별·연령대별 고용률 증감



4. 정책적 대응 방향

- 현재의 청년층은 고령화된 인구를 부양할 미래 세대라는 점에서 인적자본 및 일경험 축적을 위한 사회적 배려의 필요성이 높음.
 - 인구 고령화로 총부양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단기적 위기의 장기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증대됨.
- 현 경제위기는 직접 대면 및 이동 등이 제한되면서 업종별로 이질적인 수요 충격이 가해진 상태로, 고용정책의 효과성이 기존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여행·숙박업을 비롯하여 음식점업·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소비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온라인 소매업 등 비대면 업종에서는 오히려 수요가 확대됨.
 - 주요 고용정책 중 직업훈련이나 고용서비스는 제공 자체에 제약이 있으며, 실업급여 및 복지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매우 중요해짐.
- 현재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취업 청년은 배제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됨.
 - 구직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1년 미만 가입자까지 확대되었으나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경우는 여전히 해당되지 않으며, 가구 단위 복지 지원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 취업기회의 지연 및 상실이라는 피해가 발생하지만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국민취업지원제도(1 유형)가 도입될 경우 청년층 지원 기준은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
- 국내에서 보건위기가 단시간에 종식되더라도 대외수요 충격이 지속된다면 고용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이 필요
 - 현재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업종도 존재하므로 이러한 업종을 중심으로 신규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채용장려금과 같은 지원을 확대할 필요
 - 취업난이 예상되는 최근 졸업생들의 경우 IT를 비롯한 향후 유망 분야의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 제공할 필요
- 보건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큰 폭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업·인력양성 정책의 변화와 함께 교육개혁 등 중장기적 대책도 병행되어야 함.
 - 보건 및 IT 부문의 확대에 대비하는 산업 및 인력양성 정책의 변화가 필요
 - 특히 교육 부문에서 온라인 교육의 내실화, 대학 전공선택의 유연성 제고, 진로교육 강화 및 직업교육과 노동시장 간 연계성 강화 등의 개혁이 시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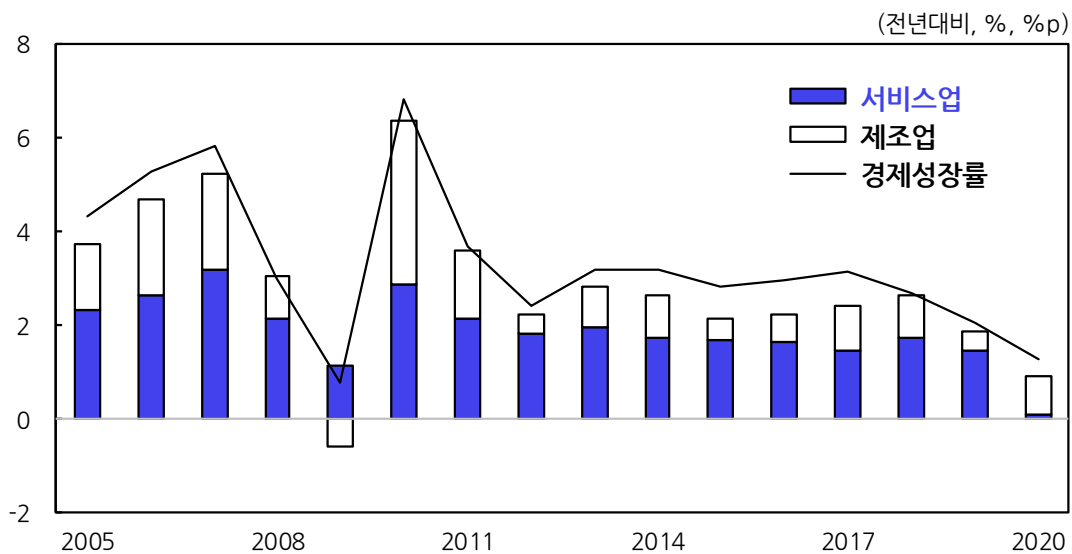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시경제 경로 전망

경제전망실

1. 문제제기

-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었으며,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점증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감소하면서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3%(전기대비 -1.4%)로 하락함.
 -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 코로나19가 3월 이후에 급속하게 확산된 점을 감안하면, 향후 수출이 부진해지며 제조업 부문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이 높음.

경제성장률과 경제활동별 성장기여도



주: 2020년은 1/4분기의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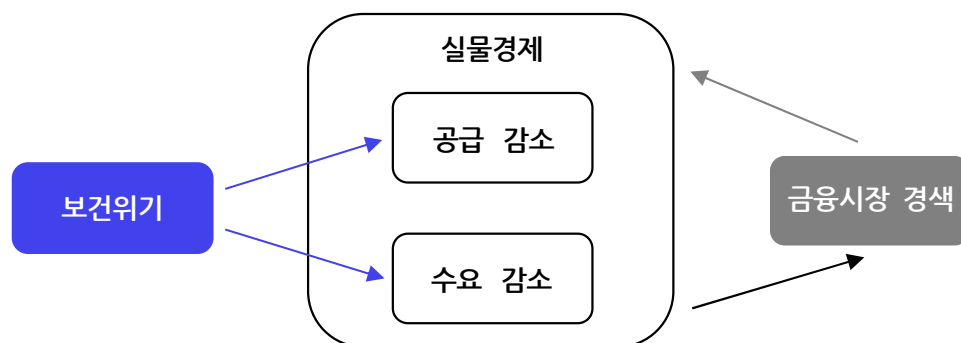
- 본고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향후 거시경제 흐름을 가능하고자 함.

2.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코로나19 보건위기

■ 코로나19 보건위기는 공급 측과 수요 측 모두에 부정적 충격으로 작용하며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음.

- (공급 경로) 코로나19 감염, 격리, 가족돌봄 등에 따라 노동공급이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폐쇄도 공급을 제한하는 요인
 - 글로벌 가치사슬의 발달에 따라 한 부문에서 발생한 생산차질은 전·후방 산업에 즉각적인 타격을 주며, 공급 충격이 대내외 경제로 확산됨.
- (수요 경로) 코로나19 감염 우려, 경기 하방위험 및 불확실성의 확대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축소되고, 대외경제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여 수출도 위축됨.
 - 공급과 수요 충격에 따른 소득 감소는 다시 수요 감소로 이어져 거시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증폭됨.
- (금융 경로) 실물경기 침체가 금융시장 경색으로 이어질 경우,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자금조달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경제적 피해도 확대됨.
 - 경기침체에 따라 기업, 자영업자, 가계가 파산할 경우, 공급과 수요가 더욱 위축되며 경기침체가 심화될 수 있음.
 - 대규모의 부실대출이 발생하여 금융기관이 자금경색을 겪으며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개될 경우, 거시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게 증폭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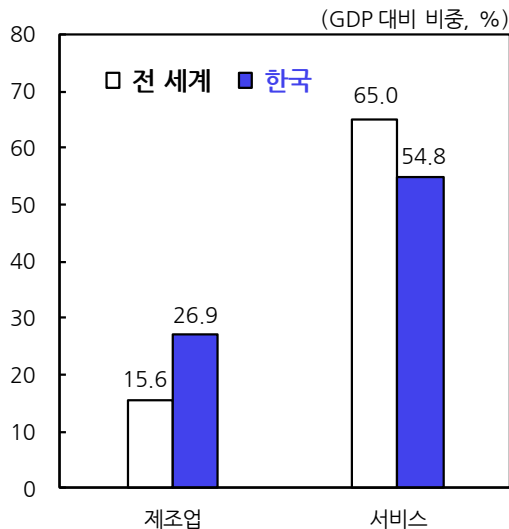
코로나19의 경제적 파급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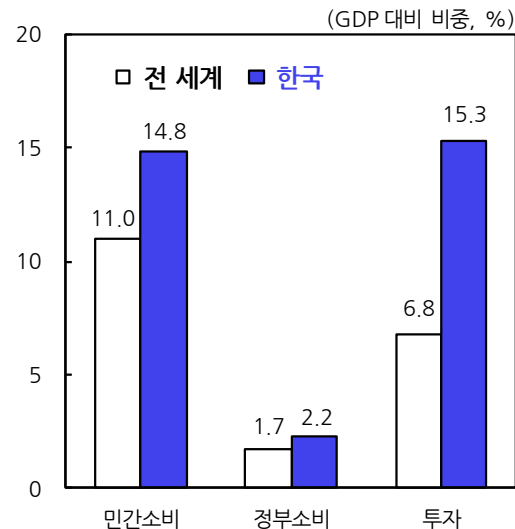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장기화되며 글로벌 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경제는 여타 국가에 비해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음.

- 한국경제는 여타 국가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높으며, 수출 측면에서도 글로벌 소비보다 글로벌 투자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 통상의 경기변동에서는 경기수축기에 투자가 소비보다 더 큰 폭으로 변동하나, 현재 코로나19 위기에서는 아직까지 소비 관련 서비스업에 부정적 영향이 집중되어 있음.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투자가 일시적으로 위축되더라도, 향후 경기가 빠르게 반등한다면 지연된 투자가 재개되면서 2020년 전체로는 투자 부진의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음.
-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대차대조표가 악화되고 투자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글로벌 투자가 급격하게 위축되며 제조업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
 - 가계부문에서도 내구재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제조업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
- 한국경제는 제조업과 밀접한 글로벌 투자 수요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투자 부진이 발생할 경우 한국경제의 성장세도 빠르게 둔화됨.
 - 다만, 반도체 등 대면접촉을 일부 대체하는 IT 관련 품목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주요국의 경기 부양정책도 수출 부진을 부분적으로 완화함.

GDP 대비 경제활동별 부가가치 비중



GDP의 글로벌 최종수요 항목별 의존도



주: 경제활동별 비중은 2017년 자료이며, 글로벌 최종수요 항목별 의존도는 부가가치 기준으로 2014년 자료임.
 자료: WDI, 한국은행, WIOD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 코로나19의 충격을 크게 받은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제조업에도 고용 충격이 예상됨.

●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일시휴직자 수도 급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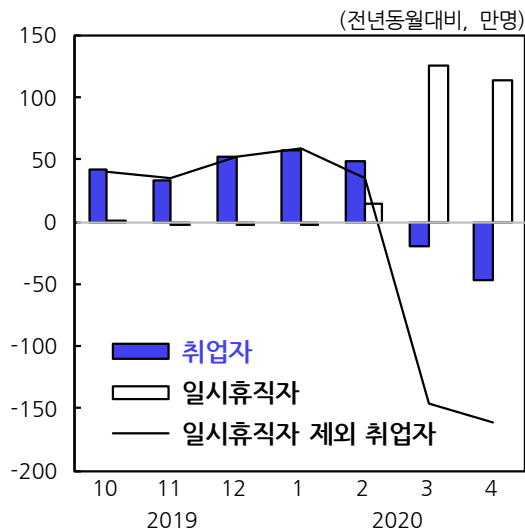
- 일시휴직자를 제외한 취업자 수는 1월 전년동월대비 60만명 증가에서 4월 161만명 감소로 전환됨.
-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업에 코로나19의 충격이 집중되고 있어, 취업자 수에 대한 단기적 영향은 성장세 둔화에 비해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만약 코로나19의 영향이 단기간에 그치며 관련 서비스업생산이 다시 확대될 경우 일시휴직자가 빠르게 복귀하고 취업자 수도 회복될 수 있음.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장기화되며 제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되는 경우, 제조업뿐 아니라 연관 서비스업에까지 고용 충격이 파급됨.

- 제조업 부진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제조업의 생산 측면상 연관된 서비스업뿐 아니라, 비수도권의 제조업 중심 지역에 있는 서비스업 종사자 고용에도 파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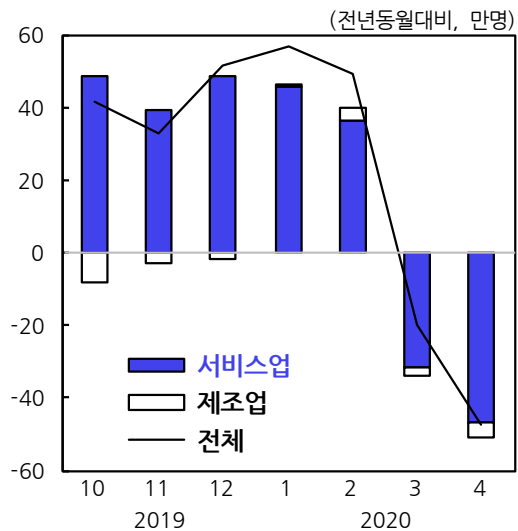
●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일자리와 구직자 간 매칭에 시간이 소요되어, 고용은 경기와 시차를 두고 회복됨.

취업자와 일시휴직자 수 증감



자료: 통계청.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3. 한국 거시경제 경로에 대한 전망—시나리오별 분석

■ 현 사태의 근원인 코로나19의 확산 범위와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므로, 대표적인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을 가늠하고자 함.

- 코로나19의 지속 기간에 따라 경제적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구성

■ **(기준 시나리오)** 코로나19 확산이 국내에서는 상반기부터, 전 세계에서는 하반기부터 둔화되면서 경제활동이 점진적으로 회복

- 국내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5월부터 경제활동이 완만하게 회복되고, 하반기에는 국내 경제활동이 대부분 정상화
- 해외에서는 하반기에 경제활동이 완만하게 회복되고, 지연되었던 투자도 재개
- 국가 간 이동제한이 점차 완화되면서 2021년 말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

■ **(상위 시나리오)** 코로나19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둔화되고 내년에는 경제활동 대부분이 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하는 정도로 정상화

- 국내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5월부터 경제활동이 빠르게 회복
- 해외에서는 3/4분기에 경제활동이 가시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은 서비스소비의 위축에 제한
- 향후 코로나19 환자 수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코로나19에 대응할 치료 방법이나 백신이 이용될 수 있는 상황을 전제

■ **(하위 시나리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회복

- 국내와 해외 모두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확대되며 환자 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감염 위험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으로 경제활동이 금년 말까지 상당히 제한
- 코로나19에 대응한 경제정책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며, 일부 취약 국가와 산업에서 유동성경색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소비와 투자가 모두 큰 폭으로 위축
-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생산차질이 빈번하게 발생
- 내년에도 국가 간 인적이동이 대부분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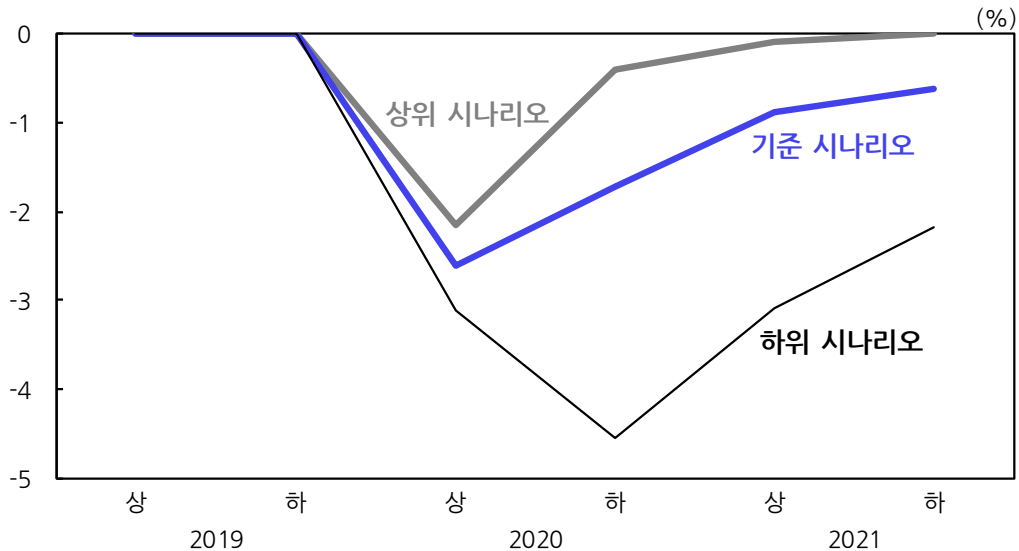
■ 분석 결과, 2020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0.2%를, 상위와 하위 시나리오의 경우 1.1%와 -1.6%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이 반영되어 거시경제 경로도 시나리오별로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남.

■ 기준 시나리오에서 대외수요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GDP는 2021년에도 기존 경로를 유의미한 폭으로 하회할 것으로 분석됨.

-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둔화되며 내국인의 국내소비 위축은 올해 말에 대부분 해소 되겠으나, 국가 간 이동제한의 완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내국인 해외소비와 외국인 국내소비는 내년에도 부진이 지속됨.
- 하반기에는 대외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우리 수출도 상품을 중심으로 부진이 점차 완화됨.
- 고용의 경우 경기와 시차를 두고 내년부터 회복됨.
- 투자 지연에 따라 생산능력이 축소되어 우리 경제의 GDP는 내년에도 기존 경로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분석됨.

시나리오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준 GDP 경로와의 격차



주: 기준 GDP 경로는 『KDI 경제전망』(2019년 하반기) 기준임.

■ **상위 시나리오**에서는 코로나19의 충격이 빠르게 사라지면서 **우리 경제의 GDP가 2020년 말 기존 경로에 근접할 것으로 분석됨.**

- 상반기에 지연되었던 국내 내구재소비는 하반기에 대부분 보충됨.
- 글로벌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의 수출도 하반기부터 빠르게 반등함.
- 고용과 국내 투자가 대부분 회복되면서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의 생산능력이 기존 경로에 근접하는 수준에 도달함.
- 다만, 국가 간 이동제한과 기피심리는 일부 남아 있어, 해외여행 감소로 인한 내국인 해외소비와 외국인 국내소비의 부진은 올해 말까지 지속됨.

■ **하위 시나리오**의 경우,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GDP는 2021년에도 기존 경로를 큰 폭으로 하회할 것으로 분석됨.**

- 경제 불확실성의 지속과 소득 감소로 인해 내년에도 소비 부진이 지속됨.
 - 입국제한 조치에 따라 내국인 해외소비와 외국인 국내소비의 회복도 지연됨.
- 수출은 글로벌 투자 부진과 공급망 교란에 따라 급격하게 위축된 후, 내년에도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데 그침.
- 일부 취약 기업과 가게가 파산하고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우리 경제의 회복은 매우 완만한 속도로 진행됨.
- 금융시장의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이 저하되고, 국제교류와 기술혁신이 제한되면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하락이 발생하여 중장기적 GDP 경로가 하향 조정됨.

시나리오별 경제성장률 전망

(전년동기대비, %)

| | 2020 | | | 2021 | | |
|---------|------|------|------|------|-----|-----|
|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상위 시나리오 | 0.3 | 1.8 | 1.1 | 4.9 | 2.6 | 3.7 |
| 기준 시나리오 | -0.2 | 0.5 | 0.2 | 4.6 | 3.3 | 3.9 |
| 하위 시나리오 | -0.7 | -2.5 | -1.6 | 2.8 | 4.8 | 3.8 |

4.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경제의 GDP는 기존 경로를 상당 폭 하회할 것이며, 향후 GDP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GDP 경로를 결정하는 주요인인 코로나19의 확산 기간에 따라 시나리오를 구성
- 2020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0.2%를, 상위와 하위 시나리오의 경우 1.1%와 -1.6%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도 병행해야 함.

- 코로나19 방역은 인명피해 축소뿐 아니라, 원활한 경기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임.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여 거시경제 정책을 확장 운용함으로써 경기 충격을 완화할 필요
- 대규모 기업 파산과 실업이 발생한다면 생산능력이 저하되며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경기 회복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유동성 공급과 고용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경제시스템을 보호해야 함.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제 협력과 공조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필요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지원뿐 아니라, 신흥국 채무의 상환 유예,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거시정책 조정 등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국제공조가 필요함.

■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한 한시적 정책이 생산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

-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한 광범위한 지원 정책이 향후 기업의 건전한 진입과 퇴출을 지속적으로 제한하여 신성장 산업 발달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단기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의 악화 우려로 이어지지 않도록, 코로나19 이후의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
- 아울러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이 글로벌 가치사슬 위축이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전개되지 않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경주할 필요

제3부

국내외 경제동향

국내경제 동향

1. 국내총생산
2. 경 기
3. 소 비
4. 설비투자
5. 건설투자
6. 지식재산생산물투자
7. 수출입 및 국제수지
8. 노동시장
9. 물 가
10. 금융시장
11. 재 정

1. 국내총생산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됨.

■ 1/4분기 국내총생산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 전반이 위축되면서 전분기(2.3%)보다 낮은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하는 데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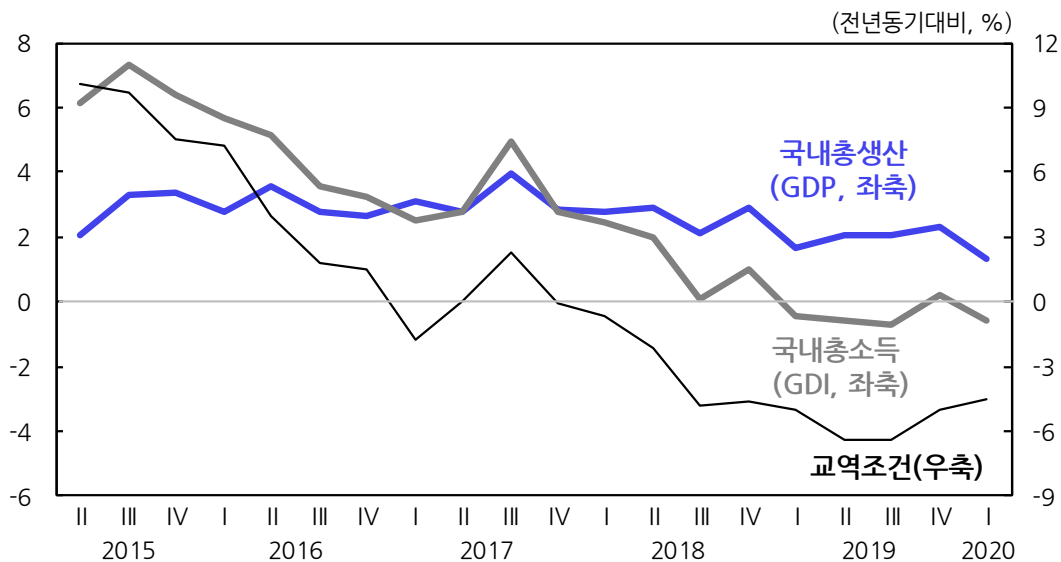
● 계절조정 전기대비로도 전분기(1.3%)에 비해 크게 하락한 -1.4%의 증가율을 기록

- 계절조정 전기대비 성장률(%): ('19.3/4) 0.4 → (4/4) 1.3 → ('20.1/4) -1.4

● 한편,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 악화가 지속된 가운데 국내총생산 증가폭도 축소되면서 전년동기대비 0.6% 감소함.

- 국내총소득(전년동기대비, %): ('19.3/4) -0.7 → (4/4) 0.2 → ('20.1/4) -0.6

국내총생산, 국내총소득 및 교역조건



주: 교역조건은 국내총소득과 국내총생산의 차이를 이용하여 계산함.
자료: 한국은행.

■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증가폭이 기저효과로 인해 확대되었으나, 서비스업은 급격하게 위축됨.

● 제조업은 기저효과에 주로 기인하여 전분기(1.7%)보다 높은 전년동기대비 3.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전기대비로는 1.8%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

- 중국산 부품조달 차질에 따른 자동차생산 감소가 제조업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건설업도 기저효과로 인해 전분기(1.0%)보다 높은 전년동기대비 2.4% 증가

● 서비스업은 대면접촉이 많은 산업을 중심으로 전분기(3.0%)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전년동기대비 0.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전기대비로는 2.0% 감소함.

- 도소매·숙박음식업(전년동기대비, %): ('19.3/4) 1.1 → (4/4) 1.3 → ('20.1/4) -3.2

- 운수업(전년동기대비, %): ('19.3/4) 0.2 → (4/4) -0.7 → ('20.1/4) -10.2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전년동기대비, %)

| | 2018 ^p | | | 2019 ^p | | | | | 2020 ^p |
|--------------------|-------------------|------------------|------------------|-------------------|------------------|------------------|------------------|------------------|-------------------|
| | 연간 ^p | 3/4 ^p | 4/4 ^p | 연간 ^p | 1/4 ^p | 2/4 ^p | 3/4 ^p | 4/4 ^p | 1/4 ^p |
| 국내총생산(GDP) | 2.7 | 2.1 (0.5) | 2.9 (0.9) | 2.0 | 1.7 (-0.4) | 2.0 (1.0) | 2.0 (0.4) | 2.3 (1.3) | 1.3 (-1.4) |
| 농림어업 | 1.5 | -2.3 (-3.5) | 0.4 (2.8) | 2.4 | 1.6 (4.7) | 0.4 (-3.6) | 4.2 (0.6) | 2.9 (1.4) | -1.2 (0.1) |
| 제조업 | 3.4 | 3.0 (1.6) | 5.6 (1.6) | 1.4 | 1.3 (-3.3) | 0.8 (1.1) | 1.8 (2.4) | 1.7 (1.6) | 3.2 (-1.8) |
| 전기·가스·수도업 | 3.0 | 2.2 (-0.1) | 5.1 (2.5) | 4.6 | 6.8 (0.0) | 13.3 (10.7) | -1.9 (-13.6) | -0.4 (4.2) | 5.2 (5.7) |
| 건설업 | -4.0 | -7.0 (-5.0) | -5.2 (0.8) | -3.0 | -7.0 (-1.0) | -3.6 (1.6) | -3.5 (-4.9) | 1.0 (5.6) | 2.4 (0.3) |
| 서비스업 ²⁾ | 3.2 | 2.7 (0.5) | 2.7 (0.5) | 2.7 | 2.3 (0.8) | 2.7 (0.8) | 2.7 (0.6) | 3.0 (0.8) | 0.2 (-2.0) |
| 국내총소득(GDI) | 1.4 | 0.1 (0.1) | 1.0 (-0.3) | -0.4 | -0.5 (0.2) | -0.6 (-0.7) | -0.7 (0.1) | 0.2 (0.6) | -0.6 (-0.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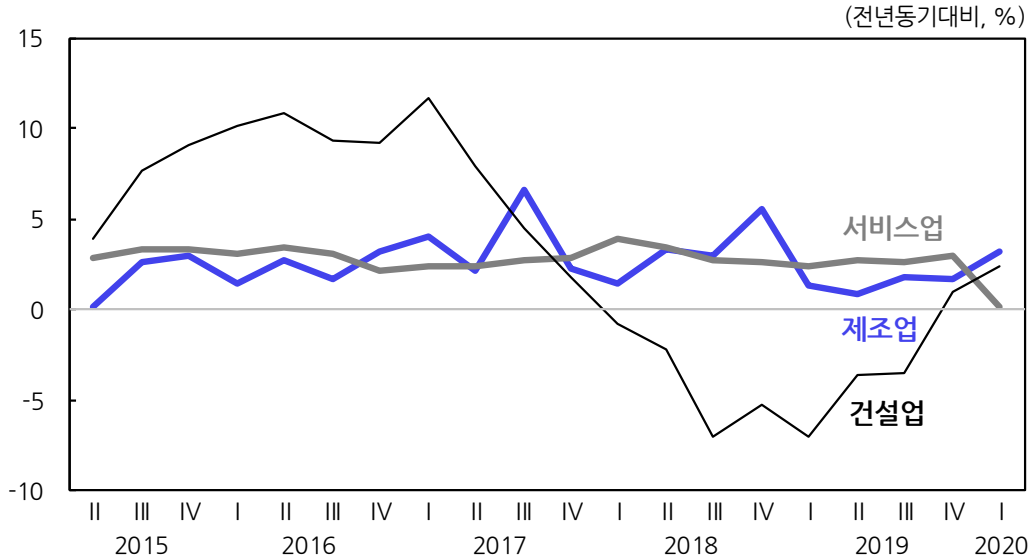
주: 1) p는 잠정치.

2)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포함.

3) () 안은 계절조정 전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주요 부문별 성장률



■ 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성장세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정부소비와 투자는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경기 위축을 완화함.

● 민간소비는 전분기(1.9%)보다 낮은 전년동기대비 -4.7%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정부소비는 전분기(6.6%)에 이어 비교적 높은 7.1%의 증가율을 기록

－ 민간소비는 재화와 서비스 모두 부진하여 계절조정 전기대비로도 6.4% 감소함.

● 총고정투자는 설비투자과 건설투자 모두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전분기(0.5%)보다 높은 4.4%의 증가율을 기록

－ 설비투자는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하면서 비교적 높은 7.6%의 증가율을 기록

－ 건설투자도 토목부문을 중심으로 3.4% 증가하며 경기 부진을 완화함.

● 한편, 수출과 수입에서는 상품수출입의 증가세는 유지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여행 제한 등으로 서비스수출입은 큰 폭으로 감소함.

－ 상품수출(6.3%)은 기저효과가 작용한 가운데 반도체수출이 개선되며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서비스수출(5.6% → -3.7%)과 서비스수입(0.8% → -11.8%)은 큰 폭으로 감소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전년동기대비, %)

| | 2018 ^p | | | 2019 ^p | | | | | 2020 ^p |
|---------------|-------------------|------------------|------------------|-------------------|------------------|------------------|------------------|------------------|-------------------|
| | 연간 ^p | 3/4 ^p | 4/4 ^p | 연간 ^p | 1/4 ^p | 2/4 ^p | 3/4 ^p | 4/4 ^p | 1/4 ^p |
| 국내총생산(GDP) | 2.7 | 2.1 (0.5) | 2.9 (0.9) | 2.0 | 1.7 (-0.4) | 2.0 (1.0) | 2.0 (0.4) | 2.3 (1.3) | 1.3 (-1.4) |
| 총소비 | 3.5 | 2.8 (0.7) | 3.6 (1.3) | 3.1 | 2.8 (0.2) | 3.3 (1.1) | 3.0 (0.5) | 3.1 (1.4) | -1.5 (-4.5) |
| 민간소비 | 2.8 | 2.3 (0.4) | 2.4 (0.8) | 1.9 | 1.9 (0.1) | 2.0 (0.7) | 1.8 (0.2) | 1.9 (0.9) | -4.7 (-6.4) |
| 정부소비 | 5.6 | 4.8 (1.6) | 7.1 (2.8) | 6.5 | 5.5 (0.4) | 7.0 (2.2) | 6.9 (1.4) | 6.6 (2.5) | 7.1 (0.9) |
| 총고정투자 | -2.4 | -6.9 (-3.9) | -4.2 (1.9) | -3.3 | -8.6 (-2.8) | -3.4 (1.6) | -2.1 (-2.7) | 0.5 (4.5) | 4.4 (0.9) |
| 설비투자 | -2.4 | -9.4 (-4.0) | -5.3 (3.2) | -7.7 | -17.4 (-9.1) | -7.0 (3.2) | -2.6 (0.6) | -2.5 (3.3) | 7.6 (0.2) |
| 건설투자 | -4.3 | -8.7 (-6.0) | -5.7 (1.8) | -3.1 | -7.2 (-0.8) | -3.5 (1.4) | -3.7 (-6.0) | 1.1 (7.0) | 3.4 (1.3) |
| 지식재산 생산물투자 | 2.2 | 1.6 (1.2) | 1.0 (0.3) | 2.7 | 2.9 (1.3) | 2.7 (-0.1) | 2.5 (1.0) | 2.5 (0.4) | 2.3 (1.1) |
| 총수출 | 3.5 | 3.6 (4.0) | 6.7 (-1.4) | 1.7 | -0.2 (-3.2) | 1.2 (2.0) | 1.8 (4.6) | 3.7 (0.5) | 4.9 (-2.0) |
| 상품수출 | 3.3 | 4.0 (4.8) | 6.3 (-2.4) | 0.5 | -0.9 (-3.5) | -0.7 (0.7) | -0.1 (5.3) | 3.4 (1.1) | 6.3 (-0.8) |
| 서비스수출 | 4.7 | 0.3 (-2.0) | 10.2 (6.8) | 10.7 | 5.5 (-1.1) | 15.1 (11.1) | 17.0 (-0.3) | 5.6 (-3.7) | -3.7 (-9.7) |
| 총수입 | 0.8 | -2.6 (-1.1) | 2.4 (1.6) | -0.4 | -5.1 (-3.4) | 0.0 (2.9) | 2.3 (1.2) | 1.2 (0.6) | 0.5 (-4.1) |
| 상품수입 | 1.6 | -2.6 (-1.1) | 4.8 (2.2) | -0.8 | -5.7 (-4.2) | -0.7 (2.6) | 1.9 (1.4) | 1.3 (1.7) | 3.7 (-2.0) |
| 서비스수입 | -2.4 | -2.6 (-0.8) | -6.3 (-0.8) | 1.1 | -2.9 (0.1) | 2.7 (4.2) | 3.8 (0.3) | 0.8 (-3.6) | -11.8 (-12.4) |

주: 1) p는 잠정치.

2) () 안은 계절조정 전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 내수(재고증감 제외)의 성장기여도가 전분기(2.1%p)보다 낮은 0.1%p를 기록한 반면, 순수출의 기여도(1.7%p)는 전분기(1.1%p)보다 상승함.

● 내수 부문별로는 민간소비(0.9%p → -2.4%p)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설비투자(-0.2%p → 0.6%p)와 건설투자(0.2%p → 0.4%p)는 개선됨.

● 순수출 성장기여도는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수입 증가세는 둔화되면서 전분기(1.1%p)보다 높은 1.7%p를 기록

● 재고증감의 성장기여도는 전분기(-0.7%p)보다 높은 -0.4%p를 기록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전년동기대비, %p, %)

| | 2018 ^p | | | 2019 ^p | | | | | 2020 ^p |
|---------------|-------------------|------------------|------------------|-------------------|------------------|------------------|------------------|------------------|-------------------|
| | 연간 ^p | 3/4 ^p | 4/4 ^p | 연간 ^p | 1/4 ^p | 2/4 ^p | 3/4 ^p | 4/4 ^p | 1/4 ^p |
| 내수(재고증감 제외) | 1.4 | -0.4 (-0.7) | 0.8 (1.4) | 1.0 | -0.6 (-0.7) | 1.0 (1.1) | 1.3 (-0.5) | 2.1 (2.1) | 0.1 (-2.6) |
| 민간소비 | 1.3 | 1.1 (0.2) | 1.1 (0.4) | 0.9 | 1.0 (0.1) | 0.9 (0.3) | 0.9 (0.1) | 0.9 (0.5) | -2.4 (-3.1) |
| 설비투자 | -0.2 | -0.8 (-0.4) | -0.5 (0.3) | -0.7 | -1.7 (-0.8) | -0.7 (0.3) | -0.2 (0.0) | -0.2 (0.3) | 0.6 (0.0) |
| 건설투자 | -0.7 | -1.4 (-0.9) | -0.9 (0.3) | -0.5 | -1.0 (-0.1) | -0.6 (0.2) | -0.6 (-0.9) | 0.2 (1.0) | 0.4 (0.2) |
| 지식재산 생산물투자 | 0.1 | 0.1 (0.1) | 0.1 (0.0) | 0.2 | 0.2 (0.1) | 0.2 (0.0) | 0.2 (0.1) | 0.2 (0.0) | 0.2 (0.1) |
| 재고증감 | 0.2 | 0.2 (-0.8) | 0.4 (0.6) | 0.2 | 0.5 (0.3) | 0.4 (0.1) | 0.7 (-0.5) | -0.7 (-0.7) | -0.4 (0.6) |
| 순수출 | 1.1 | 2.4 (2.0) | 1.9 (-1.2) | 0.9 | 1.9 (-0.1) | 0.5 (-0.2) | 0.0 (1.4) | 1.1 (0.0) | 1.7 (0.7) |
| 총수출 | 1.4 | 1.5 (1.6) | 2.6 (-0.6) | 0.7 | -0.1 (-1.3) | 0.5 (0.8) | 0.8 (1.9) | 1.5 (0.2) | 1.9 (-0.8) |
| 총수입 | 0.3 | -0.9 (-0.4) | 0.8 (0.6) | -0.2 | -1.9 (-1.3) | 0.0 (1.0) | 0.8 (0.4) | 0.4 (0.2) | 0.2 (-1.5) |
| 국내총생산 | 2.7 | 2.1 (0.5) | 2.9 (0.9) | 2.0 | 1.7 (-0.4) | 2.0 (1.0) | 2.0 (0.4) | 2.3 (1.3) | 1.3 (-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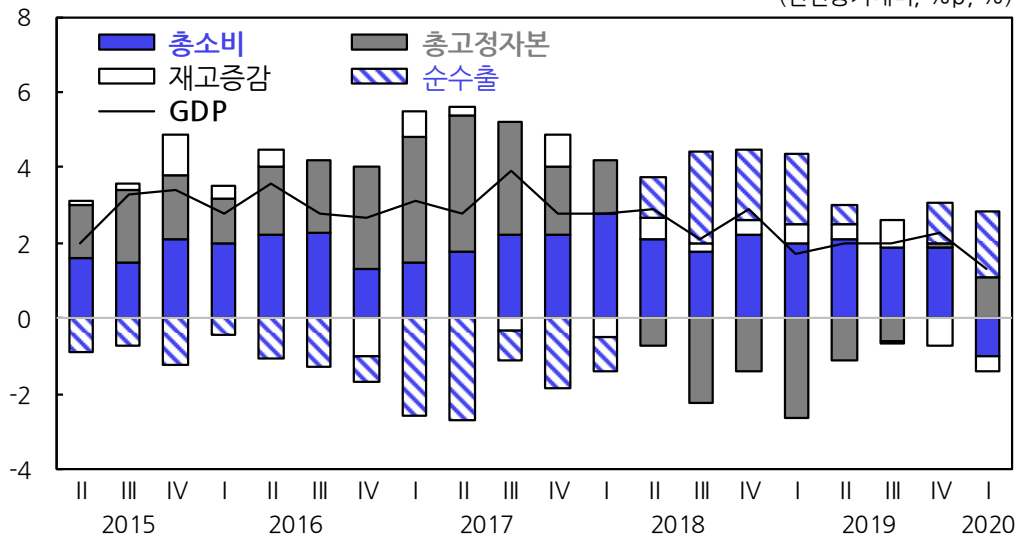
주: 1) p는 잠정치.

2) () 안은 계절조정 전기대비 성장기여도(%p).

자료: 한국은행.

경제성장률과 부문별 성장기여도

(전년동기대비, %p, %)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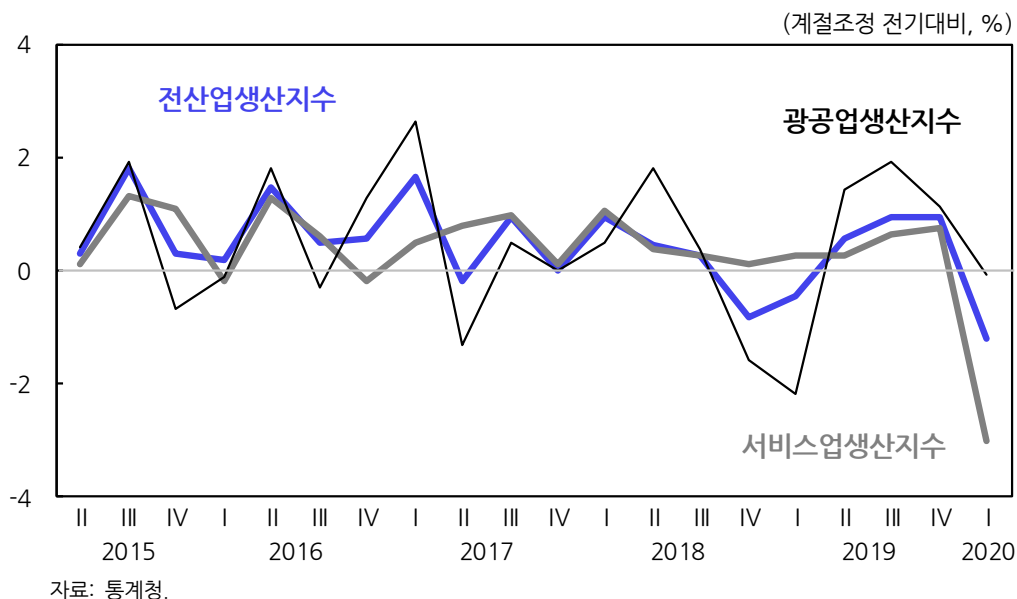
2. 경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발생한 코로나19의 부정적 충격이 제조업에도 확산되면서 경기위축이 심화되고 있음.

■ 1/4분기 계절조정 전기대비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3.0%)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1.2%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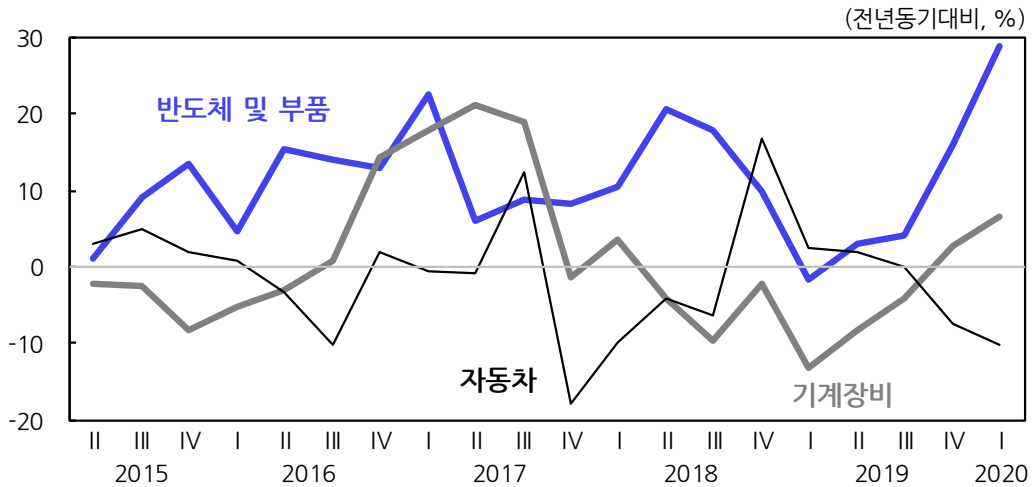
- 광공업생산은 반도체(43.7%), 기계장비(6.6%), 기타운송장비(6.2%) 등을 중심으로 4.9% 증가하였으나, 전기대비로는 0.1% 감소
- 서비스업생산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 접촉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1.1% 감소하였으며, 전기대비로는 3.0% 감소
- 한편, 건설업생산(-2.9% → -0.2%)의 부진이 완화된 가운데, 공공행정(4.9% → 7.4%)의 증가폭은 확대됨.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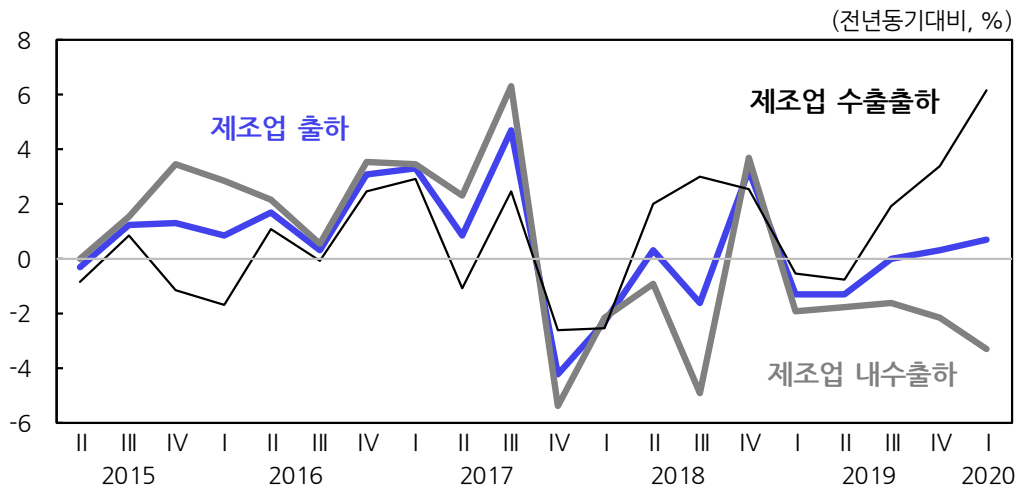
- 제조업 부문별로는 반도체 및 부품(15.9% → 28.9%)과 기계장비(2.7% → 6.6%)의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자동차(-7.4% → -10.3%)를 비롯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부진한 모습을 나타냄.

부문별 제조업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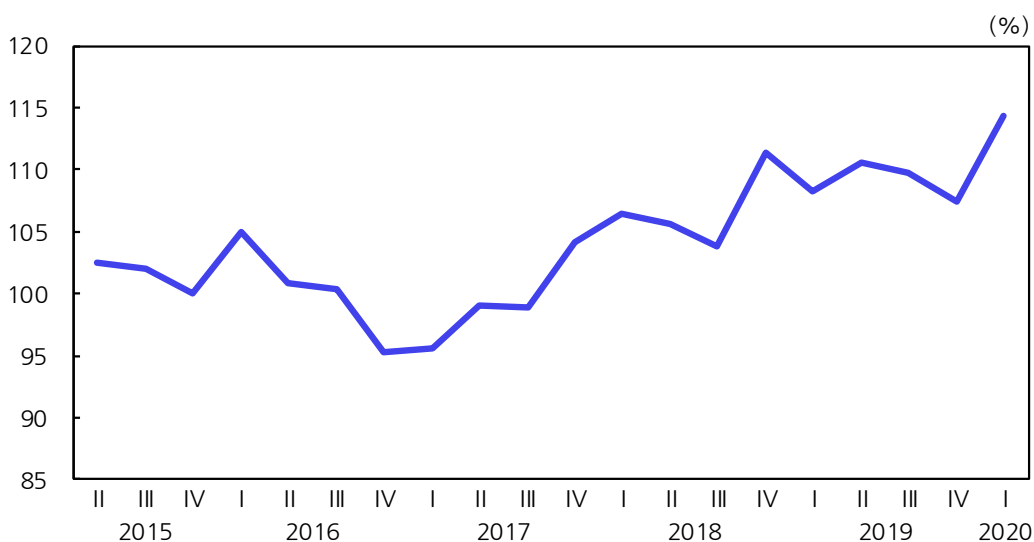
- 제조업 출하는 내수(-2.2% → -3.3%)가 부진을 지속하였으나 수출(3.4% → 6.1%)은 증가세가 확대되며 전분기(0.3%)보다 소폭 상승한 0.7%의 증가율을 기록

제조업 내수출하와 수출출하



- 제조업 재고율(재고/출하 비율)은 출하지수(0.3% → 0.7%)가 소폭 확대되었으나 재고지수(-2.9% → 5.7%)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114.4%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
 - 산업별로는 반도체(65.8% → 64.1%)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지속한 가운데, 자동차(159.0% → 171.9%)가 비교적 큰 폭으로 확대됨.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분기(74.1%)보다 소폭 하락한 73.4%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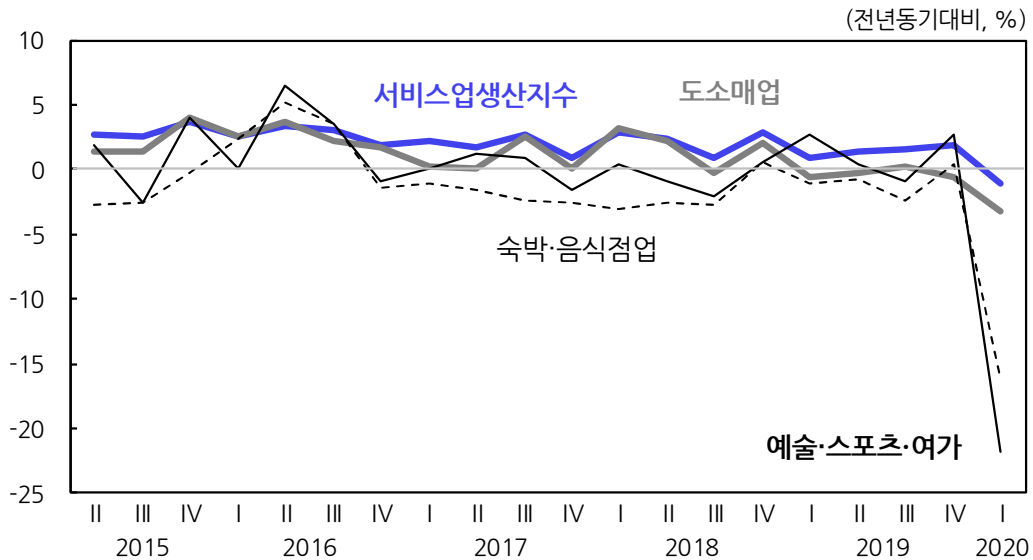
제조업 재고율(재고/출하 비율)



자료: 통계청.

- 서비스업생산은 1/4분기 중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됨에 따라 대면접촉이 많은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등이 급감하면서 전분기의 1.9% 증가에서 -1.1%의 감소로 전환됨.
 - 도소매업(전년동기대비, %): ('19.3/4) 0.2 → (4/4) -0.6 → ('20.1/4) -3.2
 - 숙박·음식점업(전년동기대비, %): ('19.3/4) -2.4 → (4/4) 0.4 → ('20.1/4) -16.3
 - 예술·스포츠·여가(전년동기대비, %): ('19.3/4) -0.9 → (4/4) 2.7 → ('20.1/4) -21.8

업종별 서비스생산



생산·출하·재고

(전년동기대비, %)

| | 비중 | 2017 | 2018 | 2019 | | | | | 2020 ^p |
|------------------------|---------|------|------|------|------|------|------|------|-------------------|
| | | 연간 | 연간 | 연간 | 1/4 | 2/4 | 3/4 | 4/4 | 1/4 ^p |
| 전산업생산지수 | - | 2.5 | 1.4 | 1.1 | -0.1 | 2.6 | -0.6 | 0.4 | 0.5 |
| 광공업생산지수 | 10,000 | 2.5 | 1.5 | -0.1 | -2.4 | -0.3 | 0.3 | 2.2 | 4.9 |
| 자동차 | 1,154.1 | -2.6 | -1.3 | -0.9 | 2.6 | 1.9 | 0.1 | -7.4 | -10.3 |
| 반도체·IT산업 ²⁾ | 1,664.8 | 7.1 | 11.8 | 4.8 | -2.8 | 2.1 | 4.0 | 15.0 | 26.3 |
| 자동차·반도체·IT산업제외 | 6,275.7 | 1.9 | -1.7 | -1.5 | -2.8 | -1.8 | -1.0 | -0.4 | 0.9 |
| 서비스업생산지수 | 1,000 | 1.9 | 2.3 | 1.4 | 0.9 | 1.3 | 1.5 | 1.9 | -1.1 |
| 도소매업 | 211.3 | 0.7 | 1.7 | -0.4 | -0.7 | -0.3 | 0.2 | -0.6 | -3.2 |
| 숙박·음식점업 | 61.6 | -1.9 | -1.9 | -1.0 | -1.2 | -0.8 | -2.4 | 0.4 | -16.3 |
| 제조업출하지수 | - | 1.1 | -0.2 | -0.6 | -1.3 | -1.3 | 0.0 | 0.3 | 0.7 |
| 내 수 | - | 1.5 | -1.1 | -1.9 | -1.9 | -1.8 | -1.6 | -2.2 | -3.3 |
| 수 출 | - | 0.4 | 1.2 | 1.1 | -0.5 | -0.8 | 1.9 | 3.4 | 6.1 |
| 제조업재고지수 ³⁾ | - | 9.0 | 6.8 | -2.9 | 1.1 | 2.2 | 4.9 | -2.9 | 5.7 |

주: 1) p는 잠정치.

2) IT산업은 컴퓨터·주변장치, 통신·방송 장비, 영상·음향기기 제조업을 포함하며 반도체 부문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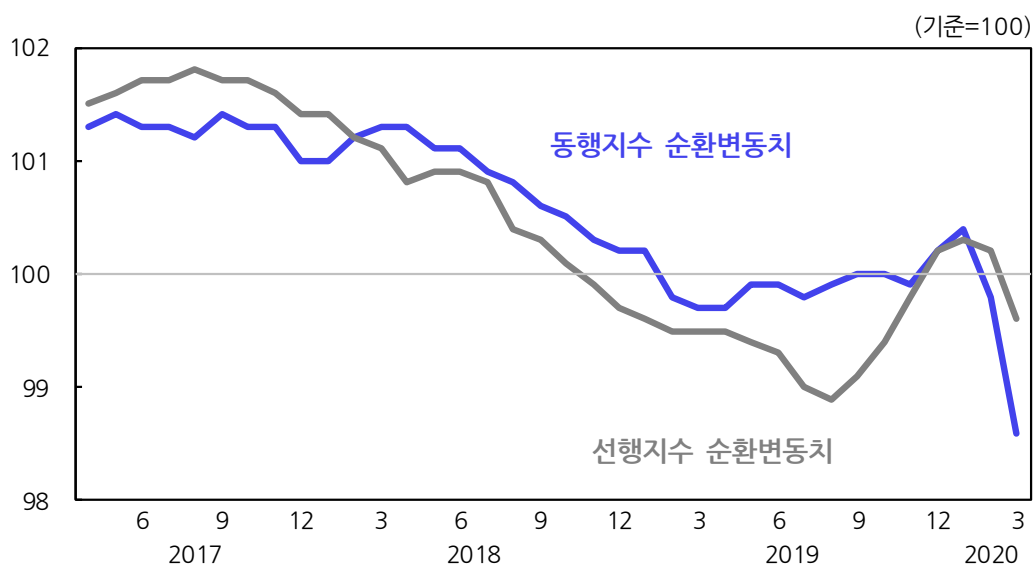
3) 재고는 연말, 분기말 기준임.

자료: 통계청.

- 한편, 코로나19의 부정적 충격이 제조업에도 확산되면서 경기종합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의 하락폭이 확대되는 등 경기위축이 심화되고 있음.

● 3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각각 98.6과 99.6을 기록

경기종합지수



자료: 통계청.

●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하락세가 지속되며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음.

- 한국은행 제조업 업황BSI 4월 실적과 5월 전망 모두 1월 대비 30p 정도 급락한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 종합경기 BSI 실적과 전망도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낮아진 모습

기업경기실사지수(계절조정)

| | | 2019 | | | | 2020 | | | | |
|-------------|------|----------------|----------------|----------------|----------------|----------------|----------------|----------------|----------------|-------------|
| |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한국은행 | 제조업 | 73 (72) | 73 (73) | 73 (74) | 75 (74) | 78 (76) | 67 (79) | 56 (66) | 49 (52) | - (45) |
| 한국경제 연구원 | 종합경기 | 88.4 (87.7) | 89.4 (92.5) | 91.7 (93.5) | 89.6 (91.6) | 89.5 (91.5) | 83.1 (94.1) | 62.1 (80.2) | 57.5 (58.9) | - (59.4) |

주: () 안은 BSI 전망지수.
자료: 한국은행; 한국경제연구원.

3. 소비

민간소비는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서비스와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빠르게 위축되고 있음.

■ 1/4분기 민간소비는 전분기(1.9%)의 증가에서 4.7% 감소로 전환하며 크게 위축된 모습

- 전기대비로도 전분기(0.9%)에 비해 크게 감소한 -6.4%의 증가율을 기록
- 정부소비(7.1%)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며 민간소비의 부진을 일부 완화
- 최종소비지출은 -1.5%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2009년 1/4분기 이후 최초로 역성장을 나타냄.

소비

(전년동기대비, %, %p)

| | 비중 ²⁾ | 2018 ^p | | | 2019 ^p | | | | | 2020 ^p |
|---------------------|------------------|-------------------|------------------|------------------|-------------------|------------------|------------------|------------------|------------------|-------------------|
| | | 연간 | 3/4 ^p | 4/4 ^p | 연간 | 1/4 ^p | 2/4 ^p | 3/4 ^p | 4/4 ^p | 1/4 ^p |
| 민 간 소 비 | 100.0 | 2.8 | 2.3 | 2.4 | 1.9 | 1.9 | 2.0 | 1.8 | 1.9 | -4.7 |
| | - | - | (0.4) | (0.8) | - | (0.1) | (0.7) | (0.2) | (0.9) | (-6.4) |
| 소 비 재 ⁴⁾ | 40.2 | 4.4 | 4.6 | 2.9 | 2.2 | 2.1 | 2.3 | 2.0 | 2.5 | - |
| 내 구 재 | 10.1 | 6.3 | 3.5 | 4.8 | 1.6 | 0.2 | -0.9 | 1.4 | 5.8 | - |
| 준내구재 | 9.0 | 5.5 | 7.8 | 5.5 | 1.5 | 4.6 | 4.6 | 0.3 | -2.9 | - |
| 비내구재 | 21.0 | 3.1 | 3.9 | 0.9 | 2.8 | 1.9 | 2.9 | 3.0 | 3.7 | - |
| 서 비 스 | 54.3 | 2.2 | 1.3 | 3.1 | 2.5 | 2.8 | 2.7 | 2.5 | 2.2 | - |
| 순해외소비 ⁵⁾ | 1.7 | -11.7 | -11.7 | -21.2 | -22.6 | -19.2 | -24.4 | -25.1 | -22.2 | - |
| | | [-0.3] | [-0.3] | [-0.6] | [-0.5] | [-0.5] | [-0.5] | [-0.5] | [-0.4] | - |
|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 3.8 | 4.1 | 2.6 | 3.5 | 2.8 | -0.5 | 3.4 | 3.8 | 4.8 | 4.9 |
| 정 부 소 비 | - | 5.6 | 4.8 | 7.1 | 6.5 | 5.5 | 7.0 | 6.9 | 6.6 | 7.1 |
| 최종소비지출 | - | 3.5 | 2.8 | 3.6 | 3.1 | 2.8 | 3.3 | 3.0 | 3.1 | -1.5 |

주: 1) p는 잠정치.

2) 민간소비에 대한 비중으로 2019년 연간 기준.

3) () 안은 계절조정 전기대비 증가율(%).

4) 소비재는 민간소비 중 가계의 내구재, 준내구재 및 비내구재에 대한 소비의 합계.

5) [] 안은 순해외소비의 민간소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p).

자료: 한국은행; KDI 자체 계산.

■ 1/4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되며 전분기(3.4%)의 증가에서 2.9% 감소로 전환

● 유형별로는 준내구재가 19.0% 감소하였고, 내구재(6.9% → 0.4%)와 비내구재(4.9% → 1.9%) 모두 전분기보다 증가폭이 크게 축소

소매판매액

(전년동기대비, %)

| | 2018 | | | | | 2019 | | | | | 2020 ^P |
|-----------|------|--------------|--------------|---------------|--------------|------|--------------|--------------|--------------|--------------|-------------------|
|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1/4 ^P |
| 소매판매액지수 | 4.3 | 5.4 (1.9) | 5.0 (0.5) | 3.9 (-0.4) | 3.0 (0.6) | 2.4 | 1.6 (0.9) | 2.0 (0.5) | 2.2 (0.3) | 3.4 (1.9) | -2.9 (-6.4) |
| 내 구 재 | 5.7 | 9.4 | 6.3 | 2.4 | 4.9 | 1.8 | -1.0 | -0.7 | 1.8 | 6.9 | 0.4 |
| 승용차 | 8.2 | 9.1 | 9.0 | 2.5 | 12.2 | 2.8 | -5.2 | -3.6 | 6.2 | 13.4 | 0.3 |
| 준내구재 | 5.8 | 4.5 | 5.6 | 8.0 | 5.2 | 0.6 | 3.5 | 3.4 | -0.4 | -3.4 | -19.0 |
| 비내구재 | 2.9 | 3.8 | 4.0 | 2.9 | 1.2 | 3.4 | 2.2 | 2.8 | 3.5 | 4.9 | 1.9 |
| 소비재내수출하지수 | 1.3 | 1.0 | 1.1 | -1.8 | 5.0 | 1.6 | 1.1 | 2.7 | 1.7 | 0.8 | -4.9 |
| 소비재수입(실질) | 12.6 | 14.7 | 13.5 | 7.4 | 15.1 | 3.6 | 1.0 | 2.6 | 9.1 | 1.6 | -0.5 |

주: 1) p는 잠정치.

2) () 안은 계절조정 전기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 1/4분기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숙박 및 음식점업과 운수 및 창고업을 중심으로 전분기의 증가(2.6%)에서 감소(-3.6%)로 전환

● 관광객 감소 및 대외활동 축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숙박·음식점업(-16.3%)과 운수·창고업(-9.0%)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업생산의 충격이 심화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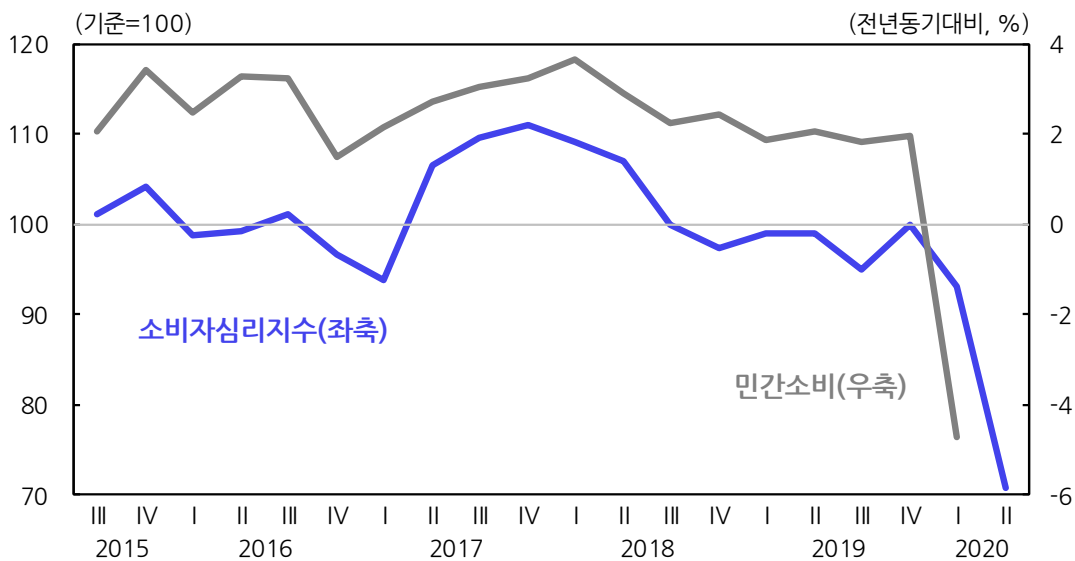
- 서비스업생산지수*(전년동기대비, %): ('19.3/4) 1.5 → (4/4) 2.6 → ('20.1/4) -3.6
- 서비스업생산지수(전년동기대비, %): ('19.3/4) 1.5 → (4/4) 1.9 → ('20.1/4) -1.1
- 숙박·음식점업(전년동기대비, %): ('19.3/4) -2.4 → (4/4) 0.4 → ('20.1/4) -16.3
- 운수·창고업(전년동기대비, %): ('19.3/4) 0.4 → (4/4) -0.6 → ('20.1/4) -9.0

* 서비스업생산지수*는 민간소비 중 서비스소비와의 경합성을 위해 서비스업생산지수에서 도소매업과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을 제외하여 자체 계산한 수치임.

■ 2019년 말부터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자심리지수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최근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음.

- 1/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93.2를 기록하며 기준치(100)를 하회하였고, 월별로는 2~4월에 큰 폭으로 하락함(96.9 → 78.4 → 70.8).

소비자심리지수와 민간소비



소비자심리지수의 항목별 기여도

(기준=100)

| | | 2019 | | | | | 2020 | | | |
|------------------------------------|--------|------|------|------|-------|-------|-------|------|-------|------|
| |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 소비자심리지수 ¹⁾ | | 92.4 | 97.0 | 98.6 | 101.0 | 100.5 | 104.2 | 96.9 | 78.4 | 70.8 |
| (전월대비 지수차) | | -3.5 | 4.6 | 1.6 | 2.4 | -0.5 | 3.7 | -7.3 | -18.5 | -7.6 |
| 구 성 지 수 의 기 여 도 (p) | 현재생활형편 | -0.2 | 0.5 | 0.0 | 0.0 | 0.0 | 0.2 | -0.5 | -2.0 | -1.5 |
| | 생활형편전망 | -0.8 | 0.8 | 0.3 | 0.5 | -0.3 | 0.8 | -1.0 | -2.6 | -1.0 |
| | 가계수입전망 | -0.9 | 1.3 | 0.0 | 0.9 | -0.4 | 1.3 | -1.7 | -4.3 | -1.7 |
| | 소비지출전망 | -0.7 | 0.4 | 0.7 | 0.4 | 0.0 | 0.4 | -1.5 | -4.9 | -2.3 |
| | 현재경기판단 | -0.4 | 0.5 | 0.4 | 0.1 | 0.1 | 0.4 | -1.2 | -3.0 | -0.7 |
| | 향후경기전망 | -0.5 | 1.1 | 0.2 | 0.5 | 0.1 | 0.6 | -1.4 | -1.7 | -0.4 |

주: 1)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19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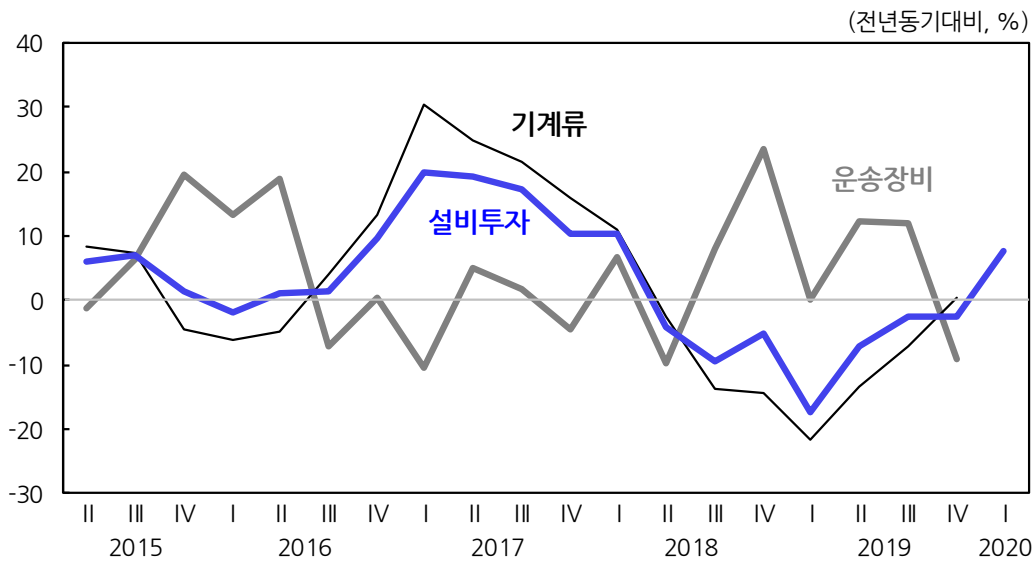
4. 설비투자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나,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심리 악화로 회복세가 제약될 가능성

■ 1/4분기 설비투자는 전분기(-2.5%)의 감소에서 7.6% 증가로 전환됨.

- 계절조정 전기대비로는 0.2% 증가하며 전분기(3.3%)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
- 부문별로는 2019년 4/4분기에 운송장비가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하였으나 기계류는 반도체 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부진이 완화됨.
 - 기계류 설비투자는 0.5%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분기(-7.1%)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
 - 운송장비는 -9.2%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

국민계정 설비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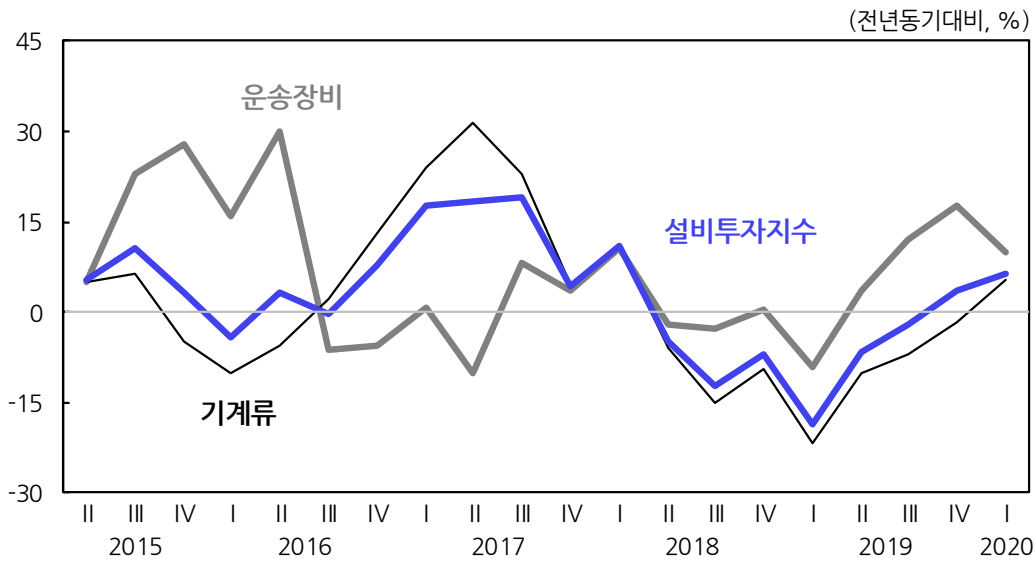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설비투자지수는 6.5%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분기(3.7%)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

- 기계류(-1.6% → 5.3%)는 전분기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운송장비(17.7% → 10.1%)도 높은 증가세를 유지
- 선박과 항공기를 제외한 설비투자(0.5% → 4.2%)도 증가폭이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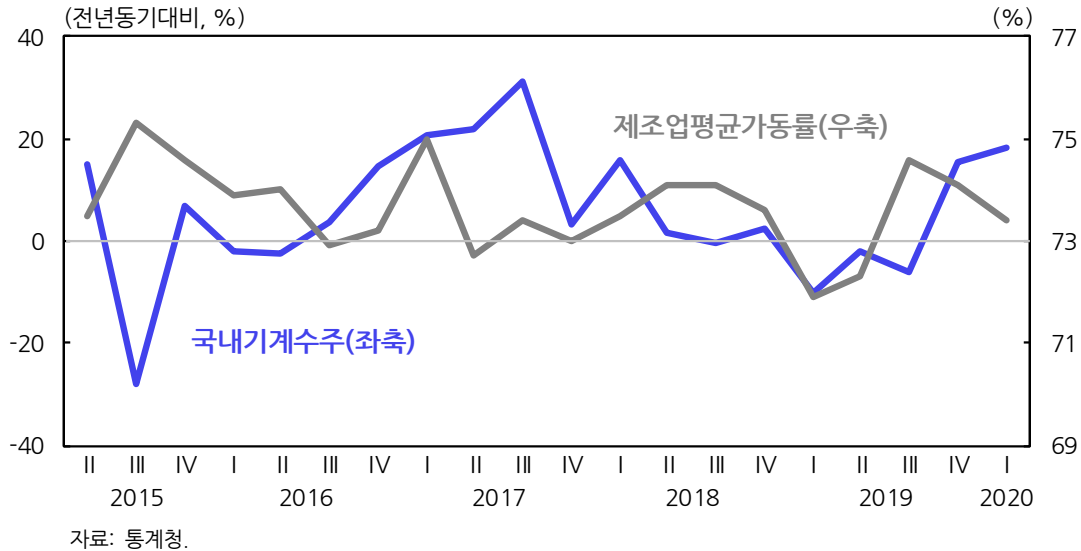
형태별 설비투자지수



■ 기계류 내수출하와 국내기계수주가 개선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소폭 하락함.

- 기계류 내수출하는 1.0%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분기(-0.1%)까지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
- 국내기계수주는 18.3% 증가하며 전분기(15.3%)보다 증가폭이 확대
- 한편,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4%를 기록하며 전분기(74.1%)에 비해 소폭 하락

국내기계수주 및 제조업평균가동률



설비투자

| (전년동기대비, %) | | | | | | | | | | |
|-------------|------------------|--------------------|--------------------|-------------------|-------------------|-------------------|-------------------|--------------------|------------------|------------------|
| | 비중 ²⁾ | 2018 ¹⁾ | 2019 ¹⁾ | | | | | 2020 ¹⁾ | | |
| | | 연간 ¹⁾ | 연간 ¹⁾ | 1/4 ¹⁾ | 2/4 ¹⁾ | 3/4 ¹⁾ | 4/4 ¹⁾ | 1/4 ¹⁾ | 3월 ¹⁾ | 4월 ¹⁾ |
| 설비투자 | 1.00 | -2.4 | -7.7 | -17.4 (-9.1) | -7.0 (3.2) | -2.6 (0.6) | -2.5 (3.3) | 7.6 (0.2) | - | - |
| 기계류 | 0.73 | -5.0 | -11.1 | -21.7 | -13.3 | -7.1 | 0.5 | - | - | - |
| 운송장비 | 0.27 | 6.7 | 2.8 | 0.1 | 12.2 | 12.0 | -9.2 | - | - | - |
| 설비투자지수 | | -3.6 | -6.2 | -18.7 (-5.0) | -6.7 (3.2) | -1.9 (1.0) | 3.7 (4.3) | 6.5 (-3.5) | 9.8 (7.9) | - |
| 기계류 | | -5.1 | -10.6 | -21.6 | -10.0 | -6.9 | -1.6 | 5.3 | 12.1 | - |
| 운송장비 | | 1.2 | 6.2 | -9.0 | 3.6 | 11.9 | 17.7 | 10.1 | 3.8 | - |
| 기계류 내수출하지수 | | -4.7 | -10.4 | -17.8 | -12.6 | -10.8 | -0.1 | 1.0 | 2.4 | - |
| 제조업 평균가동률 | | 73.8 | 73.2 | 71.9 | 72.3 | 74.6 | 74.1 | 73.4 | 74.1 | - |
| 자본재수입액 | | -2.6 | -15.4 | -26.5 | -15.9 | -10.1 | -7.1 | 6.3 | 14.9 | 2.5 |
| 기계류수입액 | 1.00 | -0.9 | -12.2 | -25.5 | -13.0 | -4.8 | -2.4 | 5.3 | 8.2 | -2.6 |
| 기계류 | 0.62 | -5.7 | -18.8 | -31.3 | -17.4 | -13.7 | -9.1 | 8.7 | 26.2 | -7.1 |
| 운송장비 | 0.38 | 10.2 | 1.0 | -12.7 | -3.6 | 12.3 | 9.3 | -0.4 | -17.6 | 5.8 |
| 국내기계수주 | 1.00 | 4.8 | -0.9 | -10.0 (-4.7) | -1.8 (4.4) | -6.1 (0.4) | 15.3 (13.7) | 18.3 (-0.2) | 12.2 (-3.0) | - |
| (형태별) 기계류 | 0.77 | 6.4 | -1.4 | -14.5 | -3.4 | -3.0 | 19.1 | 15.7 | 5.6 | - |
| 운송장비 | 0.23 | -0.5 | 1.0 | 11.2 | 3.5 | -15.7 | 5.2 | 27.5 | 36.5 | - |
| (수요자별) 공공수요 | 0.07 | 9.5 | -6.7 | -39.0 | -39.3 | -48.4 | 77.2 | 79.6 | 55.5 | - |
| 민간수요 | 0.93 | 4.4 | -0.4 | -7.9 | 1.1 | -3.1 | 9.2 | 15.5 | 10.4 | - |

주: 1) p는 잠정치.

2) 비중은 2019년 연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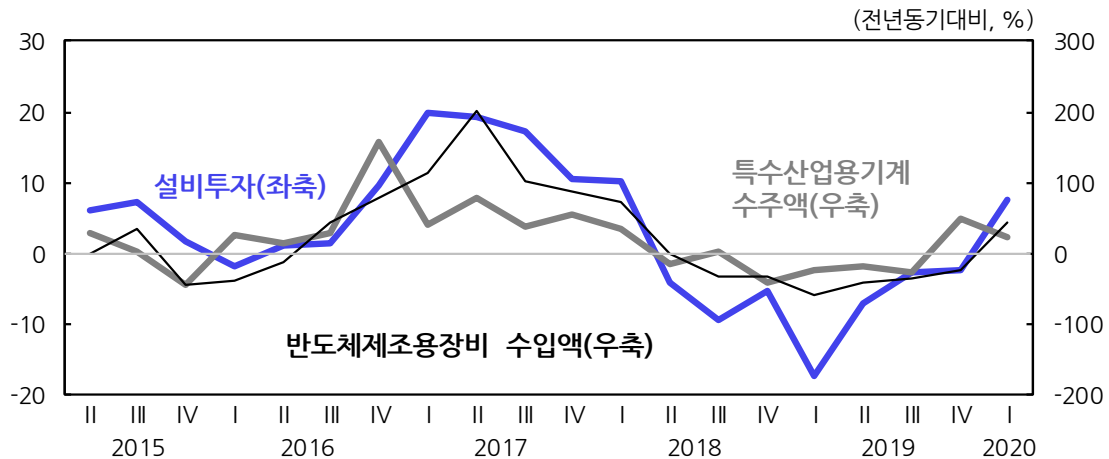
3) () 안은 계절조정 전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는 증가로 전환되며 부진에서 회복되는 모습

-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입액은 42.5%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분기(-24.9%)의 감소에서 큰 폭의 증가로 전환
- 반도체 관련 선행지표인 특수산업용기계 수주액은 22.1% 증가하며 전분기(50.3%)의 증가세를 이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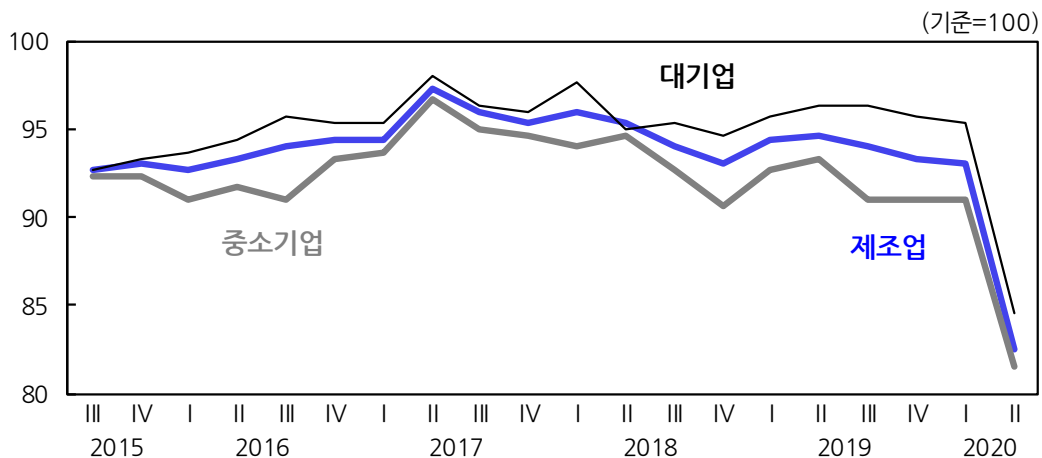
반도체 설비투자 관련지표



자료: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 한편, 4~5월 설비투자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한국은행 제조업 BSI)가 1/4분기(93.0)보다 10.5p 하락한 82.5를 기록함에 따라 설비투자의 회복세가 제약될 가능성을 시사

설비투자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



주: 2020년 2/4분기는 4~5월 값임.

자료: 한국은행.

5. 건설투자

건설투자는 토목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

■ 1/4분기 건설투자는 건축부문이 감소세를 지속한 반면 토목부문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작년의 부진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음.

● 건설투자는 전분기(1.1%)보다 개선된 3.4% 증가를 기록함.

– 건설투자(전년동기대비, %): ('19.2/4) -3.5 → (3/4) -3.7 → (4/4) 1.1 → ('20.1/4) 3.4

● 건설기성은 건축부문(-5.7%)이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감소하였으나, 토목부문이 전분기(12.2%)에 이어 17.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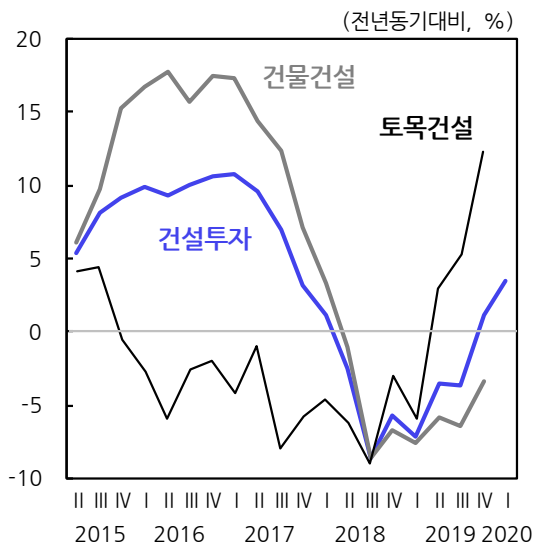
– 건축(불변, 전년동기대비, %): ('19.2/4) -9.6 → (3/4) -11.6 → (4/4) -8.2 → ('20.1/4) -5.7

* 주거용(경상, 전년동기대비, %): ('19.2/4) -8.9 → (3/4) -17.9 → (4/4) -11.3 → ('20.1/4) -4.2

* 비주거용(경상, 전년동기대비, %): ('19.2/4) -1.8 → (3/4) 8.5 → (4/4) 2.6 → ('20.1/4)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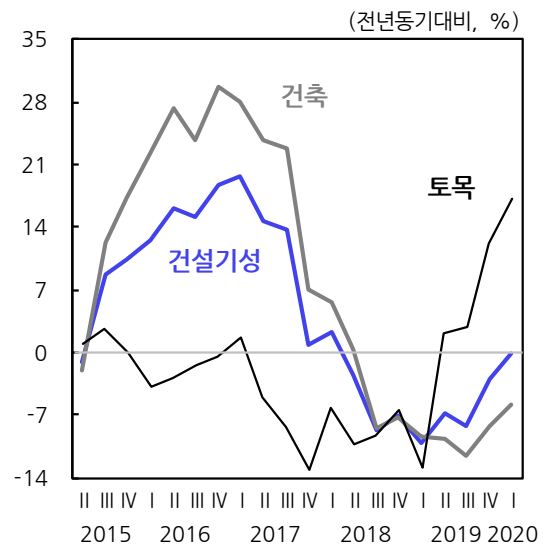
– 토목(불변, 전년동기대비, %): ('19.2/4) 2.1 → (3/4) 2.8 → (4/4) 12.2 → ('20.1/4) 17.2

건설투자



자료: 한국은행.

건설기성



자료: 통계청.

■ 건설수주(경상)는 건축부문이 비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토목 부문은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함.

● 건설수주는 전분기(20.9%)보다 낮은 -1.5%의 증가율을 기록함.

– 건설수주(전년동기대비, %): ('19.2/4) 2.0 → (3/4) 2.6 → (4/4) 20.9 → ('20.1/4) -1.5

● 건축부문은 주택(-4.7%)이 부진을 지속하였으나 상업용 건물(57.1%)이 확대되면서 11.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토목부문은 철도·궤도 등에서 기저효과로 인해 대폭 감소하면서 -30.9%의 증가율을 기록

– 건축(전년동기대비, %): ('19.2/4) 5.5 → (3/4) 7.8 → (4/4) 14.4 → ('20.1/4)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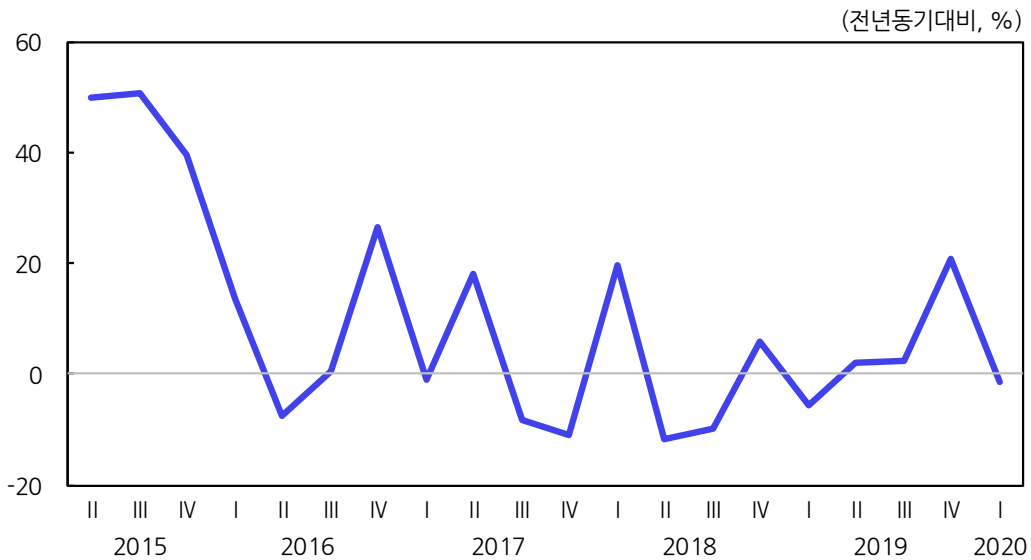
* 주택(전년동기대비, %): ('19.2/4) 14.6 → (3/4) 2.5 → (4/4) 27.3 → ('20.1/4) -4.7

* 사무실·점포(전년동기대비, %): ('19.2/4) 23.8 → (3/4) 22.4 → (4/4) 14.0 → ('20.1/4) 57.1

– 토목(전년동기대비, %): ('19.2/4) -10.5 → (3/4) -7.1 → (4/4) 40.9 → ('20.1/4) -30.9

● 발주자별로는 공공과 민간이 각각 5.5%, 11.3% 증가하였으나 민자는 큰 폭(-91.2%)으로 감소함.

건설수주(경상)



자료: 통계청.

■ 선행지표인 주택인허가와 주택착공이 모두 감소하여 향후 주택건설의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

● 주택인허가는 전분기(-2.3%)보다 감소폭이 확대된 -23.6%의 증가율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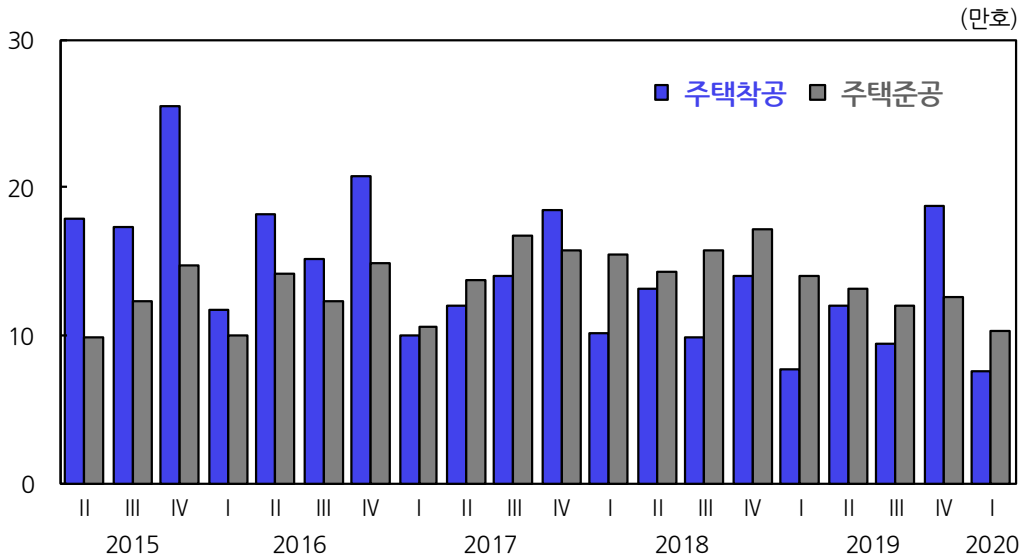
– 주택인허가(전년동기대비, %): ('19.2/4) -21.9 → (3/4) -30.9 → (4/4) -2.3 → ('20.1/4) -23.6

● 주택착공이 1.3% 감소한 가운데, 주택준공(-26.1%)도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됨.

– 주택착공(전년동기대비, %): ('19.2/4) -8.9 → (3/4) -3.1 → (4/4) 34.1 → ('20.1/4) -1.3

– 주택준공(전년동기대비, %): ('19.2/4) -8.3 → (3/4) -23.5 → (4/4) -26.2 → ('20.1/4) -26.1

주택착공과 주택준공



■ 토목부문은 SOC 예산이 크게 증액된 가운데 수도권 광역 철도망 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

● 2020년 SOC 예산은 작년(19.8조원)보다 13.4% 증가한 22.4조원*으로 확정됨.

– SOC 예산(전년대비, %): ('17) -6.6 → ('18) -14.2 → ('19) 4.0 → ('20) 13.4

* 기획재정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보도자료, 2020. 4. 30.

● GTX-A, 신안산선 등 기착공된 광역 철도망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

건설투자

(전년동기대비, %)

| | 비중 ²⁾ | 2019 ^p | | | | | 2020 ^p | | | |
|------------|------------------|-------------------|------------------|------------------|------------------|------------------|-------------------|---------------|-----------------|------------------|
| | | 연간 ^p | 1/4 ^p | 2/4 ^p | 3/4 ^p | 4/4 ^p | 1/4 ^p | 1월 | 2월 ^p | 3월 ^p |
| 건설투자(불변) | 1.00 | -3.1 | -7.2 (-0.8) | -3.5 (1.4) | -3.7 (-6.0) | 1.1 (7.0) | 3.4 (1.3) | - | - | - |
| 건물건설(불변) | 0.72 | -5.8 | -7.6 | -5.9 | -6.5 | -3.4 | - | - | - | - |
| 토목건설(불변) | 0.28 | 4.4 | -6.0 | 2.9 | 5.3 | 12.3 | - | - | - | - |
| 디플레이터 | - | 2.8 | 2.5 | 3.2 | 2.9 | 2.4 | - | - | - | - |
| 건설기성액(불변) | 1.00 | -6.9 | -10.2 (1.0) | -6.8 (-1.8) | -8.2 (-3.5) | -2.9 (1.0) | -0.2 (3.6) | -7.1 (0.8) | 5.3 (-2.6) | 1.5 (2.6) |
| 건축부문(불변) | 0.73 | -9.7 | -9.3 | -9.6 | -11.6 | -8.2 | -5.7 | -11.4 | -2.9 | -2.9 |
| 토목부문(불변) | 0.27 | 1.5 | -12.9 | 2.1 | 2.8 | 12.2 | 17.2 | 7.7 | 34.8 | 13.1 |
| 국내건설수주(경상) | 1.00 | 6.2 | -5.5 (0.7) | 2.0 (-2.4) | 2.6 (-3.1) | 20.9 (28.2) | -1.5 (-17.9) | 11.9 (0.1) | 38.4 (-21.0) | -28.4 (-19.0) |
| 공공부문(경상) | 0.21 | 7.0 | 16.2 | -22.4 | 8.3 | 17.7 | 5.5 | -2.3 | 26.6 | -5.6 |
| 민간부문(경상) | 0.74 | 4.8 | -7.4 | 7.5 | -10.0 | 22.9 | 11.3 | 25.9 | 50.6 | -17.0 |
| 민자부문(경상) | 0.05 | 25.0 | -21.4 | 37.4 | 246.4 | -14.6 | -91.2 | -95.2 | -92.7 | -90.2 |
| 건축부문(경상) | 0.73 | 6.4 | -5.3 | 5.5 | 7.8 | 14.4 | 11.5 | 4.3 | 64.7 | -12.3 |
| 토목부문(경상) | 0.27 | 5.7 | -6.1 | -10.5 | -7.1 | 40.9 | -30.9 | 33.6 | -31.0 | -58.7 |
| 주택인허가 | - | -11.9 | 4.7 | -21.9 | -30.9 | -2.3 | -23.6 | -25.1 | -10.1 | -33.8 |
| 주택착공 | - | 1.8 | -24.3 | -8.9 | -3.1 | 34.1 | -1.3 | -32.3 | -2.4 | 26.3 |
| 주택준공 | - | -17.4 | -9.7 | -8.3 | -23.5 | -26.2 | -26.1 | -34.0 | -26.1 | -15.8 |

주: 1) p는 잠정치.

2) 비중은 2019년 연간 기준.

3) () 안은 계절조정 전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국토교통부.

6.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1/4분기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전분기(2.5%)와 유사한 2.3%의 증가율을 기록

● 작년 4/4분기 연구개발(2.5% → 1.3%)은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기타지식재산생산물(2.6% → 5.4%)는 증가폭이 확대됨.

－ 지식재산생산물투자(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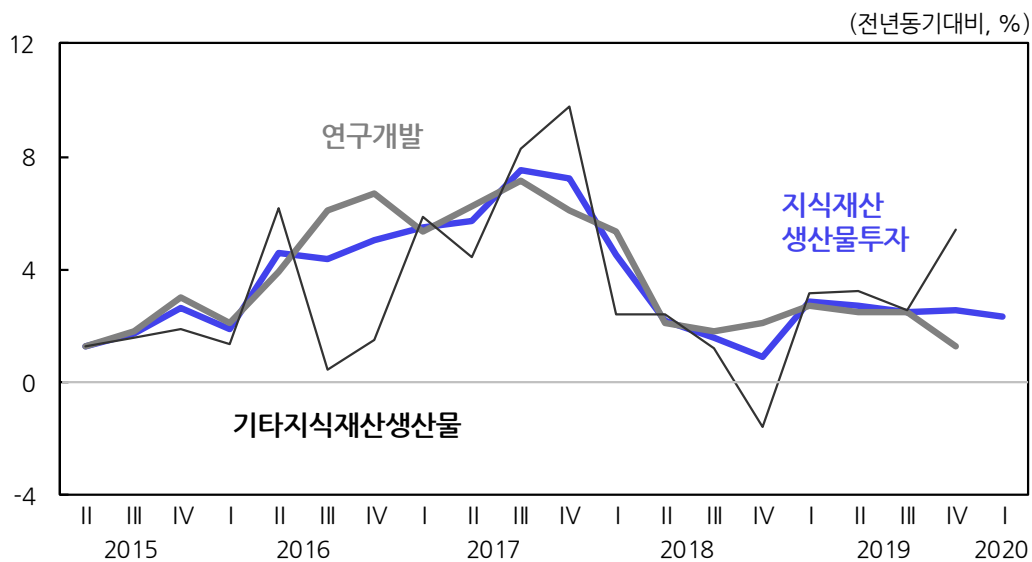
(‘19.1/4) 2.9 → (2/4) 2.7 → (3/4) 2.5 → (4/4) 2.5 → (‘20.1/4) 2.3

－ 연구개발(전년동기대비, %): (‘19.1/4) 2.7 → (2/4) 2.5 → (3/4) 2.5 → (4/4) 1.3

－ 기타지식재산생산물(전년동기대비, %):

(‘19.1/4) 3.2 → (2/4) 3.2 → (3/4) 2.6 → (4/4) 5.4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자료: 한국은행.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전년동기대비, %)

| | 비중 | 2018 ^p | 2019 ^p | | | | | 2020 ^p |
|-----------|------|-------------------|-------------------|------------------|------------------|------------------|------------------|-------------------|
| | | 연간 ^p | 연간 ^p | 1/4 ^p | 2/4 ^p | 3/4 ^p | 4/4 ^p | 1/4 ^p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1.00 | 2.2 | 2.7 | 2.9 (1.3) | 2.7 (-0.1) | 2.5 (1.0) | 2.5 (0.4) | 2.3 (1.1) |
| 연구개발 | 0.70 | 2.8 | 2.2 | 2.7 (0.7) | 2.5 (-0.6) | 2.5 (1.4) | 1.3 (-0.1) | - |
| 기타지식재산생산물 | 0.30 | 1.0 | 3.7 | 3.2 (2.7) | 3.2 (1.0) | 2.6 (0.0) | 5.4 (1.6) | - |

주: 1) p는 잠정치.

2) 비중은 2019년 연간 기준.

3) () 안은 계절조정 전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 연구개발과 밀접한 상위 10대 제조기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감소(2.5% → -1.3%)하였으나, 금년 정부 R&D 예산 증가폭의 확대(4.4% → 17.3%)는 지식재산생산물투자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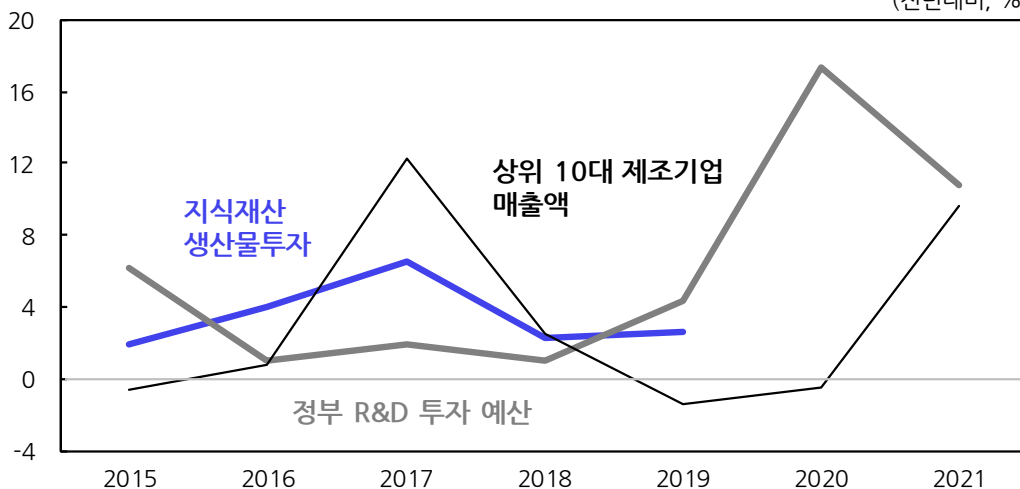
– 정부의 R&D 투자 예산(전년대비, %): ('18) 1.0 → ('19) 4.4 → ('20) 17.3 → ('21) 10.7

* '18년: 대한민국 재정(2019.3) 기준 / '19~'21년: 2019~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 상위 10대 제조기업 매출액(전년대비, %): ('18) 2.5 → ('19) -1.3 → ('20) -0.4 → ('21) 9.7

지식재산생산물투자와 정부 R&D 투자 및 상위 10대 제조기업 매출액

(전년대비, %)



주: 2020~21년 상위 10대 제조기업 매출액은 컨센서스 수치임.

자료: 한국은행; 2019~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Fnguide.

7. 수출입 및 국제수지

수출은 개선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로 4월 이후 빠르게 위축되는 모습

가. 수출

■ 1/4분기 수출은 물량이 증가하고 금액 기준으로도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된 4월에는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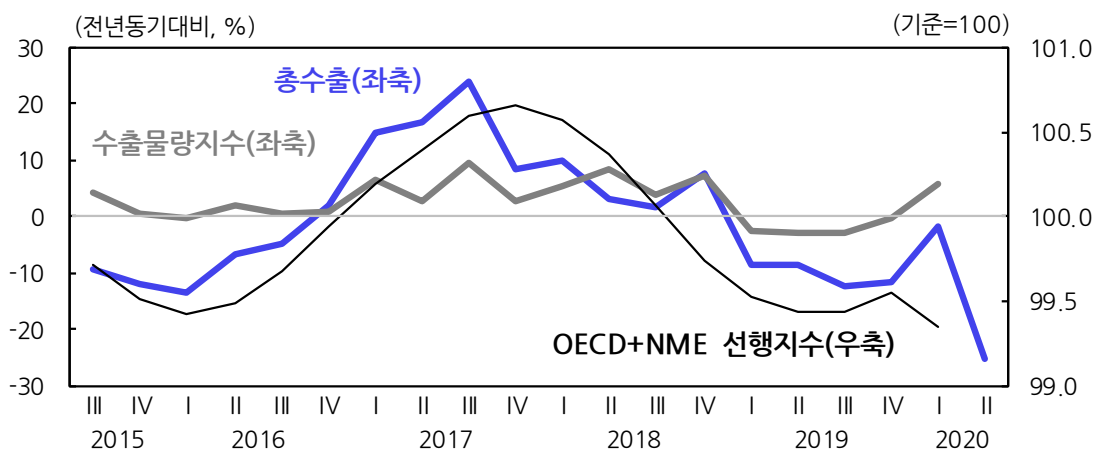
● 1/4분기 금액기준 수출은 반도체(0.6%)를 중심으로 전분기(-11.8%)보다 감소폭이 축소된 -1.7%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물량 기준으로 반도체(38.6%)가 전분기(16.5%)에 이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며 5.7% 증가

- 수출물량지수(전년동기대비, %): ('19.3/4) -2.9 → (4/4) -0.2 → ('20.1/4) 5.7

● 그러나 4월 수출(금액 기준)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하며 -25.1%의 증가율을 기록

● 경기선행지수(OECD 및 주요 신흥국)의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수출 여건이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움을 시사

총수출과 수출물량지수, OECD 및 주요 신흥국 경기선행지수



주 : 1) 2020년 2/4분기는 2020년 4월 수치임.

2) 주요 신흥국(NME)은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의미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은행; OECD.

■ 지역별 수출은 1/4분기에 미국이 증가한 반면 중국과 EU는 부진을 지속하였고, 4월 이후에는 전 지역에서 급격히 감소함.

- 1/4분기 對미국 수출(5.6%)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증가
- 對중국 수출(-8.3%)은 석유화학과 자동차가 부진하였으나 반도체가 증가로 전환하면서 감소폭이 축소
- 그러나 4월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중국(-17.9%), 미국(-13.5%), ASEAN(-33.0%) 등 전 지역에서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함.

지역별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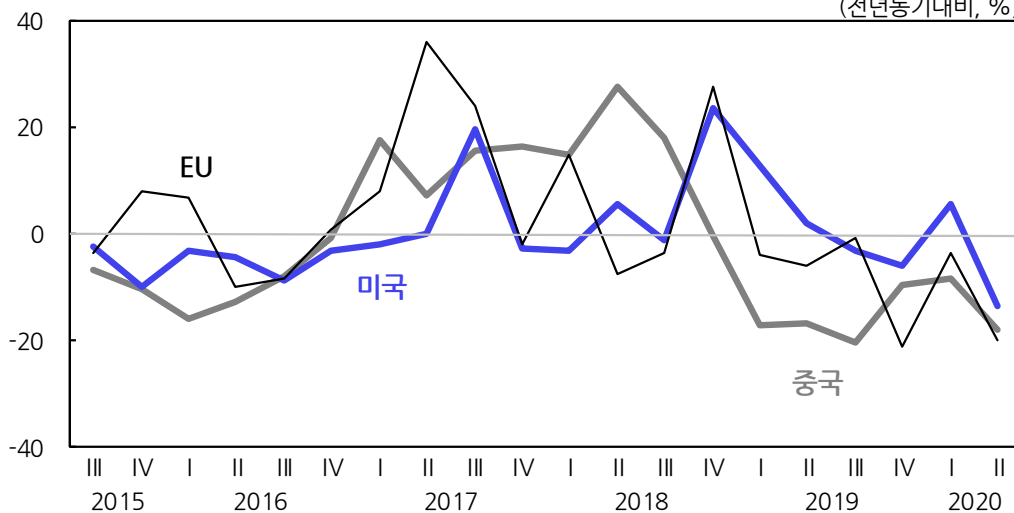
(전년동기대비, %)

| | 비중 ¹⁾ | 2018 | 2019 | | | | | 2020 | |
|-------|------------------|-------|-------|-------|-------|-------|-------|-------|-------|
| | | 연간 | 연간 | 1/4 | 2/4 | 3/4 | 4/4 | 1/4 | 4월 |
| 수출 | 100.0 | 5.4 | -10.4 | -8.5 | -8.7 | -12.3 | -11.8 | -1.7 | -25.1 |
| 중 국 | 25.1 | 14.1 | -16.0 | -17.3 | -16.8 | -20.2 | -9.4 | -8.3 | -17.9 |
| 미 국 | 13.5 | 6.0 | 0.9 | 12.9 | 2.1 | -3.3 | -6.0 | 5.6 | -13.5 |
| 일 본 | 5.2 | 13.8 | -6.9 | -6.0 | -6.7 | -4.3 | -10.4 | 0.2 | -12.0 |
| E U | 9.7 | 6.7 | -8.5 | -3.8 | -5.9 | -0.9 | -21.3 | -3.5 | -20.0 |
| ASEAN | 17.5 | 5.1 | -5.0 | -2.4 | -4.7 | 0.5 | -12.9 | 4.0 | -33.0 |
| 중 동 | 3.3 | -11.0 | -18.6 | -26.4 | -25.6 | -24.0 | 6.4 | -0.4 | -20.5 |
| 중남미 | 4.9 | -1.2 | -5.2 | -8.7 | 13.7 | -12.2 | -12.3 | -18.8 | -54.2 |

주: 1) 비중은 2019년 연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요국에 대한 수출

(전년동기대비, %)



■ 품목별로는 1/4분기 반도체 수출금액이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의 품목에서 감소를 기록하였고, 4월 이후에는 전 품목에서 큰 폭의 감소를 기록

● 1/4분기 반도체는 단가 하락세가 지속되었지만 데이터센터 서버용 수요 증가 등으로 물량이 확대되며 전분기(-27.6%)의 감소에서 0.6%의 증가로 전환

－ 반도체 수출가격지수(전년동기대비, %): ('19.3/4) -37.5 → (4/4) -34.3 → ('20.1/4) -22.2

－ 반도체 수출물량지수(전년동기대비, %): ('19.3/4) 15.9 → (4/4) 16.5 → ('20.1/4) 38.6

● 석유화학과 석유제품은 유가 및 수출단가 하락,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로 각각 -13.0%와 -11.3%의 감소를 기록

● 자동차는 글로벌 수요 감소로 -11.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철강제품은 단가 약세 지속 및 전반적인 수요 부진에 따라 -11.4%의 증가율을 기록

● 한편, 4월 이후 수출은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됨에 따라 전 품목에서 감소세가 크게 확대되는 모습

－ 반도체는 글로벌 수요 감소 영향으로 부진하였으나 다른 품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수출의 감소폭을 축소시킨 것으로 판단됨.

－ 석유화학(-33.7%)과 석유제품(-56.9%)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석유수요 위축 및 국제유가 급락의 영향으로 큰 폭의 감소를 기록

품목별 수출

(전년동기대비, %)

| | 비중 ¹⁾ | 2018 | 2019 | | | | | 2020 | |
|--------|------------------|-------|-------|-------|-------|-------|-------|-------|-------|
| | | 연간 | 연간 | 1/4 | 2/4 | 3/4 | 4/4 | 1/4 | 4월 |
| 수 출 | 100.0 | 5.4 | -10.4 | -8.5 | -8.7 | -12.3 | -11.8 | -1.7 | -25.1 |
| 반 도 체 | 17.3 | 29.4 | -25.9 | -21.4 | -23.6 | -30.3 | -27.6 | 0.6 | -14.9 |
| 무선통신기기 | 2.6 | -22.7 | -17.6 | -27.2 | -21.0 | -17.1 | -3.9 | -1.3 | -33.4 |
| 디스플레이 | 3.8 | -9.9 | -17.0 | -11.6 | -13.8 | -19.9 | -21.1 | -20.7 | -39.1 |
| 자 동 차 | 7.9 | -1.9 | 5.3 | 4.7 | 8.9 | 10.3 | -1.4 | -11.5 | -36.3 |
| 자동차부품 | 4.2 | -0.1 | -2.5 | 2.9 | -7.2 | -0.7 | -4.5 | -2.4 | -49.6 |
| 석유화학 | 7.9 | 11.8 | -14.8 | -10.3 | -15.9 | -16.9 | -16.2 | -13.0 | -33.7 |
| 석유제품 | 7.5 | 32.3 | -12.2 | -4.2 | -13.0 | -14.4 | -15.8 | -11.3 | -56.9 |
| 철강제품 | 5.7 | -0.7 | -8.6 | -1.8 | -8.2 | -17.6 | -5.5 | -11.4 | -24.1 |
| 일반기계 | 9.7 | 10.2 | -1.9 | 0.5 | 0.5 | -4.5 | -3.7 | -0.2 | -20.0 |
| 선 박 | 3.7 | -49.6 | -5.2 | -24.6 | 49.3 | 38.7 | -41.0 | 8.9 | -60.9 |

주: 1)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품목별 비중(2019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나. 수입

■ 1/4분기 수입은 자본재를 중심으로 부진이 완화되고 있었으나, 4월 이후에는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라 감소폭이 크게 확대됨.

● 1/4분기 1차 상품 수입은 도입물량이 감소하였지만 원유도입단가가 소폭 상승하면서 전분기(-16.4%)보다 감소폭이 축소된 -6.9%의 증가율을 기록

- 원유도입단가(전년동기대비, %): ('19.3/4) -12.7 → (4/4) -14.7 → ('20.1/4) 2.3

- 원유도입물량(전년동기대비, %): ('19.3/4) -5.5 → (4/4) → -7.4 → ('20.1/4) -5.6

● 소비재는 2.4% 감소하였고, 자본재는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입액이 확대되며 6.3% 증가를 기록

● 한편, 4월 수입(-15.8%)은 원유도입단가의 하락에 따라 1차 상품(-34.6%)이 급감하면서 큰 폭으로 감소

- 다만, 자본재는 2.5% 증가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

용도별 수입

(전년동기대비, %)

| | 비중 ¹⁾ | 2018 | 2019 | | | | | 2020 | |
|-------|------------------|------|-------|-------|-------|-------|-------|------|-------|
| | | 연간 | 연간 | 1/4 | 2/4 | 3/4 | 4/4 | 1/4 | 4월 |
| 수입 | 100.0 | 11.9 | -6.0 | -6.5 | -3.3 | -4.1 | -9.7 | -1.4 | -15.8 |
| 1차 상품 | 23.2 | 23.6 | -10.0 | -4.3 | -6.5 | -12.3 | -16.4 | -6.9 | -34.6 |
| 중간재 | 49.6 | 11.0 | -3.1 | -2.2 | 1.4 | -1.4 | -9.7 | -0.4 | -13.9 |
| 소비재 | 13.7 | 13.6 | 1.7 | -1.7 | 0.2 | 8.0 | 0.7 | -2.4 | -9.0 |
| 자본재 | 13.0 | -2.6 | -15.4 | -26.5 | -15.9 | -10.1 | -7.1 | 6.3 | 2.5 |

주: 1)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가공단계별 비중(2019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원유 수입

(억달러)

| | 2018 | 2019 | | | | | | 2020 | |
|-------------|---------|---------|--------|--------|---------|---------|--------|--------|---------|
| | 연간 | 연간 | 1/4 | 2/4 | 3/4 | 4/4 | 4월 | 1/4 | 4월 |
| 원유수입액 | 803.9 | 702.5 | 176.3 | 185.4 | 169.7 | 171.1 | 66.1 | 170.2 | 30.9 |
| (전년동기대비, %) | (34.9) | (-12.6) | (-3.3) | (-6.9) | (-17.5) | (-21.0) | (13.0) | (-3.5) | (-53.3) |
| 도입물량(백만배럴) | 1,116.3 | 1,066.9 | 278.7 | 265.5 | 257.8 | 264.9 | 95.7 | 263.1 | 80.4 |
| 도입단가(달러/배럴) | 72.0 | 65.8 | 63.3 | 69.8 | 65.8 | 64.6 | 69.1 | 64.8 | 38.4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다. 교역조건

■ 1/4분기 교역조건(-4.6%)은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분기(-2.2%)보다 더욱 악화됨.

● 수입가격은 3.3% 하락하며 전분기(-8.0%)보다 하락폭이 축소되었으며, 수출가격도 전분기(-10.0%)보다 하락폭이 축소된 -7.7%의 상승률을 기록

수출입 가격 및 교역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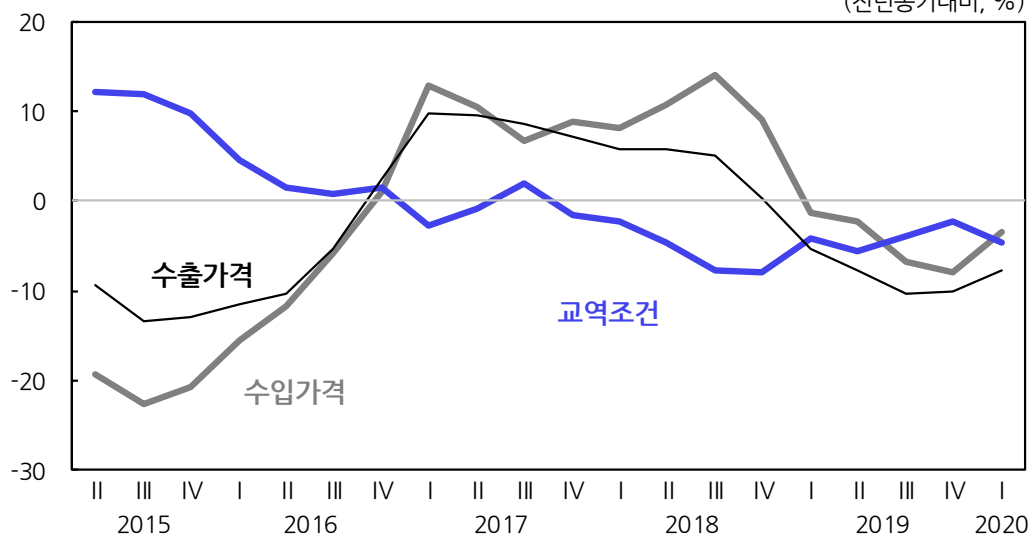
(전년동기대비, %)

| | 2018 | | 2019 | | | | | 2020 ^p |
|----------------|------|------|-------|-------|-------|-------|-------|-------------------|
| | 연간 | 1/4 | 연간 | 1/4 | 2/4 | 3/4 | 4/4 | 1/4 ^p |
| 수출가격 | 4.2 | 5.7 | -8.3 | -5.4 | -7.7 | -10.3 | -10.0 | -7.7 |
| 석탄 및 석유제품 | 24.6 | 18.9 | -8.6 | -3.9 | -8.4 | -13.9 | -7.5 | -16.3 |
|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 -3.9 | 2.8 | -18.1 | -13.7 | -16.3 | -21.0 | -21.9 | -15.3 |
| 반도체 | 7.4 | 22.5 | -31.9 | -23.6 | -32.5 | -37.5 | -34.3 | -22.2 |
| 수입가격 | 10.5 | 8.0 | -4.6 | -1.2 | -2.2 | -6.8 | -8.0 | -3.3 |
| 석탄 및 석유제품 | 28.2 | 18.2 | -12.8 | -9.0 | -1.7 | -19.3 | -20.0 | -0.5 |
| 화학제품 | 7.0 | 5.4 | -5.1 | -4.4 | -4.8 | -5.4 | -5.7 | -2.6 |
|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 -2.4 | 0.5 | -5.9 | -5.1 | -4.8 | -6.0 | -7.6 | -6.5 |
| 반도체 | -1.5 | 2.2 | -16.9 | -12.6 | -17.0 | -19.3 | -19.0 | -15.3 |
| 교역조건 | -5.7 | -2.2 | -3.9 | -4.2 | -5.6 | -3.8 | -2.2 | -4.6 |

주: p는 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수출입 가격 및 교역조건

(전년동기대비, %)



자료: 한국은행.

라. 경상수지

■ 1/4분기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축소되면서 전년동기(121.9억달러)보다 확대된 136.1억달러의 흑자를 기록

● 상품수지는 수출(-4.5%)이 수입(-1.7%)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동기(195.2억달러)보다 축소된 153.4억달러의 흑자를 기록

● 서비스수지는 운송수지와 여행수지의 적자폭이 축소됨에 따라 전년동기(-71.8억달러)보다 적자폭이 축소된 -52.8억달러를 기록

－ 운송수지(억달러): (‘19.1/4) -6.6 → (2/4) -2.4 → (3/4) -1.9 → (4/4) -5.3 → (‘20.1/4) -2.8

－ 여행수지(억달러): (‘19.1/4) -25.4 → (2/4) -23.1 → (3/4) -29.2 → (4/4) -29.0 → (‘20.1/4) -21.7

● 본원소득수지는 전년동기(15.2억달러)보다 흑자폭이 확대된 38.6억달러를 기록하였고, 이전소득수지는 전년동기(-16.7억달러)보다 적자폭이 축소된 -3.2억달러를 기록

● 한편, 1/4분기 계절조정 경상수지는 171.5억달러의 흑자를 기록

항목별 경상수지

(억달러)

| | 2018 | | 2019 ^p | | | | | 2020 ^p |
|----------------|---------|------------------|-------------------|------------------|------------------|------------------|------------------|-------------------|
| | 연간 | 1/4 | 연간 ^p | 1/4 ^p | 2/4 ^p | 3/4 ^p | 4/4 ^p | 1/4 ^p |
| 경상수지 (계절조정) | 774.7 | 109.9 (152.5) | 599.7 | 121.9 (137.6) | 104.5 (136.1) | 192.0 (159.5) | 181.3 (166.5) | 136.1 (171.5) |
| 상품수지 | 1,100.9 | 213.5 | 768.6 | 195.2 | 173.8 | 195.1 | 204.5 | 153.4 |
| 수출(FOB) | 6,262.7 | 1,500.6 | 5,619.6 | 1,377.2 | 1,406.6 | 1,399.2 | 1,436.6 | 1,315.1 |
| 수입(FOB) | 5,161.8 | 1,287.2 | 4,851.1 | 1,182.1 | 1,232.8 | 1,204.0 | 1,232.1 | 1,161.7 |
| 서비스수지 | -293.7 | -96.9 | -230.2 | -71.8 | -43.6 | -53.7 | -61.2 | -52.8 |
| 운송 | -25.1 | -11.3 | -16.2 | -6.6 | -2.4 | -1.9 | -5.3 | -2.8 |
| 여행 | -165.7 | -53.1 | -106.7 | -25.4 | -23.1 | -29.2 | -29.0 | -21.7 |
| 기타서비스 | -102.9 | -32.5 | -107.3 | -39.8 | -18.1 | -22.6 | -26.9 | -28.3 |
| 건설 | 97.2 | 23.2 | 96.5 | 22.1 | 25.4 | 24.2 | 24.7 | 18.9 |
| 지식재산권사용료 | -20.6 | -10.2 | -22.1 | -13.2 | -2.2 | -3.0 | -3.7 | -10.3 |
| 기타사업서비스 | -122.1 | -31.3 | -123.5 | -32.0 | -26.6 | -29.2 | -35.7 | -27.0 |
| 본원소득수지 | 49.0 | 20.9 | 122.0 | 15.2 | -8.2 | 60.3 | 54.7 | 38.6 |
| 이전소득수지 | -81.5 | -27.5 | -60.6 | -16.7 | -17.5 | -9.7 | -16.7 | -3.2 |

주: p는 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마. 금융·자본계정

■ 1/4분기 해외 순자산 증가(자본 유출)는 전년동기(121.1억달러)보다 확대된 138.2억달러를 기록

● 직접투자는 주로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가 축소되면서 순자산 증가 규모도 전년동기(77.0억달러)보다 줄어든 56.5억달러를 기록

- 내국인 해외 직접투자(억달러): ('19.1/4) 92.7 → (2/4) 96.7 → (3/4) 60.5 → (4/4) 105.5 → ('20.1/4) 8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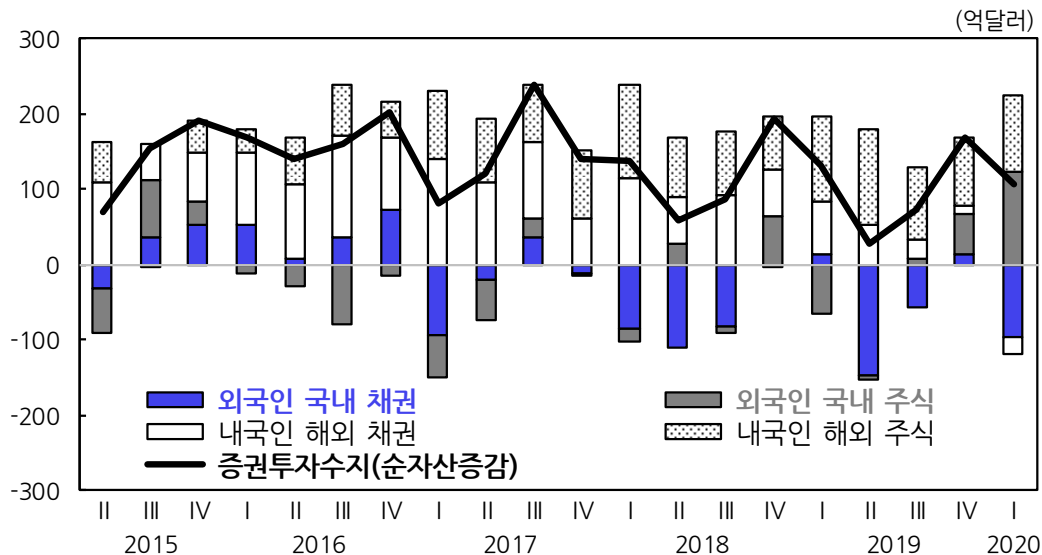
- 외국인 국내 직접투자(억달러): ('19.1/4) 15.7 → (2/4) 29.0 → (3/4) 13.6 → (4/4) 47.4 → ('20.1/4) 23.7

● 증권투자는 외국인국내증권투자가 감소로 전환되었으나 내국인해외증권투자가 큰 폭으로 축소되며 전년동기(132.1억달러)보다 낮은 105.6억달러의 순자산 증가를 기록

- 내국인해외증권투자(억달러): ('19.1/4) 183.5 → (2/4) 179.2 → (3/4) 121.5 → (4/4) 101.6 → ('20.1/4) 78.8

- 외국인국내증권투자(억달러): ('19.1/4) 51.5 → (2/4) 151.6 → (3/4) 48.8 → (4/4) -67.2 → ('20.1/4) -26.8

항목별 증권투자수지



주: 내국인 해외 채권/주식 투자는 해외 순자산 증가(자본 유출) 요인이고 외국인 국내 채권/주식 투자는 해외 순자산 감소(자본 유입) 요인.

자료: 한국은행.

- 기타투자는 주로 현금 및 예금 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년동기(-103.3억달러)의 순자산 감소(자본유입)에서 15.6억달러의 순자산 증가(자본유출)로 전환

- 현금 및 예금 (자산, 억달러): ('19.1/4) -76.3 → (2/4) 49.7 → (3/4) 15.6 → (4/4) -39.6 → ('20.1/4) 149.7

금융·자본계정

(억달러)

| | 2018 | | 2019 ^p | | | | | 2020 ^p |
|--------|--------|-------|-------------------|------------------|------------------|------------------|------------------|-------------------|
| | 연간 | 1/4 | 연간 ^p | 1/4 ^p | 2/4 ^p | 3/4 ^p | 4/4 ^p | 1/4 ^p |
| 금융계정 | 769.3 | 136.2 | 609.5 | 121.1 | 115.2 | 160.3 | 212.9 | 138.2 |
| 직접투자 | 260.4 | 30.6 | 249.7 | 77.0 | 67.7 | 46.9 | 58.0 | 56.5 |
| 증권투자 | 474.2 | 137.8 | 401.2 | 132.1 | 27.5 | 72.7 | 168.9 | 105.6 |
| 파생금융상품 | -15.0 | -37.0 | 59.7 | 4.9 | 38.2 | 19.7 | -3.1 | 36.1 |
| 기타투자 | -125.2 | -23.3 | -115.8 | -103.3 | 20.6 | -3.8 | -29.3 | 15.6 |
| 준비자산 | 175.0 | 27.9 | 14.7 | 10.4 | -38.8 | 24.8 | 18.4 | -75.6 |
| 자본계정 | 3.2 | -0.2 | -0.6 | -0.4 | 0.2 | -0.1 | -0.3 | -0.4 |

주: 1) p는 잠정치.

2) 해외 순자산 증감 기준.

3) 해외 순자산 증가는 자본유출을 의미하고 순자산 감소는 자본유입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 1/4분기 외환보유액은 전분기 말(4,088억달러) 대비 86.0억달러 감소한 4,002억달러를 기록

- 한편, 2019년 4/4분기 말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32.9%로 전분기(33.1%)보다 소폭 하락

외환보유액

(기말기준, 억달러, %)

| | 2018 | | 2019 ^p | | | | | 2020 ^p |
|------------|---------|---------|-------------------|------------------|------------------|------------------|------------------|-------------------|
| | 연간 | 1/4 | 연간 ^p | 1/4 ^p | 2/4 ^p | 3/4 ^p | 4/4 ^p | 1/4 ^p |
| 외환보유액 증감 | 144.3 | 74.9 | 51.2 | 15.6 | -21.8 | 2.5 | 55.0 | -86.0 |
| (외환보유액 잔액) | (4,037) | (3,968) | (4,088) | (4,053) | (4,031) | (4,033) | (4,088) | (4,002) |
| 단기외채/외환보유액 | 31.1 | 30.3 | 32.9 | 31.7 | 34.5 | 33.1 | 32.9 | - |
| 총외채/외환보유액 | 109.3 | 107.8 | 114.2 | 108.8 | 114.8 | 114.1 | 114.2 | - |

주: 1) 외환보유액 증감에는 환율 변동 등에 따른 평가손익이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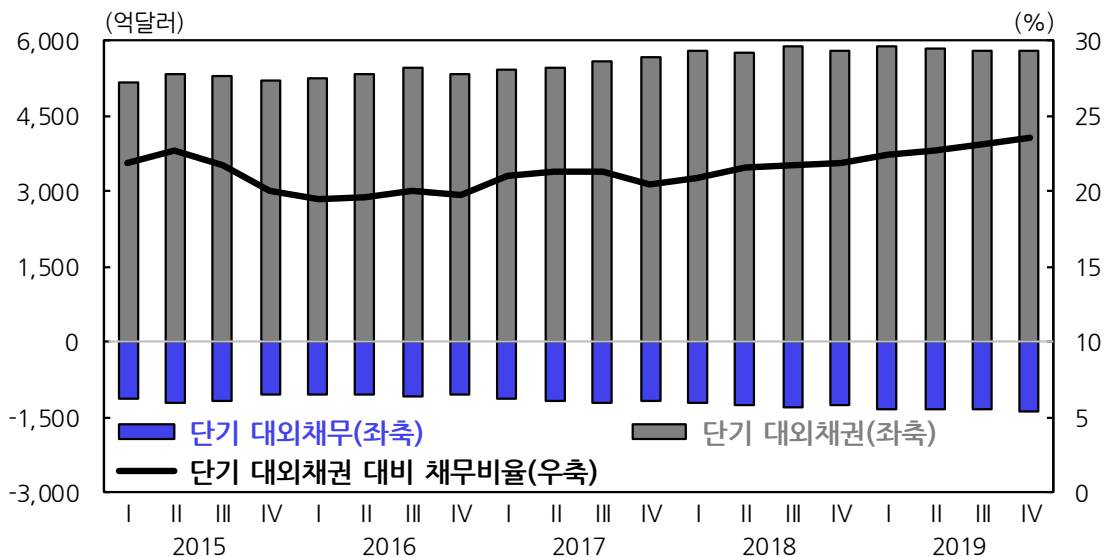
2) p는 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 4/4분기 순대외채권은 전분기 말(4,821억달러)대비 15.1억달러 감소

- 대외채권은 전분기 말(9,423억달러) 대비 53.1억달러 증가한 9,476억달러를 기록
 - 부문별로는 일반정부(1.7억달러), 중앙은행(55.0억달러), 기타부문(27.2억달러)이 증가하였으며, 예금취급기관(-30.9억달러)은 감소하였음.
 - 기간별로는 단기 대외채권(24.3억달러)과 장기 대외채권(28.7억달러) 모두 증가
 - 형태별로는 무역신용(5.8억달러), 기타부채 및 자산(20.1억달러)이 증가하였지만, 부채성증권(-9.0억달러), 현금 및 예금(-34.5억달러), 차입 및 대출(-6.3억달러)은 감소
- 대외채무는 전분기 말(4,602억달러) 대비 68.1억달러 증가한 4,670억달러를 기록
 - 부문별로는 일반정부(30.4억달러), 예금취급기관(18.5억달러)이 증가하였지만 중앙은행(-16.3억달러)은 감소
 - 기간별로는 단기 대외채무(9.7억달러)와 장기 대외채무(58.4억달러) 모두 증가
 - 형태별로는 부채성증권(39.9억달러), 현금 및 예금(26.9억달러), 무역신용(6.5억달러)이 증가하였으며, 대외 차입 및 대출(-16.6억달러)은 감소
- 단기 대외채권 대비 단기 대외채무의 비율은 전분기(23.1%)보다 높은 23.5%를 기록

단기 대외채권과 단기 대외채무



자료: 한국은행.

대외채무 및 대외채권

(기말기준, 억달러)

| | | 총 대외채무 | | | | 총 대외채권 | | | |
|-----------------|----------------------------|-------------------|-------------------|------------------|------------------|-------------------|-------------------|------------------|------------------|
| | | 2018 ^p | 2019 ^p | | | 2018 ^p | 2019 ^p | | |
| | | | 2/4 ^p | 3/4 ^p | 4/4 ^p | | 2/4 ^p | 3/4 ^p | 4/4 ^p |
| 계 ¹⁾ | | 4,412 (291.4) | 4,628 (218.3) | 4,602 (-26.7) | 4,670 (68.1) | 9,188 (414.2) | 9,428 (189.1) | 9,423 (-5.0) | 9,476 (53.1) |
| 부문별 | 일반정부 | 845 (44.5) | 899 (69.0) | 897 (-2.1) | 928 (30.4) | 274 (34.0) | 302 (19.7) | 273 (-28.6) | 275 (1.7) |
| | 중앙은행 | 280 (53.5) | 289 (28.5) | 270 (-19.6) | 253 (-16.3) | 4,050 (147.0) | 4,045 (-21.2) | 4,047 (2.4) | 4,102 (55.0) |
| | 준비자산 ³⁾ | - | - | - | - | 4,037 | 4,031 | 4,033 | 4,088 |
| | 예금취급기관 | 1,904 (132.3) | 2,053 (88.7) | 2,032 (-21.3) | 2,051 (18.5) | 2,082 (6.3) | 2,103 (50.0) | 2,108 (4.6) | 2,077 (-30.9) |
| | 기타부문 ⁴⁾ | 1,383 (61.1) | 1,386 (32.1) | 1,403 (16.2) | 1,438 (35.6) | 2,781 (226.9) | 2,978 (140.6) | 2,994 (16.5) | 3,021 (27.2) |
| 기간별 | 단 기 | 1,256 (96.6) | 1,389 (105.0) | 1,335 (-54.0) | 1,345 (9.7) | 5,740 (53.0) | 5,738 (51.9) | 5,697 (-40.6) | 5,721 (24.3) |
| | 장 기 | 3,156 (194.9) | 3,239 (113.3) | 3,266 (27.3) | 3,325 (58.4) | 3,449 (361.2) | 3,690 (137.2) | 3,726 (35.6) | 3,754 (28.7) |
| 형태별 | 부채성증권 | 2,290 (209.5) | 2,397 (136.0) | 2,398 (1.6) | 2,438 (39.9) | 2,040 (300.1) | 2,249 (104.5) | 2,282 (33.1) | 2,273 (-9.0) |
| | 차입 · 대출 | 1,246 (43.3) | 1,329 (47.6) | 1,311 (-17.3) | 1,295 (-16.6) | 1,210 (-18.3) | 1,272 (-3.4) | 1,247 (-25.3) | 1,241 (-6.3) |
| | 현금 · 예금 | 305 (21.4) | 330 (23.0) | 328 (-2.6) | 355 (26.9) | 568 (-46.2) | 554 (60.1) | 571 (16.4) | 536 (-34.5) |
| | 무역신용 | 94 (7.3) | 74 (-0.2) | 68 (-5.9) | 75 (6.5) | 312 (13.3) | 296 (4.2) | 294 (-2.5) | 300 (5.8) |
| | 기타부채 · 자산 | 141 (-30.9) | 164 (4.7) | 165 (1.2) | 168 (3.4) | 396 (-38.3) | 381 (27.0) | 357 (-24.2) | 377 (20.1) |
| | 채무상품 직접투자 ⁵⁾ | 336 (40.9) | 335 (7.2) | 331 (-3.6) | 339 (8.1) | 626 (59.4) | 644 (18.5) | 639 (-5.0) | 661 (22.0) |
| 순대외채권 | | - | - | - | - | 4,776 (122.8) | 4,799 (-29.2) | 4,821 (21.7) | 4,806 (-15.1) |

주: 1) 총 대외채권 · 대외채무잔액.

2) p는 잠정치.

3) 준비자산은 외환보유액을 의미.

4) 기타부문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의 기타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 등으로 구성.

5) 투자기업 간 대출 · 차입은 채무상품 직접투자로 명칭 변경.

6) () 안은 전기대비 증감.

자료: 한국은행, 「국제투자대조표(잠정)」.

8. 노동시장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축소된 가운데, 향후 수출 부진이 나타날 경우 제조업 고용도 위축될 가능성

■ 1/4분기 노동시장은 고용률이 하락하고 실업률은 상승하였으며 취업자 수 증가폭은 축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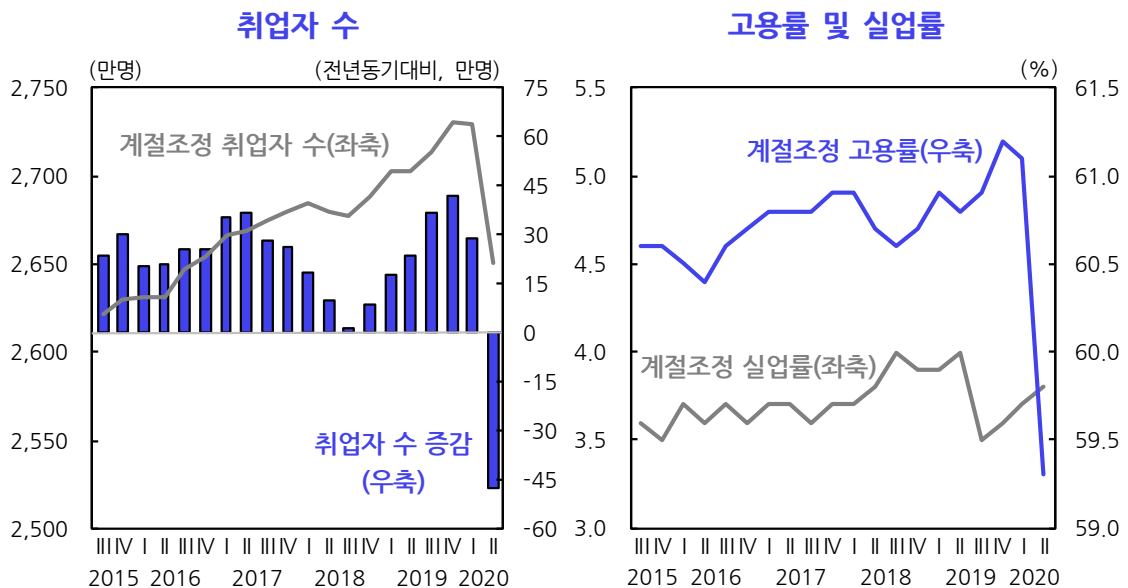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는 전분기(42.2만명)보다 증가폭이 축소된 전년동기 대비 28.8만명(1.1%) 증가함.

–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기대비, 만명): ('19.2/4) 23.7 → (3/4) 36.6 → (4/4) 42.2 → ('20.1/4) 28.8

● 계절조정 고용률은 61.1%로 전분기보다 0.1%p 하락하였고, 실업률은 3.7%로 전분기보다 0.1%p 상승하였음.

– 계절조정 실업률(%): ('19.2/4) 4.0 → (3/4) 3.5 → (4/4) 3.6 → ('20.1/4) 3.7

● 한편, 4월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되며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큰 폭으로 악화



■ 산업별로는 취업자 수가 제조업에서 소폭 증가하고 건설업에서는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서비스업에서는 증가폭이 크게 축소

●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분기(-4.1만명)보다 높은 0.6만명 증가하였으나, 월별로는 3월 이후 코로나19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로 인해 감소로 전환됨.

– 4월 제조업 취업자도 4.4만명 감소하여 전월(-2.3만명)보다 감소폭이 확대됨.

● 건설업 취업자 수는 0.8만명 감소하여 전분기(-5.0만명)보다 감소폭이 축소

●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면서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증가폭이 크게 축소(45.7만명 → 17.0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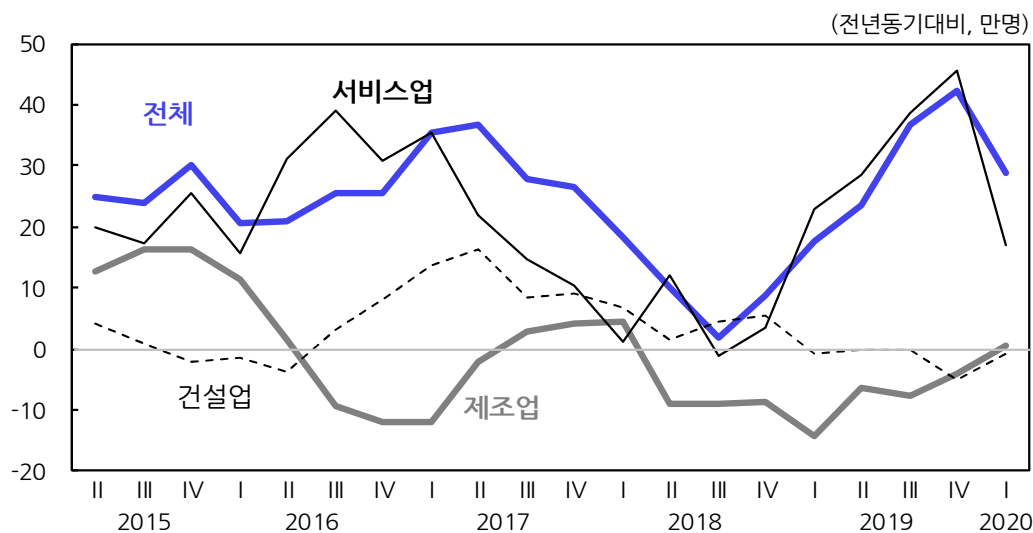
주요 산업별 취업자 증감

(만명, %)

| | 2018 | | | 2019 | | | | 2020 |
|------|----------------|----------------|----------------|-----------------|----------------|----------------|----------------|----------------|
|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1/4 |
| 제조업 | -9.1 [-2.0] | -9.1 [-2.0] | -8.8 [-1.9] | -14.3 [-3.1] | -6.4 [-1.4] | -7.6 [-1.7] | -4.1 [-0.9] | 0.6 [0.1] |
| 서비스업 | 12.1 [0.6] | -1.2 [-0.1] | 3.6 [0.2] | 23.0 [1.2] | 28.5 [1.5] | 38.6 [2.1] | 45.7 [2.4] | 17.0 [0.9] |
| 건설업 | 1.6 [0.8] | 4.5 [2.3] | 5.6 [2.8] | -0.7 [-0.4] | -0.1 [0.0] | -0.1 [0.0] | -5.0 [-2.4] | -0.8 [-0.4] |

주: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

주요 산업별 취업자 증감



자료: 통계청.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는 상용직의 증가폭이 축소되고, 임시직과 일용직의 감소폭은 확대

- 상용직(60.3만명 → 58.0만명)은 서비스업 고용 부진으로 증가폭이 축소
- 임시직(-1.4만명 → -15.5만명)은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대면접촉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크게 확대
- 일용직(-10.8만명 → -11.4만명)은 건설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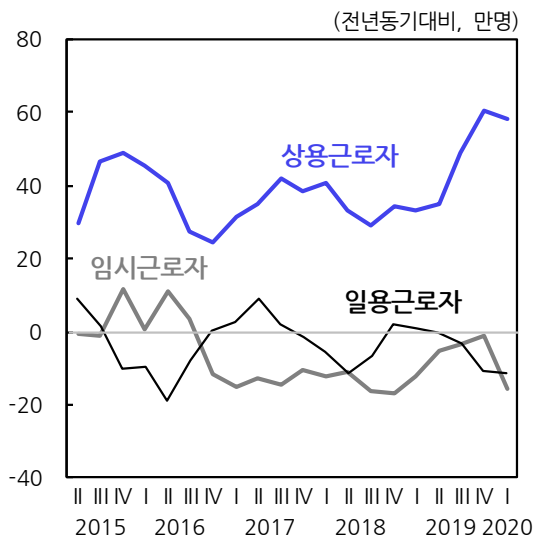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만명, %)

| | | 2018 | | | 2019 | | | | 2020 |
|--------|---------|-----------------|-----------------|-----------------|-----------------|----------------|----------------|-----------------|-----------------|
| |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1/4 |
| 임금근로자 | 상용직 | 33.5 [2.5] | 29.3 [2.2] | 34.2 [2.5] | 33.4 [2.4] | 34.7 [2.5] | 49.1 [3.6] | 60.3 [4.3] | 58.0 [4.1] |
| | 임시직 | -10.9 [-2.1] | -16.2 [-3.2] | -17.0 [-3.4] | -12.3 [-2.6] | -5.3 [-1.1] | -3.3 [-0.7] | -1.4 [-0.3] | -15.5 [-3.4] |
| | 일용직 | -11.3 [-7.2] | -6.7 [-4.4] | 1.9 [1.3] | 1.2 [0.9] | 0.1 [0.0] | -3.1 [-2.1] | -10.8 [-7.0] | -11.4 [-8.1] |
|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 -0.3 [0.0] | -5.5 [-1.0] | -9.3 [-1.6] | -3.9 [-0.7] | -2.6 [-0.4] | -3.0 [-0.5] | -3.4 [-0.6] | -2.6 [-0.5] |
| | 무급가족종사자 | -1.0 [-0.9] | 0.7 [0.6] | -1.2 [-1.0] | -0.6 [-0.6] | -3.2 [-2.8] | -3.0 [-2.6] | -2.6 [-2.4] | 0.3 [0.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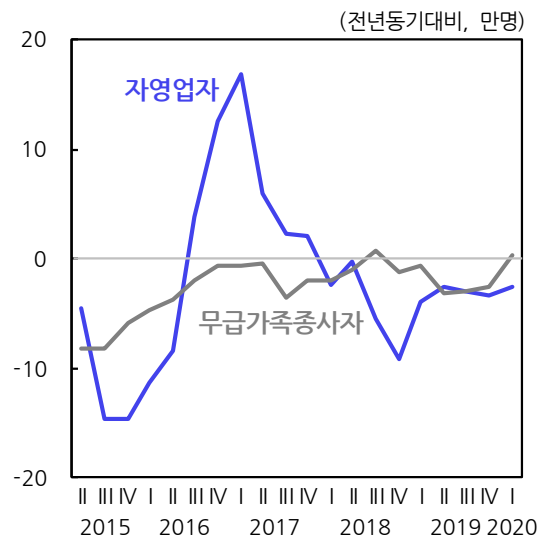
주: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

임금근로자 증감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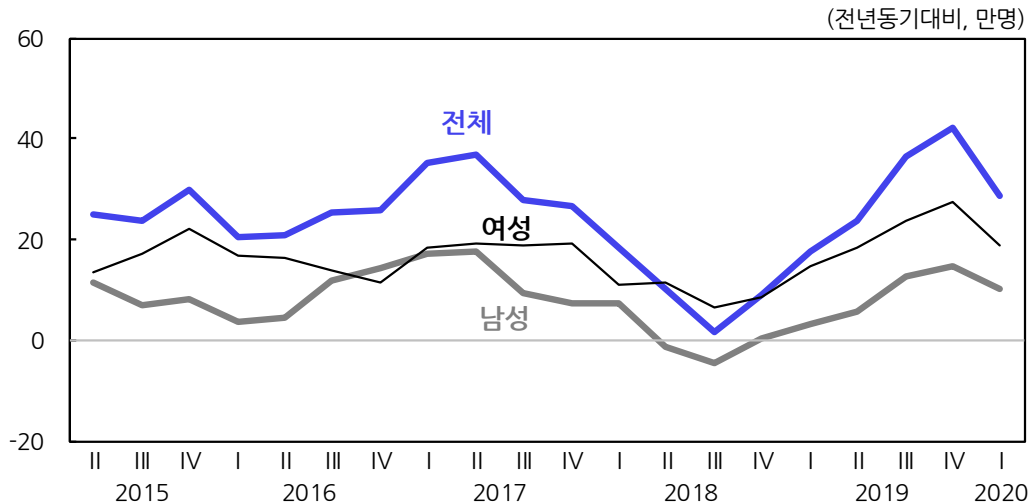
비임금근로자 증감



■ 남성과 여성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모두 축소된 가운데,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 수가 감소로 전환하였고, 60대 이상의 취업자 수는 증가폭이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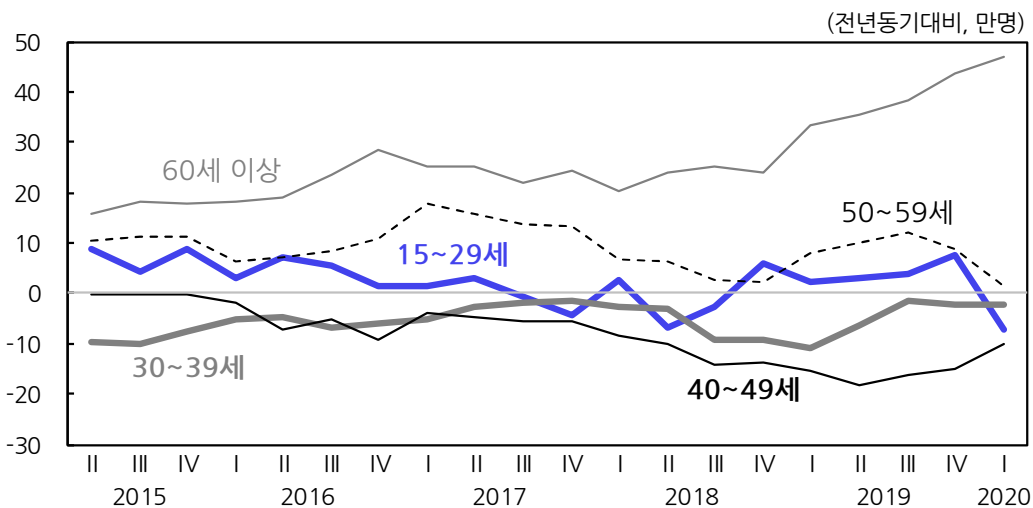
● 성별로는 남성(14.9만명 → 10.2만명)과 여성(27.3만명 → 18.7만명) 모두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축소됨.

성별 취업자 증감



● 연령별로는 15~29세(7.4만명 → -7.1만명)의 취업자 수가 도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하였고, 60대 이상(43.5만명 → 47.1만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됨.

연령별 취업자 증감



■ 비경제활동인구는 단순유휴자를 중심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함.

- 1/4분기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대비 11.3만명(0.7%) 증가하며 전분기(-2.9만명, -0.2%)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
- 세부항목별로는 단순유휴자의 증가세가 유지되었고, 육아·가사 응답자와 구직단념자는 감소폭이 축소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전년동기대비, 만명)

| | 2017 | 2018 | | | | 2019 | | | | 2020 |
|---------------------|-------|------|------|-------|-------|-------|-------|-------|-------|------|
| | 4/4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1/4 |
| 비경제활동인구 합계 | 3.0 | 6.8 | 11.0 | 12.6 | 11.2 | 4.4 | 1.8 | 9.0 | -2.9 | 11.3 |
| 단순유휴자 | 22.0 | 10.7 | 12.7 | 13.7 | 10.3 | 15.2 | 22.4 | 29.9 | 27.7 | 25.1 |
| 육아·가사 | -13.9 | -2.8 | -0.2 | 0.8 | 2.5 | -11.4 | -15.3 | -15.1 | -19.3 | -7.7 |
| 취업준비 | -1.9 | 1.5 | 1.4 | 1.9 | 6.7 | 7.7 | 2.2 | 0.4 | 0.0 | 0.3 |
| 진학준비 | -3.2 | -5.0 | 0.3 | 0.5 | 0.2 | -0.5 | -1.0 | -1.3 | -1.1 | 1.8 |
| 재학, 수강 등 | -8.2 | -5.8 | -6.2 | -12.8 | -17.6 | -14.1 | -14.6 | -9.1 | -13.1 | -9.8 |
| 정규교육기관통학 | -8.9 | -7.0 | -7.7 | -12.5 | -17.8 | -17.3 | -17.0 | -12.1 | -14.8 | -7.7 |
| 입시학원통학 | -0.2 | 1.3 | 1.3 | 1.4 | 0.5 | 0.2 | -0.6 | -0.7 | -0.1 | -1.0 |
|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통학 | 0.9 | 0.0 | 0.3 | -1.7 | -0.3 | 3.0 | 3.0 | 3.7 | 1.8 | -1.2 |
| 연로 | 6.9 | 3.5 | 0.6 | 1.6 | 0.4 | 2.8 | -0.4 | -0.3 | -1.1 | -1.0 |
| 심신장애 | -0.7 | -0.8 | -1.2 | 0.0 | 0.7 | 0.3 | 1.1 | -1.0 | -0.7 | 0.7 |
| 기타 ¹⁾ | 2.0 | 5.5 | 3.6 | 7.0 | 8.1 | 4.5 | 7.4 | 5.7 | 4.7 | 1.9 |
| 구직단념자 ²⁾ | 0.1 | 0.7 | 2.5 | 6.2 | 7.9 | 5.2 | 3.5 | -1.1 | -4.2 | -2.3 |
| 취업준비자 ³⁾ | -1.0 | 1.5 | 1.6 | 0.2 | 6.4 | 10.7 | 5.2 | 4.1 | 1.8 | -0.9 |

주: 1) 기타 = 군입대대기 및 기타 등.

2)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하였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를 의미함.

3) 취업준비자 = 취업준비 +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통학.

4) 천단위에서의 반올림으로 인해 항목별 총합에서 미세한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 2020년 1~2월 1인당 명목임금은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가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축소되며 1.4%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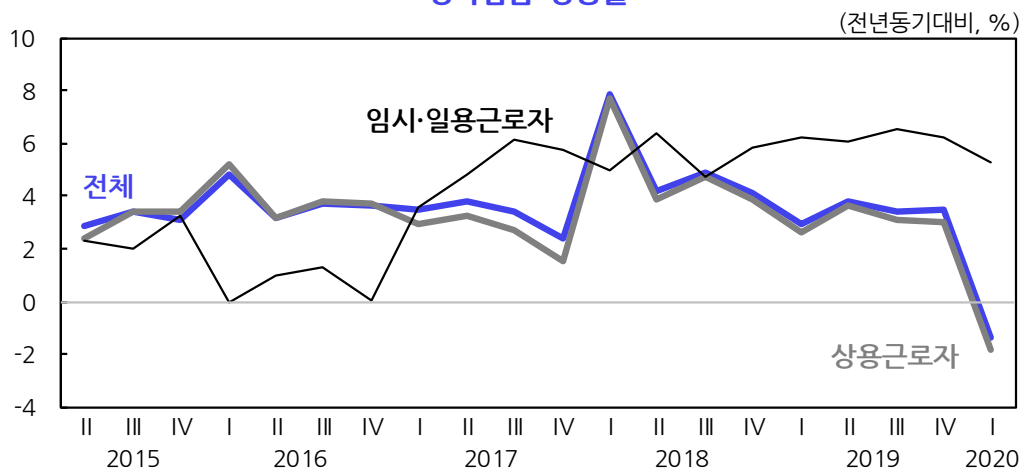
- 1~2월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3,748천원)은 2019년 4/4분기(3.5%)의 상승에서 -1.4%의 하락으로 전환됨.
-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의 전체임금이 특별급여 급락으로 인해 1.8% 하락하였으며, 임시·일용 근로자 전체임금은 5.3% 상승
- 한편, 1~2월 중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 상승률(-21.8%)은 반도체 산업 성과급 감소, 자동차 관련 산업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상여금 축소 등으로 크게 하락

종사상 지위별 월평균 임금 및 상승률

| | | 2018 | | | 2019 | | | | (천원, %) |
|----------|------|----------------|----------------|----------------|----------------|----------------|----------------|----------------|-----------------|
| |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2020 |
| | | | | | | | | | 1~2월 |
| 전체근로자 | | 3,174 [4.2] | 3,418 [4.9] | 3,359 [4.1] | 3,660 [2.9] | 3,294 [3.8] | 3,535 [3.4] | 3,476 [3.5] | 3,748 [-1.4] |
| 상용근로자 | 전체 | 3,371 [3.8] | 3,636 [4.7] | 3,577 [3.9] | 3,884 [2.6] | 3,493 [3.6] | 3,749 [3.1] | 3,682 [3.0] | 3,964 [-1.8] |
| | 정액급여 | 2,870 [4.7] | 2,884 [4.6] | 2,933 [4.4] | 3,004 [4.4] | 2,991 [4.2] | 3,002 [4.1] | 3,044 [3.8] | 3,085 [2.6] |
| | 초과급여 | 202 [2.6] | 193 [3.6] | 205 [7.0] | 195 [4.4] | 208 [2.9] | 199 [3.1] | 206 [0.5] | 198 [3.9] |
| | 특별급여 | 298 [-3.0] | 560 [6.1] | 439 [-0.5] | 684 [-5.0] | 294 [-1.6] | 549 [-1.9] | 432 [-1.5] | 681 [-21.8] |
| 임시·일용근로자 | | 1,428 [6.3] | 1,430 [4.7] | 1,463 [5.8] | 1,474 [6.2] | 1,515 [6.1] | 1,523 [6.5] | 1,554 [6.2] | 1,539 [5.3] |

주: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고용노동부.

명목임금 상승률



주: 1) 명목임금은 근로자 평균 1인당 임금총액.
2) 2020년 1/4분기는 1~2월 평균 수치임.
자료: 고용노동부.

9. 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분기 중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위축과 국제유가 하락으로 0% 내외로 축소됨.

- 1/4분기 소비자물가는 상품물가가 상승하면서 전분기(0.3%)보다 높은 전년동기대비 1.2%의 상승률을 기록

- 상품물가는 농축수산물가격(-2.5% → 2.0%)과 공업제품가격(0.2% → 2.0%)의 상승률이 모두 높아지면서 전분기(-0.2%)보다 확대된 1.9%의 상승률을 기록

- 농축수산물가격은 농산물가격(-5.8% → -0.5%)의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전분기(-2.5%)보다 높은 2.0%의 상승률을 기록
- 공업제품가격도 석유류를 중심으로 전분기(0.2%)보다 높은 2.0%의 상승률을 나타냄.
- 전기·수도·가스는 전분기와 동일한 1.5%의 상승률을 기록

- 서비스물가는 전분기(0.7%)보다 소폭 낮은 0.6% 상승

-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근원물가는 전분기와 같은 0.6%의 상승률을 기록

- 그러나 4월 소비자물가는 수요가 위축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급락과 무상교육 확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전월(1.0%)보다 크게 둔화된 0.1%의 상승률을 기록

- 상품물가는 공업제품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월(1.6%)보다 낮은 전년동월대비 -0.1%의 상승률을 기록

- 공업제품가격은 석유류가격(6.6% → -6.7%) 하락 전환에 주로 기인하여 전월(1.3%)보다 낮은 -0.7%의 상승률을 기록
- 최근 국제유가의 급락은 향후 물가상승률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서비스물가는 고교 무상교육 확대에 주로 기인하여 전월(0.5%)보다 낮은 0.2%의 상승률을 기록

-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근원물가도 전월(0.4%)에 이어 0.1%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

품목별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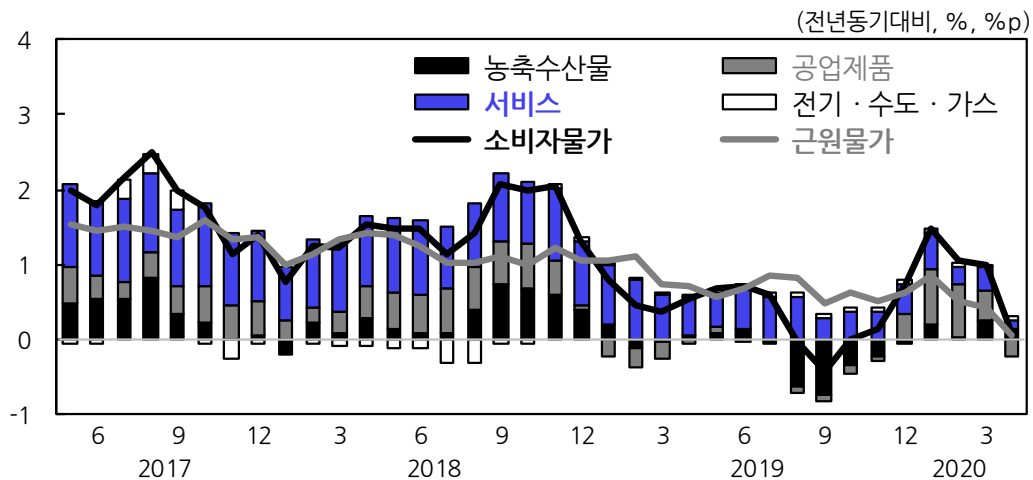
| | 가중치 | 2017 | 2018 | 2019 | | | | 2020 | | | |
|--------------------|---------|------|------|------|----------------|----------------|----------------|---------------|----------------|----------------|----------------|
| | | 연간 | 연간 | 연간 | 2/4 | 3/4 | 4/4 | 1/4 | 2월 | 3월 | 4월 |
| 소비자물가 | 1,000.0 | 1.9 | 1.5 | 0.4 | 0.7 (0.4) | 0.0 (-0.1) | 0.3 (0.3) | 1.2 (0.5) | 1.1 (0.0) | 1.0 (-0.2) | 0.1 (-0.6) |
| 상품 | 448.5 | 1.9 | 1.3 | -0.3 | 0.3 (0.8) | -1.0 (-0.4) | -0.2 (0.9) | 1.9 (0.6) | 1.8 (-0.1) | 1.6 (-0.5) | -0.1 (-1.0) |
| 농축수산물 | 77.1 | 5.5 | 3.7 | -1.7 | 1.2 (-1.1) | -5.4 (-0.5) | -2.5 (1.3) | 2.0 (2.3) | 0.3 (-1.1) | 3.2 (0.8) | 1.8 (0.1) |
| 공업제품 | 333.1 | 1.4 | 1.3 | -0.2 | 0.0 (1.3) | -0.2 (0.0) | 0.2 (0.4) | 2.0 (0.3) | 2.2 (0.2) | 1.3 (-0.8) | -0.7 (-1.4) |
| 전기·수도·가스 | 38.3 | -1.4 | -2.9 | 1.5 | 1.3 (0.0) | 1.9 (-3.4) | 1.5 (5.1) | 1.5 (0.0) | 1.6 (0.0) | 1.6 (0.0) | 1.4 (-0.2) |
| 서비스 | 551.5 | 2.0 | 1.6 | 0.9 | 0.9 (0.2) | 0.9 (0.2) | 0.7 (-0.2) | 0.6 (0.5) | 0.4 (0.1) | 0.5 (-0.1) | 0.2 (-0.2) |
| 집세 | 93.7 | 1.6 | 0.6 | -0.1 | -0.1 (-0.1) | -0.2 (-0.1) | -0.2 (0.0) | -0.1 (0.1) | -0.1 (0.0) | -0.1 (0.0) | 0.0 (0.0) |
| 공공서비스 | 142.5 | 1.0 | 0.2 | -0.5 | -0.2 (-0.1) | -0.4 (-0.4) | -1.0 (-0.7) | -0.6 (0.6) | -0.6 (-0.1) | -0.6 (-0.2) | -1.6 (-1.1) |
| 개인서비스 | 315.3 | 2.5 | 2.5 | 1.9 | 1.7 (0.4) | 1.7 (0.5) | 1.6 (-0.1) | 1.3 (0.5) | 1.0 (0.2) | 1.1 (0.0) | 1.0 (0.1) |
| 근원물가 ²⁾ | 785.9 | 1.5 | 1.2 | 0.7 | 0.6 (0.2) | 0.7 (0.1) | 0.6 (-0.1) | 0.6 (0.4) | 0.5 (0.1) | 0.4 (-0.2) | 0.1 (-0.2) |
| 생활물가 | 532.8 | 2.5 | 1.6 | 0.2 | 0.7 (0.7) | -0.3 (-0.2) | 0.3 (0.7) | 1.9 (0.7) | 1.7 (0.1) | 1.8 (-0.1) | 0.3 (-1.1) |

주: 1) () 안은 전기대비 상승률(%).

2) 근원물가=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 추이 및 부문별 기여도



자료: 통계청.

■ 1/4분기 수출입물가는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하락세를 지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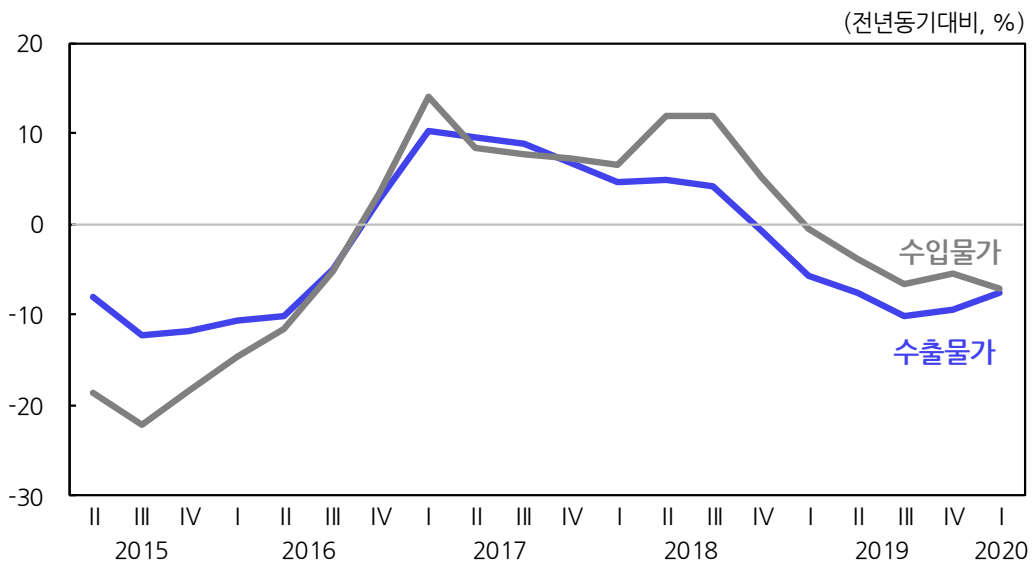
- 수출물가(계약통화기준)는 반도체가격의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전분기(-9.4%)보다 높은 -7.7%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3월에는 석탄 및 석유제품 가격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폭이 확대(-7.4% → -9.9%)됨.

- 반도체(가중치=135.3, 전년동기대비, %): ('19.3/4) -36.1 → (4/4) -33.2 → ('20.1/4) -20.4
- 석탄 및 석유제품(가중치=96.0, 전년동기대비, %): ('19.3/4) -14.3 → (4/4) -7.7 → ('20.1/4) -16.7
- 원화기준 수출물가는 전분기(-5.8%)보다 높은 전년동기대비 -2.6%의 상승률을 기록

- 수입물가(계약통화기준)는 석탄 및 석유제품 가격의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전분기(-5.4%)보다 낮은 -7.1%의 상승률을 기록

- 석탄 및 석유제품(가중치=53.4, 전년동기대비, %): ('19.3/4) -21.5 → (4/4) -12.9 → ('20.1/4) -14.2
- 원화기준 수입물가도 전분기(-1.7%)보다 낮은 -2.1%의 상승률을 기록

수출입물가(계약통화기준)



자료: 한국은행.

수출입물가 및 환율

(전년동기대비, %)

| | 가중치 | 2017 | 2018 | 2019 | | | | 2020 ^p | | | |
|-----------------------|---------|------|------|------|----------------|-----------------|----------------|-------------------|----------------|-----------------|------------------|
| | | 연간 | 연간 | 연간 | 2/4 | 3/4 | 4/4 | 1/4 ^p | 1월 | 2월 | 3월 ^p |
| 수출물가 | 1,000.0 | 8.8 | 3.2 | -8.2 | -7.7 (-1.5) | -10.1 (-2.5) | -9.4 (-1.9) | -7.7 (-2.0) | -5.7 (0.2) | -7.4 (-1.3) | -9.9 (-3.1) |
| 원화기준 | 1,000.0 | 6.1 | 0.8 | -3.4 | -0.9 (1.9) | -4.8 (-0.4) | -5.8 (-3.4) | -2.6 (-0.7) | -2.5 (-0.7) | -2.0 (0.9) | -3.3 (-1.1) |
| 수입물가 | 1,000.0 | 9.3 | 8.8 | -4.1 | -3.8 (0.4) | -6.6 (-2.8) | -5.4 (-0.9) | -7.1 (-3.9) | -0.6 (0.1) | -6.3 (-3.6) | -14.1 (-7.3) |
| 원재료 | 296.6 | 27.4 | 19.4 | -5.3 | -4.5 (1.1) | -9.6 (-4.7) | -8.6 (-2.1) | -15.8 (-10.8) | -0.8 (-0.2) | -14.3 (-9.1) | -31.5 (-19.5) |
| 원화기준 | 1,000.0 | 6.5 | 6.3 | 0.8 | 3.1 (3.8) | -1.1 (-0.6) | -1.7 (-2.4) | -2.1 (-2.7) | 2.7 (-0.8) | -1.0 (-1.4) | -7.7 (-5.2) |
| 원/달러 환율 ¹⁾ | - | -2.6 | -2.7 | 5.9 | 8.1 (3.6) | 6.4 (2.3) | 4.3 (-1.5) | 6.1 (1.5) | 3.8 (-1.0) | 6.4 (2.5) | 7.9 (2.2) |

주: 1) 평균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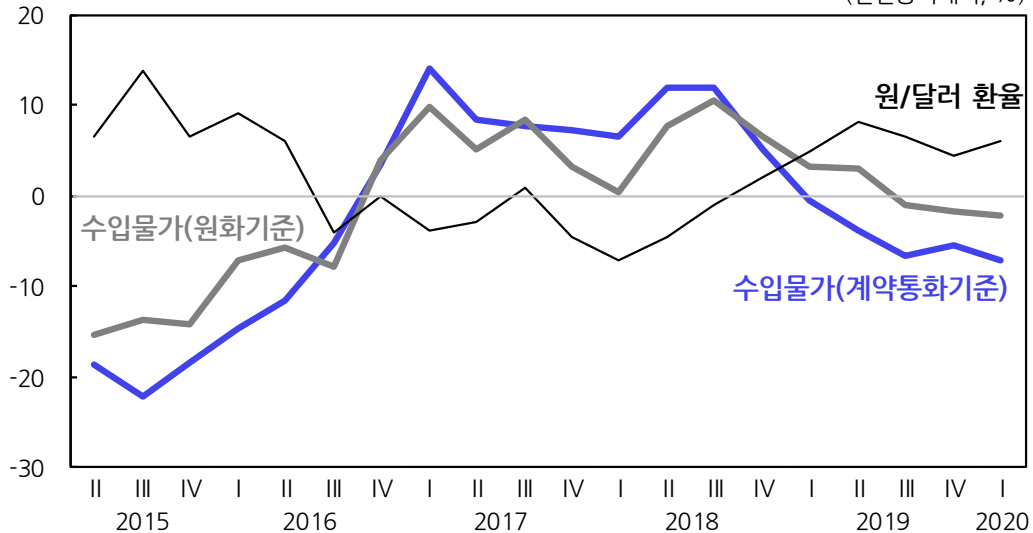
2) () 안은 전기대비 상승률(%).

3) p는 잠정치(단, 원/달러 환율은 제외).

자료: 한국은행.

환율 및 수입물가

(전년동기대비, %)



주: 원/달러 환율은 평균기준.

자료: 한국은행.

■ 1/4분기 생산자물가는 전분기(0.0%)보다 높은 0.4%의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3월에는 공산품가격을 중심으로 -0.5%의 하락으로 전환됨.

- 농림수산품은 농산물가격(-1.9% → 2.7%)이 상승으로 전환되고 수산물가격(4.6% → 17.1%)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분기(0.0%)보다 높은 5.5%의 상승률을 기록
- 공산품은 전분기(-1.3%)보다 높은 -0.9%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3월 중 석탄 및 석유제품 가격의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전월(-0.5%)보다 낮은 -2.4%의 하락을 기록
- 서비스물가는 1.3% 상승하며 전분기(1.2%)와 유사한 상승률을 유지

생산자물가

(전년동기대비, %)

| | 가중치 | 2017 | 2018 | 2019 | | | 2020 ^p | | | | |
|-------|---------|------|------|------|----------------|----------------|-------------------|------------------|---------------|----------------|-----------------|
| | | 연간 | 연간 | 연간 | 2/4 | 3/4 | 4/4 | 1/4 ^p | 1월 | 2월 | 3월 ^p |
| 생산자물가 | 1,000.0 | 3.5 | 1.9 | 0.0 | 0.4 (0.5) | -0.6 (0.0) | 0.0 (-0.1) | 0.4 (0.0) | 1.1 (0.4) | 0.7 (-0.3) | -0.5 (-0.8) |
| 농림수산물 | 35.7 | 6.4 | 3.6 | -2.3 | -1.1 (-0.6) | -7.2 (1.8) | 0.0 (-0.3) | 5.5 (4.6) | 5.4 (3.4) | 5.7 (-3.1) | 5.4 (1.2) |
| 공산품 | 503.4 | 4.8 | 2.2 | -1.0 | -0.4 (0.7) | -1.7 (-0.4) | -1.3 (-0.3) | -0.9 (-0.9) | 0.2 (-0.1) | -0.5 (-0.5) | -2.4 (-1.4) |
| 서비스 | 398.1 | 1.4 | 1.4 | 1.2 | 1.3 (0.5) | 1.2 (0.2) | 1.2 (0.0) | 1.3 (0.6) | 1.7 (0.7) | 1.4 (0.0) | 1.0 (-0.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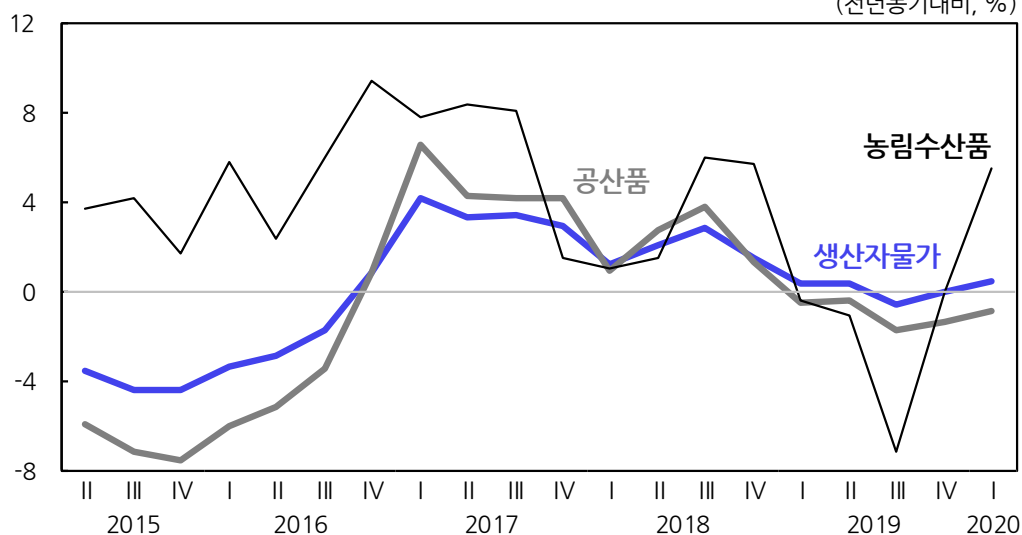
주: 1) () 안은 전기대비 상승률(%).

2) p는 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전년동기대비, %)



■ 1/4분기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상승세가 확대되었으나, 최근에는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음.

●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분기(0.85%)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전기대비 1.63%의 상승률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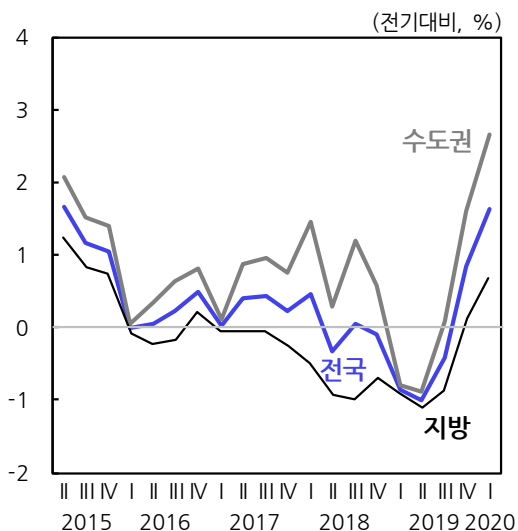
- 전국 매매가격(전기대비, %): ('19.3/4) -0.41 → (4/4) 0.85 → ('20.1/4) 1.63
- 수도권 매매가격(전기대비, %): ('19.3/4) 0.07 → (4/4) 1.61 → ('20.1/4) 2.64
- 지방 매매가격(전기대비, %): ('19.3/4) -0.87 → (4/4) 0.13 → ('20.1/4) 0.68

●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국적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며 전기대비 1.10% 상승

- 전국 전세가격(전기대비, %): ('19.3/4) -0.42 → (4/4) 0.74 → ('20.1/4) 1.10
- 수도권 전세가격(전기대비, %): ('19.3/4) 0.00 → (4/4) 1.37 → ('20.1/4) 1.51
- 지방 전세가격(전기대비, %): ('19.3/4) -0.80 → (4/4) 0.14 → ('20.1/4) 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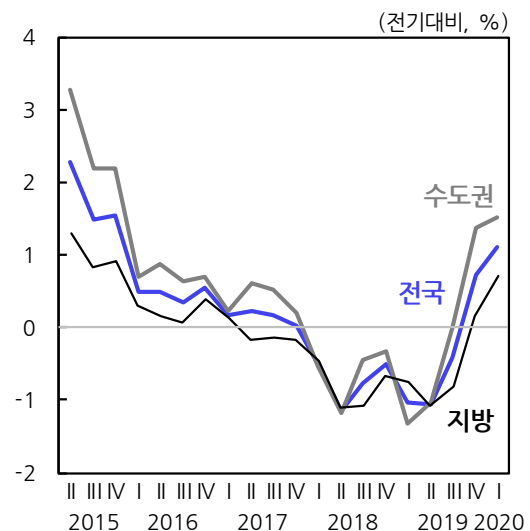
● 반면, 4월 아파트 매매가격(0.79% → 0.38%)과 전세가격(0.31% → 0.19%)의 상승세는 둔화된 모습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 한국감정원.

아파트 전세가격



■ 1/4분기 지가는 전분기(1.01%)보다 낮은 전기대비 0.92%의 상승률을 기록

- 서울(1.23%), 경기(1.07%), 부산(0.83%)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지가 상승세가 완만해짐.
- 3월에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

지가

(전기대비, %)

| | 2017 | 2018 | 2019 | | | | 2020 | | | |
|-----|------|------|-------|-------|-------|-------|-------|-------|-------|-------|
| | 연간 | 연간 | 연간 | 2/4 | 3/4 | 4/4 | 1/4 | 1월 | 2월 | 3월 |
| 전 국 | 3.88 | 4.58 | 3.91 | 0.97 | 0.99 | 1.01 | 0.92 | 0.33 | 0.32 | 0.27 |
| 서 울 | 4.31 | 6.11 | 5.29 | 1.27 | 1.47 | 1.45 | 1.23 | 0.46 | 0.43 | 0.34 |
| 경 기 | 3.45 | 4.42 | 4.29 | 1.06 | 1.07 | 1.11 | 1.07 | 0.36 | 0.37 | 0.34 |
| 인 천 | 3.10 | 3.59 | 4.03 | 0.94 | 1.01 | 1.06 | 1.06 | 0.35 | 0.36 | 0.34 |
| 세 종 | 7.01 | 7.42 | 4.95 | 1.46 | 1.27 | 0.95 | 1.16 | 0.42 | 0.43 | 0.30 |
| 부 산 | 6.51 | 5.74 | 3.76 | 0.90 | 0.79 | 1.02 | 0.83 | 0.32 | 0.31 | 0.20 |
| 제 주 | 5.46 | 4.99 | -1.77 | -0.14 | -0.73 | -1.34 | -0.94 | -0.31 | -0.31 | -0.32 |

자료: 국토교통부.

10. 금융시장

1/4분기 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원화가치, 주가 및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

■ 1/4분기 원화가치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 하락하는 모습

● 원/달러 환율은 1,217.4원을 기록하며 전분기 말(1,156.4원)에 비해 5.3% 상승

● 한편, 4월 말 원/달러 환율은 전월 말(1,217.4원)과 유사한 1,218.2원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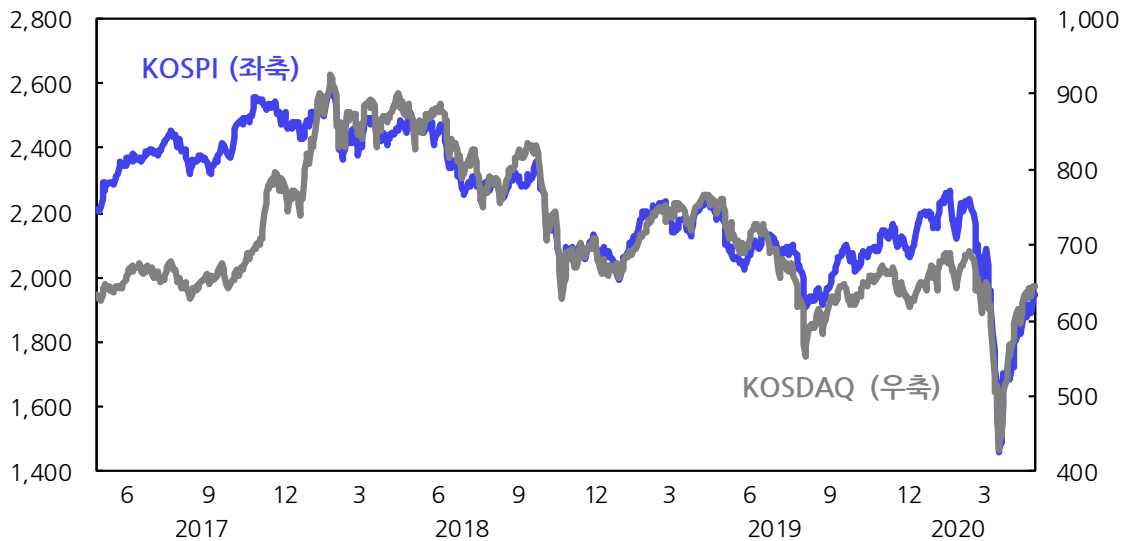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1/4분기 주식시장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

- 종합주가지수는 전분기 말(2,197.7)에 비해 20.1% 하락한 1,754.6을 기록
- 다만, 4월 종합주가지수는 경기부양책 등으로 전월 말(1,754.6)에 비해 11.0% 상승한 1,947.6을 기록

KOSPI 및 KOSDAQ 지수



자료: 한국거래소.

- 1/4분기 외국인 주식투자는 전분기(2.6조원 순매도)보다 큰 폭으로 확대된 16.7조원의 순매도를 기록

주식시장 거래 현황

(기말기준)

| | | 2018 | | | 2019 | | | | 2020 | |
|----------------------|-------|----------|---------|----------|---------|--------|----------|----------|-----------|----------|
| |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1/4 | 4월 |
| 거래대금 ¹⁾ | | 488.5 | 339.4 | 344.3 | 317.2 | 318.8 | 285.7 | 305.8 | 502.5 | 216.1 |
| 투자자예탁금 ²⁾ | | 26.9 | 27.0 | 24.9 | 25.0 | 24.7 | 25.4 | 27.3 | 43.1 | 42.7 |
| 외국인순매수 ³⁾ | 전체 | -2,873.0 | 1,791.5 | -4,093.5 | 5,087.9 | -138.2 | -1,736.0 | -2,620.4 | -16,685.7 | -4,866.9 |
| | KOSPI | -3,433.8 | 1,712.6 | -3,694.3 | 4,468.8 | 623.6 | -1,125.1 | -3,132.2 | -15,505.6 | -4,096.0 |
| | 코스닥 | 560.8 | 78.9 | -399.2 | 619.1 | -761.7 | -610.9 | 511.8 | -1,180.1 | -771.0 |

주: 1) 거래대금(코스닥 시장은 제외)은 기간 중 누계(조원).

2) 투자자 예탁금은 말잔(조원).

3) 외국인 순매수는 기간 중 누계(십억원).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 1/4분기 금리는 경기침체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강화와 유동성 공급정책 등으로 인해 하락함.

● 1/4분기 국고채(3년물 기준) 금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확대되면서 전분기 말 대비 29bp 하락한 1.07%를 기록

● 4월 국고채 금리는 유동성 공급정책 등으로 인해 하락하며 1.01%를 기록

－ 다만, 회사채(3년,AA-)는 신용위험이 확대되면서 전년 말(1.94%)보다 28bp 상승한 2.22%를 기록

금리

(기말기준, %, %p)

| | 2018 | | | | 2019 | | | | 2020 | |
|-------------------------------|------|------|------|-------|-------|-------|-------|-------|------|------|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1/4 | 4월 |
| Call(1일) | 1.54 | 1.57 | 1.65 | 1.89 | 1.81 | 1.83 | 1.58 | 1.39 | 0.80 | 0.76 |
| RP(1일) | 1.72 | 1.75 | 1.89 | 1.98 | 1.91 | 1.90 | 1.64 | 1.43 | 0.85 | 0.81 |
| CP(91일물) | 1.82 | 1.82 | 1.82 | 1.97 | 1.98 | 1.92 | 1.72 | 1.69 | 2.20 | 2.01 |
| COFIX(신규취급액) | 1.82 | 1.84 | 1.83 | 2.04 | 1.94 | 1.78 | 1.57 | 1.60 | 1.26 | 1.20 |
| 국고채(3년) | 2.22 | 2.12 | 2.01 | 1.82 | 1.69 | 1.47 | 1.30 | 1.36 | 1.07 | 1.01 |
| 국고채(5년) | 2.43 | 2.35 | 2.18 | 1.88 | 1.71 | 1.51 | 1.35 | 1.48 | 1.30 | 1.25 |
| 국고채(10년) | 2.62 | 2.56 | 2.36 | 1.95 | 1.83 | 1.60 | 1.46 | 1.68 | 1.55 | 1.52 |
| 국고채(30년) | 2.62 | 2.55 | 2.30 | 1.93 | 1.87 | 1.63 | 1.42 | 1.68 | 1.67 | 1.66 |
| 회사채(3년,AA-) | 2.80 | 2.77 | 2.45 | 2.29 | 2.16 | 1.97 | 1.80 | 1.94 | 2.08 | 2.22 |
| 회사채(3년,BBB-) | 9.01 | 8.98 | 8.52 | 8.36 | 8.24 | 8.08 | 7.90 | 8.05 | 8.29 | 8.46 |
| 장단기Spread(call) ¹⁾ | 0.68 | 0.55 | 0.36 | -0.07 | -0.12 | -0.36 | -0.28 | -0.03 | 0.27 | 0.25 |
| 장단기Spread(RP) ²⁾ | 0.50 | 0.37 | 0.12 | -0.16 | -0.22 | -0.43 | -0.34 | -0.07 | 0.22 | 0.20 |
| 신용Spread ³⁾ | 0.58 | 0.64 | 0.44 | 0.47 | 0.47 | 0.50 | 0.50 | 0.58 | 1.01 | 1.21 |
| 신용Spread ⁴⁾ | 6.22 | 6.21 | 6.07 | 6.07 | 6.07 | 6.11 | 6.10 | 6.11 | 6.21 | 6.24 |

주: 1) 국고채-Call. 2) 국고채-RP. 3)회사채(AA-)-국고채. 4) 회사채(BBB-)-회사채(AA-).
 자료: 한국은행.

■ 1/4분기 은행대출은 유동성 공급 정책 등으로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

- 기업대출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13.1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된 32.3조원 증가를 기록

－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13.6조원과 18.7조원 증가하며 전년동기(각각 0.8조원, 12.3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대폭 확대

- 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22.6조원 증가하며 전년동기(6.5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됨.

－ 주택담보대출은 전년동기(7.9조원)에 비해 증가한 18.4조원을 기록하였으며, 기타대출도 전년동기(-1.5조원)에 비해 증가한 4.2조원을 기록

－ 가계대출 금리도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라 하락하는 흐름을 보임.

* COFIX(신규취급액, %):

(‘19.1/4) 1.94 → (2/4) 1.78 → (3/4) 1.57 → (4/4) 1.60 → (‘20.1/4) 1.26

* 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기준, %):

(‘19.1/4) 3.54 → (2/4) 3.41 → (3/4) 3.02 → (4/4) 2.98 → (‘20.1/4) 2.91

- 회사채 순발행규모는 4.7조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1.3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주식발행 또한 4.2조원 증가하며 전년동기(-1.5조원)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

은행여신 및 기업금융

(전기대비 증감액, 조원)

| | 2018 | | | 2019 | | | | | 2020 |
|----------------------|-------|------|------|-------|------|------|------|------|------|
| | 연간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1/4 |
| 은행대출 | 103.5 | 30.9 | 22.5 | 105.6 | 19.6 | 29.5 | 27.9 | 28.5 | 54.9 |
| 대 기 업 | 5.0 | 1.2 | -0.1 | -2.4 | 0.8 | 0.0 | -2.9 | -0.3 | 13.6 |
| 중소기업 | 37.6 | 13.8 | 2.7 | 47.3 | 12.3 | 14.7 | 12.8 | 7.5 | 18.7 |
| 가 계 ¹⁾ | 60.8 | 15.8 | 19.9 | 60.7 | 6.5 | 14.9 | 18.0 | 21.3 | 22.6 |
| 주택담보 ¹⁾ | 37.8 | 10.1 | 13.2 | 45.7 | 7.9 | 10.6 | 12.1 | 15.1 | 18.4 |
| 기타 | 22.7 | 5.6 | 6.6 | 15.1 | -1.5 | 4.4 | 6.0 | 6.2 | 4.2 |
| CP순발행 ²⁾ | 42.7 | 15.0 | 2.6 | 44.9 | 13.1 | 14.7 | 9.9 | 7.2 | 32.3 |
| 회사채순발행 ³⁾ | 0.8 | 0.7 | -2.0 | -1.3 | 1.3 | 0.2 | 0.0 | -2.8 | 4.7 |
| 주식발행 | 5.2 | 5.6 | 6.6 | 15.1 | -1.5 | 4.4 | 6.0 | 6.2 | 4.2 |

주: 1)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관련 대출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론 포함.

2) 종금사, 증권사 및 은행신탁 취급분.

3) 일반기업 발행분, 공모회사채 기준(ABS제외, P-CBO 포함).

자료: 한국은행.

■ 2019년 4/4분기 가계신용은 전분기 말(1,572.5조원) 대비 27.5조원 증가한 1,600.1조원을 기록하면서 증가세를 지속하는 모습

● 가계대출 잔액은 22.9조원 증가한 1,504.4조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19.4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됨.

● 전체 주택대출은 8.2조원 증가하며 전년동기(9.7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축소

- 예금은행의 주택대출은 10.7조원 증가하며 전년동기(10.8조원)와 유사한 수준의 증가폭을 기록하였으나,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주택대출은 2.4조원 감소하며 전년동기(-1.1조원)에 비해 감소폭이 확대되는 등 가계대출의 구성이 비은행에서 은행으로 조정되는 모습

● 2020년 1/4분기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20.6조원 증가하며 전년동기(1.8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큰 폭으로 확대됨.

가계신용

(기간 중 증감액, 조원)

| | 2018 | | | | 2019 | | | | | |
|--------------------------------|------|------|------|------|-------|------|------|------|------|----------|
| | 연간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4/4분기 잔액 |
| 가계신용 | 85.9 | 24.2 | 21.5 | 22.8 | 63.4 | 3.2 | 16.8 | 15.8 | 27.6 | 1,600.1 |
| 가계대출 | 76.5 | 22.0 | 18.0 | 19.4 | 57.8 | 5.1 | 16.3 | 13.4 | 22.9 | 1,504.4 |
| 예금은행 | 52.4 | 12.8 | 14.2 | 17.2 | 54.6 | 5.6 | 13.3 | 18.7 | 17.0 | 767.7 |
| 주택대출 ¹⁾ | 30.1 | 6.1 | 8.6 | 10.8 | 39.7 | 7.0 | 9.0 | 13.0 | 10.7 | 534.0 |
| 기타대출 ²⁾ | 22.4 | 6.8 | 5.6 | 6.4 | 15.0 | -1.3 | 4.3 | 5.6 | 6.3 | 233.8 |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 6.8 | 2.6 | 0.0 | 3.5 | -4.4 | -3.5 | 0.5 | -1.9 | 0.5 | 316.3 |
| 주택대출 | -3.9 | -0.8 | -1.5 | -1.1 | -10.4 | -3.5 | -2.2 | -2.4 | -2.4 | 99.8 |
| 기타대출 | 10.8 | 3.4 | 1.5 | 4.6 | 6.0 | 0.0 | 2.7 | 0.5 | 2.9 | 216.5 |
| 상호저축은행 | 2.5 | 0.5 | 0.6 | 0.9 | 2.5 | 0.3 | 0.8 | 0.7 | 0.8 | 26.0 |
| 신용협동조합 | -1.4 | -0.5 | -0.4 | 0.1 | -0.7 | -0.4 | 0.1 | -0.3 | -0.2 | 35.7 |
| 상호금융 | 7.6 | 2.7 | 1.2 | 2.9 | 0.6 | -0.2 | 1.2 | -0.8 | 0.4 | 188.5 |
| 새마을금고 | -1.9 | -0.1 | -1.4 | -0.6 | -6.8 | -3.2 | -1.6 | -1.5 | -0.5 | 64.6 |
| 신탁·우체국예금 | 0.2 | 0.1 | 0.1 | 0.1 | -0.1 | -0.1 | 0.0 | -0.1 | 0.1 | 1.4 |
| 기타 금융기관 ⁴⁾ | 17.3 | 6.6 | 3.8 | -1.3 | 7.7 | 3.0 | 2.5 | -3.3 | 5.5 | 420.5 |
| 판매신용 | 9.4 | 2.1 | 3.6 | 3.4 | 5.6 | -1.9 | 0.5 | 2.4 | 4.6 | 95.7 |
| 주택금융공사 등의 주택담보대출 ⁵⁾ | 10.1 | 3.4 | 2.2 | 2.2 | 7.7 | 1.7 | 2.2 | -0.4 | 4.2 | 159.2 |

주: 1) 주택대출은 주택관련대출 포함.

2) 기타대출은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 기타 적금·주식 담보대출.

3) 은행신탁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포함.

4) 기타 금융기관은 보험기관, 연금, 여신전문기관, 공적금융기관, 기타금융중개회사(증권사, 대부사업자 등), 기타 기관(한국장학재단 등) 포함.

5) 주택금융공사 등의 주택담보대출은 주금공 모기지론의 양도분은 예금취급기관에서 취급한 것일지라도 공적금융 기관 등 기타금융기관의 대출잔액에 나뉘어 포함.

자료: 한국은행.

가계신용 중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

(기간 중 증감액, 조원)

| | 2018 | | | | 2019 | | | | | |
|------------------------|------|------|------|------|------|------|------|------|------|----------|
| | 연간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4/4분기 잔액 |
| 기타 금융기관 | 17.3 | 6.6 | 3.8 | -1.3 | 7.7 | 3.0 | 2.5 | -3.3 | 5.5 | 420.5 |
| 보험기관 | 5.2 | 1.2 | 1.4 | 2.1 | -0.9 | -1.4 | 0.4 | -0.8 | 0.8 | 119.1 |
| 연금기금 | 1.0 | 0.1 | 0.2 | 0.4 | 0.2 | 0.2 | 0.0 | -0.1 | 0.2 | 14.8 |
| 여신전문기관 | 4.5 | 1.7 | 0.4 | 0.0 | 1.7 | -0.1 | 0.8 | 0.4 | 0.7 | 66.2 |
| 공적금융기관 | 1.0 | 0.6 | -0.2 | -0.2 | 3.4 | 0.9 | 1.4 | 0.5 | 0.7 | 41.6 |
| 기타금융중개회사 ¹⁾ | 5.9 | 3.6 | 1.7 | -3.2 | 3.7 | 3.1 | 0.5 | -3.6 | 3.6 | 166.7 |
| 기타 ²⁾ | -0.3 | -0.6 | 0.4 | -0.5 | -0.4 | 0.3 | -0.5 | 0.3 | -0.5 | 12.1 |

주: 1) 증권사, 자산유동화회사, 대부사업자 등.

2) 한국장학재단 등.

자료: 한국은행.

은행 및 비은행예금기관의 가계대출

(기간 중 증감액, 조원)

| | 2018 | | | 2019 | | | | | 2020 |
|---------|------|------|------|------|------|------|------|------|-------------------|
| | 연간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1/4 ¹⁾ |
| 은 행 | 60.5 | 15.8 | 19.8 | 60.8 | 6.5 | 14.9 | 18.0 | 21.4 | 22.6 |
| 제2금융권 | 14.6 | 0.7 | 5.2 | -4.5 | -4.7 | 1.3 | -2.6 | 1.5 | -2.0 |
| 상호금융 | 2.5 | -1.2 | 2.1 | -8.0 | -4.0 | -0.2 | -3.0 | -0.8 | -3.8 |
| 신 협 | -2.4 | -0.7 | -0.1 | -1.6 | -0.6 | -0.1 | -0.5 | -0.4 | -1.1 |
| 농 협 | 6.4 | 0.8 | 2.4 | -0.2 | -0.3 | 1.1 | -1.1 | 0.0 | -1.2 |
| 수 협 | -0.2 | -0.1 | 0.2 | 0.0 | 0.0 | 0.1 | -0.1 | 0.0 | -0.2 |
| 산 림 | 0.6 | 0.2 | 0.2 | 0.5 | 0.1 | 0.2 | 0.1 | 0.1 | 0.1 |
| 새마을금고 | -2.0 | -1.4 | -0.6 | -6.7 | -3.1 | -1.6 | -1.5 | -0.5 | -1.5 |
| 보 험 | 5.6 | 1.2 | 2.1 | -0.9 | -0.8 | 0.0 | -0.8 | 0.7 | 0.1 |
| 저축은행 | 2.3 | 0.6 | 0.7 | 2.4 | 0.2 | 0.7 | 0.9 | 0.6 | 0.7 |
| 여 전 사 | 4.3 | 0.1 | 0.1 | 1.9 | -0.2 | 0.8 | 0.4 | 0.9 | 1.1 |
| 쫄금융권 합계 | 75.1 | 16.5 | 24.9 | 56.2 | 1.8 | 16.2 | 15.4 | 22.8 | 20.6 |

주: 1) 속보치 기준.

2)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 포함, 금감원 속보치 기준으로 한국은행 증감분과 다르게 향후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금융위원회 가계대출 동향.

-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한 가운데 은행 이외의 가계대출은 낮은 증가세를 지속함.

- 4/4분기 예금은행 대출은 전년동기대비 7.7% 증가하며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

* 예금은행 가계대출(전년동기대비, %): ('19.1/4) 7.5 → (2/4) 7.4 → (3/4) 7.9 → (4/4) 7.7

-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전년동기대비 1.4% 감소하며 전분기(-0.5%)에 비해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나,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은 전년동기대비 1.9%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분기(0.2%)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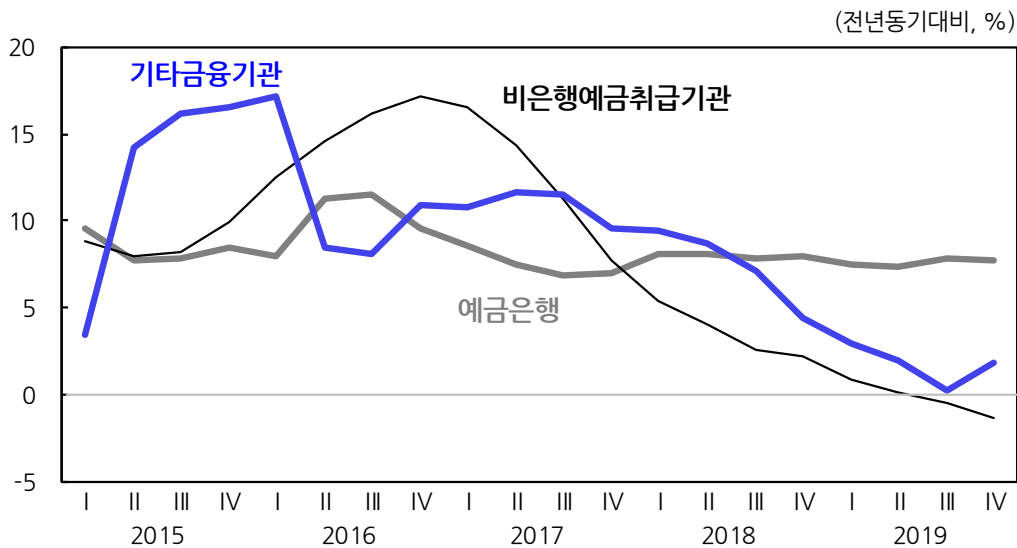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전년동기대비, %):

('18.3/4) 2.6 → (4/4) 2.2 → ('19.1/4) 0.8 → (2/4) 0.2 → (3/4) -0.5 → (4/4) -1.4

*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전년동기대비, %):

('18.3/4) 7.1 → (4/4) 4.4 → ('19.1/4) 3.0 → (2/4) 1.9 → (3/4) 0.2 → (4/4) 1.9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11. 재정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례 추경 편성으로 인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

■ 2019년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지출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폭도 크게 확대됨.

● 통합재정수지는 전년의 31.2조원 흑자에서 12.0조원 적자로 전환

- 통합재정수입은 443.9조원으로 전년 결산대비 1.3% 증가
-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는 455.9조원으로 전년 대비 48.8조원 증가하며 12.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흑자(1.0조)를 예측했던 추경상의 계획보다 약 13.0조원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됨.

● 관리재정수지도 전년보다 적자가 43.8조원 확대된 -54.4조원을 기록

통합재정수지

(조원, %)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 | | | | | 추경 | 결산 |
| 통합재정수입 ¹⁾ | 339.2 | 371.3 | 403.8 | 438.3 | - | 443.9 |
| (전년대비 증가율) | (5.7) | (9.5) | (8.8) | (8.5) | - | (1.3) |
| 지출 및 순융자 | 339.4 | 354.4 | 379.8 | 407.1 | - | 455.9 |
| (전년대비 증가율) | (8.6) | (4.4) | (7.2) | (7.2) | - | (12.0) |
| 통합재정수지 | -0.2 | 16.9 | 24.0 | 31.2 | 1.0 | -12.0 |
| [GDP 대비] | [-0.0] | [1.0] | [1.3] | [1.6] | [0.0] | [-0.6] |
| 관리재정수지 | -38.0 | -22.7 | -18.5 | -10.6 | -42.3 | -54.4 |
| [GDP 대비] | [-2.3] | [-1.3] | [-1.0] | [-0.6] | [-2.2] | [-2.8] |

주: 1) 용자수입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 국세수입은 세입예산을 1.3조원 하회한 293.5조원을 기록하여 전년 국세수입보다 0.1조원 감소

● 국세수입은 상반기 법인실적 부진으로 인해 예산 대비 1.3조원 감소한 293.5조원을 기록

－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및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추경예산 대비 3.2조원 증가

－ 법인세는 2019년 상반기 법인실적 부진으로 추경예산 대비 7.1조원 감소

－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개선으로 인해 추경예산 대비 2.1조원 증가

● 결산상잉여금은 4.7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금년도 이월액 2.6조원을 제외한 세 계잉여금은 2.1조원(일반회계 0.1조원, 특별회계 2.1조원)으로 집계

● 총세출 불용액은 7.9조원(일반회계 4.1조원, 특별회계 3.8조원)이 발생하면서 전년 대비 0.7조원 감소

● 한편, 2020년 2차 추경의 국세수입 목표치는 291.2조원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본예산 대비 0.8조원 감소

－ 2020년 3월까지의 국세수입은 69.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5조원 감소하였으며, 진도율 또한 전년동기대비 2.6%p 하락

국세수입

(조원, %)

| 구 분 | 2017 | | 2018 | | 2019 | | 2020 | |
|-------|-------|-------|-------|-------|-------|------------------|-------------------|---------------------|
| | 추경 | 실적 | 추경 | 실적 | 추경 | 실적 ¹⁾ | 본예산 ²⁾ | 2차 추경 ²⁾ |
| 총국세 | 251.1 | 265.4 | 268.1 | 293.6 | 294.8 | 293.5(-0.0) | 292.0(-0.9) | 291.2(-1.2) |
| 일반회계 | 244.0 | 258.5 | 260.8 | 285.9 | 287.2 | 286.0(0.0) | 284.1(-1.1) | 283.3(-1.4) |
| 소득세 | 69.6 | 75.1 | 72.9 | 84.5 | 80.4 | 83.6(-1.1) | 88.4(10.0) | 88.4(10.0) |
| 법인세 | 57.3 | 59.2 | 63.0 | 70.9 | 79.3 | 72.2(1.7) | 64.4(-18.8) | 64.3(-18.9) |
| 부가가치세 | 62.6 | 67.1 | 67.3 | 70.0 | 68.8 | 70.8(1.2) | 68.9(0.1) | 68.6(-0.3) |
| 특별회계 | 7.1 | 6.9 | 7.3 | 7.7 | 7.6 | 7.4(-3.3) | 7.9(3.9) | 7.9(3.9) |

주: 1) () 안은 2018년 실적대비 2019년 실적 증가율.

2) () 안은 2019년 추경예산대비 2020년 예산(추경) 증가율.

자료: 기획재정부.

■ 2020년 예산은 2차 추경예산 기준으로 총수입 482.2조원과 총지출 531.1조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관리재정수지는 89.4조원 적자를 기록할 예정

● 총수입은 전년 추경예산(476.4조원) 대비 1.2%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총지출은 전년 추경예산(475.4조원) 대비 11.7% 증가하면서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10.5%p 상회함.

- 2차례의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총지출 증가율과 총수입 증가율의 격차가 본예산(6.7%p)에 비해 크게 확대되면서 확장적 기조가 더욱 강화되는 모습

●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48.9조원과 89.4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GDP 대비 비율로는 각각 -2.5%와 -4.5%를 기록하여 2009년 추경편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추경예산의 GDP(2005년 기준)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과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각각 -2.1%와 -5.0%를 기록함.

재정규모 추이

(조원, %)

| 구 분 | 2017 | | 2018 | | 2019 | | 2020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1차 추경 | 2차 추경 |
| 총수입 ¹⁾ (전년대비 증가율) ²⁾ | 414.3 (5.9) <3.3> | 423.1 (8.2) <5.5> | 447.2 (7.9) <5.7> | 447.7 (8.1) <5.8> | 476.1 (6.5) <6.3> | 476.4 (6.5) <6.4> | 481.8 (1.2) <1.1> | 481.6 (1.2) <1.1> | 482.2 (1.3) <1.2> |
| 총지출 (전년대비 증가율) ²⁾ | 400.5 (3.7) <0.4> | 410.1 (6.1) <2.9> | 428.8 (7.1) <4.6> | 432.7 (8.0) <5.5> | 469.6 (9.5) <8.5> | 475.4 (10.9) <9.9> | 512.3 (9.1) <7.8> | 523.1 (11.4) <10.0> | 531.1 (13.1) <11.7> |
| 통합재정수지 | 13.7 | 13.0 | 18.3 | 15.1 | 6.5 | 1.0 | -30.5 | -41.5 | -48.9 |
|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28.3 [-1.6] | -28.9 [-1.6] | -28.5 [-1.5] | -31.4 [-1.6] | -37.6 [-1.9] | -42.3 [-2.2] | -71.5 [-3.5] | -82.0 [-4.1] | -89.4 [-4.5] |
| 국가채무 [GDP 대비] | 682.4 [38.0] | 669.2 [36.9] | 708.2 [37.2] | 700.5 [36.5] | 740.8 [37.1] | 731.5 [37.2] | 805.2 [39.8] | 815.5 [41.2] | 819.0 [41.4] |

주: 1) 용자수입 포함.

2) () 안은 직전년도 본예산대비 증가율(%), < > 안은 직전년도 추경예산대비 증가율(%).

3) 2020년 명목성장을 전망치는 정부 전망기준으로 시산.

자료: 기획재정부.

● 금년 상반기 재정집행은 조기집행 기조가 유지되면서 총 재정집행 관리규모(307.8조원)의 62.0% 수준인 190.9조원을 기록할 전망

- 정부는 2020년 재정집행 관리규모(307.8조원) 중 190.9조원(62.0%)을 상반기에 배정하며 재정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
- 2019년의 재정집행 실적은 집행계획 291.9조원을 9.7조원 초과한 301.6조원(103.3%)을 기록
- 2020년 1차 추경의 집행률은 5월 12일 기준 88.3%(9.9조원 중 8.7조원 집행)를 기록

재정집행 실적(누적 기준)

(조원, %)

| |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²⁾ |
|-------|-------|-------|-------|-------|-------|--------------------|
| 1/4분기 | 실 적 | 92.1 | 89.3 | 87.0 | 94.4 | 108.6 |
| | 재정집행률 | 33.0 | 31.7 | 31.0 | 32.3 | 35.3 |
| 2/4분기 | 실 적 | 169.7 | 166.3 | 174.1 | 190.7 | 190.9 |
| | 재정집행률 | 60.8 | 59.0 | 62.1 | 65.4 | 62.0 |
| 3/4분기 | 실 적 | 222.6 | 219.4 | 232.0 | 246.0 | - |
| | 재정집행률 | 79.7 | 77.9 | 82.8 | 84.3 | - |
| 4/4분기 | 실 적 | 270.3 | 275.1 | 280.7 | 301.6 | - |
| | 재정집행률 | 96.8 | 97.6 | 100.2 | 103.3 | - |

주: 1) 재정집행률은 (실적/재정집행 관리규모)×100.

2) 2020년은 2/4분기는 집행계획.

3) 2019년 총 재정집행 관리규모는 291.9조원, 2020년 총 재정집행 관리규모는 307.8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 2019년 국가채무는 본예산 대비 12.0조원 감소한 728.8조원(GDP 대비 38.1%)을 기록

● 2020년 2차 추가경정예산의 국가채무는 전년 결산 대비 90.2조원 증가한 819.0조원으로 GDP 대비 41.4%를 기록할 전망

- 1차 추경 기준으로, 금융성 채무는 전년 추경예산 대비 14.7조원 증가한 330.9조원, 적자성 채무는 전년 추경예산 대비 69.3조원 증가한 484.6조원을 기록
- 이와 같이 적자성 채무의 증가폭이 금융성 채무의 증가폭을 상회함에 따라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 채무 비중은 전년 결산(56.7%)보다 2.7%p 증가한 59.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1차 추경 기준).
- * 2차 추경에서 3.4조원 규모의 추가 국채발행 계획이 확정되고 금융성 채무의 일부가 적자성 채무로 전환됨에 따라,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국가채무

(조원, %)

| 구 분 | 2016 | 2017 | 2018 | 2019 | | 2020 | | |
|---------------|--------|--------|--------|--------|--------|--------|--------|--------|
| | | | | 본예산 | 결산 | 본예산 | 1차 추경 | 2차 추경 |
| 국가채무 (C=A+B) | 626.9 | 660.2 | 680.5 | 740.8 | 728.8 | 805.2 | 815.5 | 819.0 |
| [GDP 대비] | [36.0] | [36.0] | [35.9] | [37.1] | [38.1] | [39.8] | [41.2] | [41.4] |
| 금융성 채무 (A) | 267.0 | 285.4 | 301.3 | 314.3 | 315.6 | 328.6 | 330.9 | - |
| [GDP 대비] | [15.3] | [15.5] | [15.9] | [15.7] | [16.5] | [16.2] | [16.7] | - |
| - 외환시장 안정용 | 209.8 | 222.3 | 234.9 | 247.3 | - | 260.7 | - | - |
| - 서민주거 안정용 등 | 57.2 | 63.1 | 66.4 | 67.0 | - | 67.9 | - | - |
| 적자성 채무 (B) | 359.9 | 374.8 | 379.2 | 426.5 | 413.2 | 476.6 | 484.6 | - |
| [GDP 대비] | [20.7] | [20.4] | [20.0] | [21.4] | [21.6] | [23.6] | [24.5] | - |
| - 일반회계 적자국채 | 271.3 | 289.6 | 300.4 | 347.9 | - | 397.0 | - | - |
| - 공적자금 국채전환 등 | 88.6 | 85.1 | 78.8 | 78.6 | - | 79.6 | - | - |

주: 1) 2020년 명목성장률 전망치는 정부 전망기준으로 시산.
 자료: 기획재정부.

II

세계경제 동향

1. 개 괄
2. 주요 국가별 경제상황
3. 환율 및 금리
4. 원자재 가격

1. 개괄

최근 주요국의 경제지표가 크게 악화되고 금융시장 불안도 지속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주요국에서 금리인하와 재정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하방 압력은 큰 폭으로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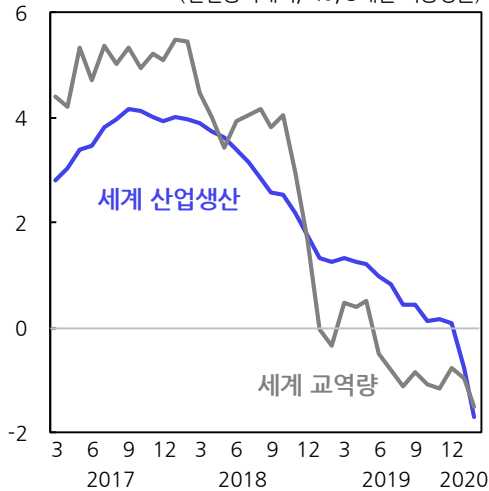
● 대부분의 경기 관련 주요 지표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선행지수들도 기준을 크게 하회하는 등 세계경제 전반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모습

-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반영되면서 세계 산업생산과 교역량은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며 주요국의 제조업과 소비 관련 심리지표도 급락

● 주요국에서 적극적인 완화적 통화정책과 대규모 재정지출을 시행하고 있으나, 세계경기가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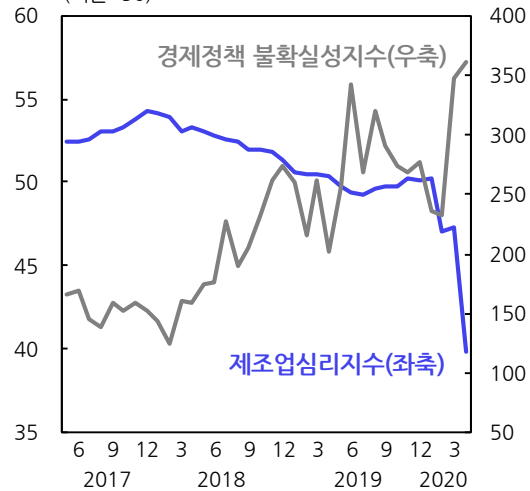
세계 산업생산과 교역량

(전년동기대비, %, 3개월 이동평균)



세계 제조업심리와 경제정책 불확실성

(기준=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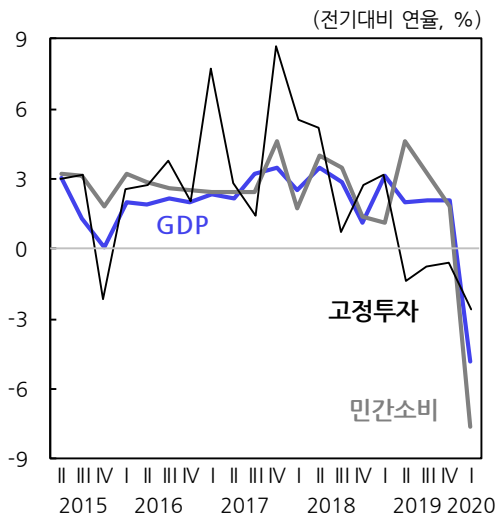


■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내수와 수출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면서 성장률이 급락하였으며, 최근 다수의 지표들은 경기 부진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

● 미국경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었고, 고용상황이 크게 악화되어 향후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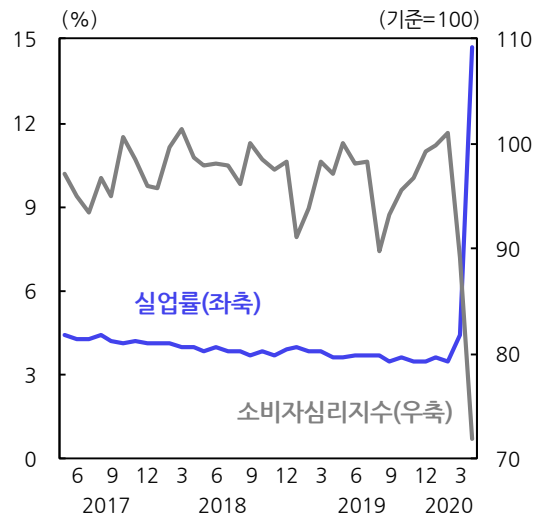
-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2.1%)에 비해 대폭 하락한 -4.8%(전기대비 연율)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민간소비(-5.3%p)와 기업투자(-1.2%p)의 기여도가 큰 폭으로 하락
- 내구재주문 등 경기 선행지표와 기업 및 소비자심리지수가 가파르게 하락하였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업 사태도 이어지고 있음.
- 금리인하를 비롯한 유동성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되었으나, 경기 전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확산되고 있음.

미국의 경제성장률



자료: 미국 상무부; 노동부; 블룸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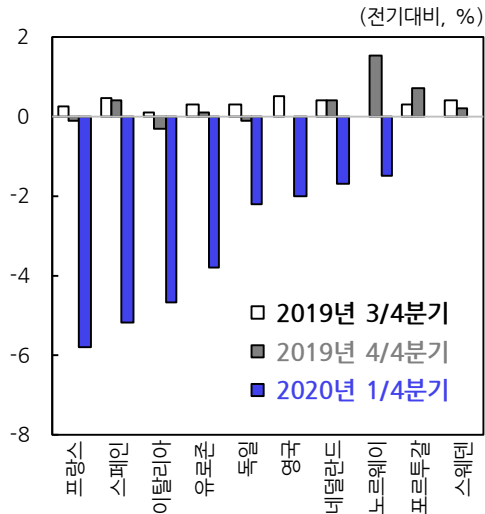
미국의 실업률과 소비자심리



● 유로존은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봉쇄조치가 시행되면서 실물경기가 전반적으로 크게 침체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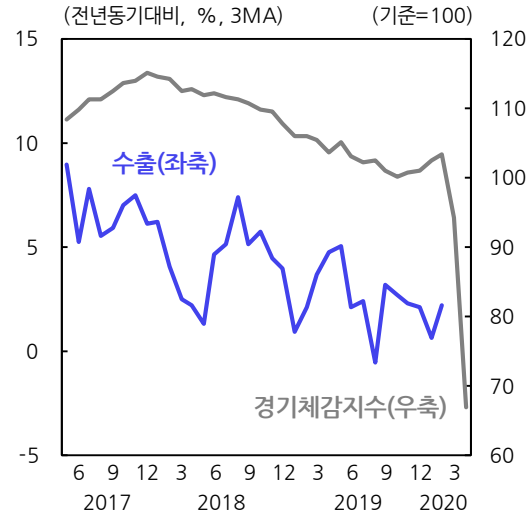
- 프랑스(-5.8%)와 스페인(-5.2%), 이탈리아(-4.7%) 등 지역 내 주요국의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유로존 전체로도 전기대비 -3.8%의 매우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각국 정부의 대응조치로 경제 불안 심리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2/4분기 이후 코로나19의 충격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생산과 소비 및 고용이 크게 악화될 전망

유럽 주요국의 성장률



자료: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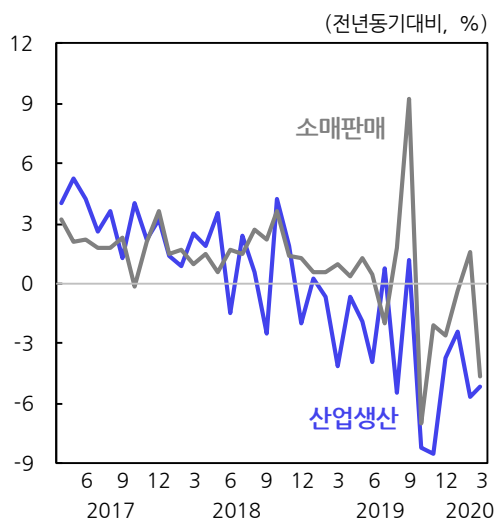
유로존의 수출과 경기체감지수



● 일본경제도 소비와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수출 부진도 심화되는 등 경기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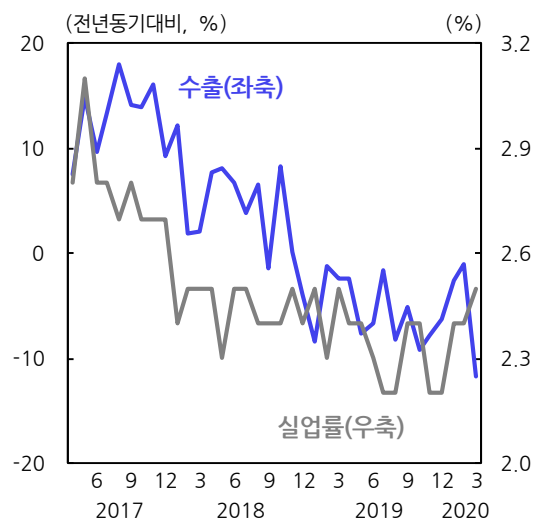
- 작년의 소비세율 인상에 코로나19의 충격까지 중첩되면서 가계 소비와 기업 생산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고 수출 감소폭도 확대되면서 경기 판단이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
- 노동시장 관련 지표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자본재출하와 소비자신뢰지수가 급락하고 있어 가파른 경기하강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일본의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자료: 일본 재무성; 일본 총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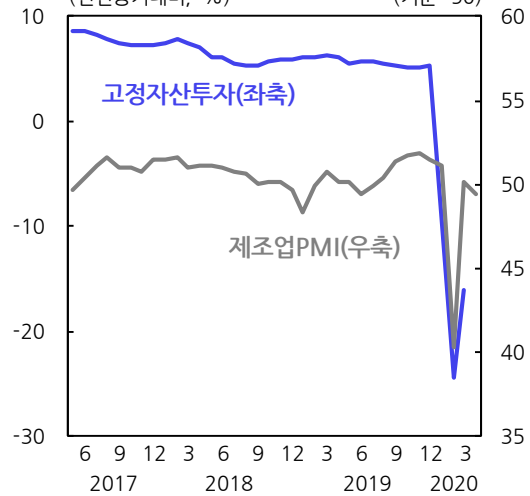
일본의 수출과 실업률



- 3월 이후 경제활동 정상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경제심리 위축과 대외수요 급감으로 경기 하방압력은 여전히 높은 상황임.

중국의 고정자산투자와 제조업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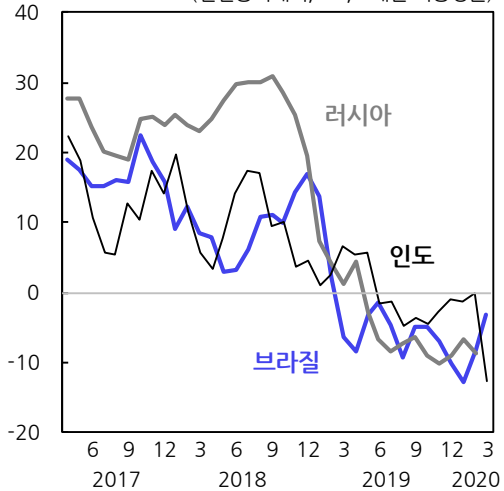
(전년동기대비, %) (기준=50)



자료: CEIC.

주요 신흥국의 수출

(전년동기대비, %, 3개월 이동평균)



자료: 블룸버그.

■ 세계경제 침체 우려에 공급 과잉까지 심화되면서 원자재가격이 급락하였으며, 주요국의 물가도 대내외 수요 부진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냄.

● 국제유가는 주요 산유국의 분쟁으로 공급이 확대된 반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는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크게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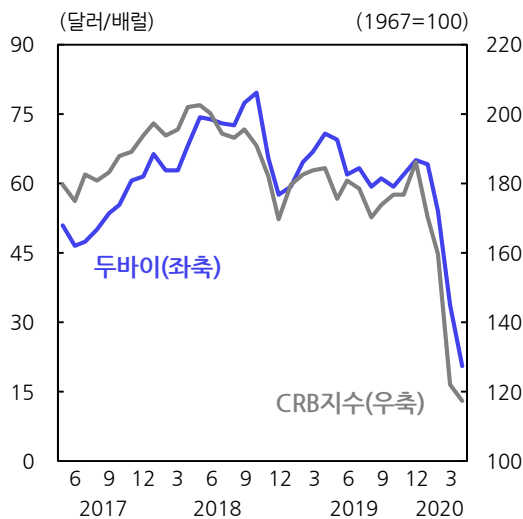
- 농산물 수출 규제로 곡물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산업용 기초금속은 세계경기 악화 우려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냄.

- 다수의 기관들은 올해 원유 공급 과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유가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추세

● 한편,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유가도 급락하는 등 수요 축소 공급 축 요인이 모두 작용하여 저물가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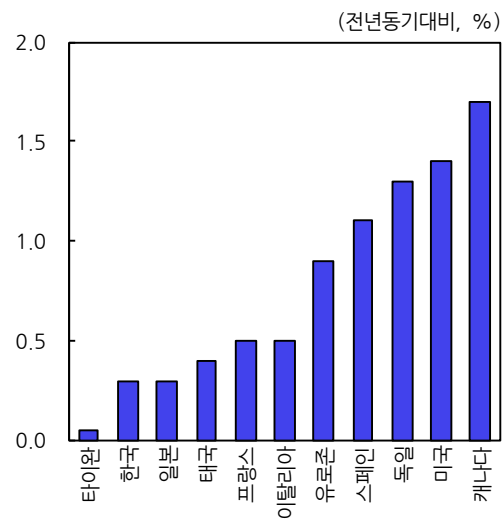
-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아진 가운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물가도 목표 수준을 크게 하회

유가와 상품가격지수



자료: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 통계청; 블룸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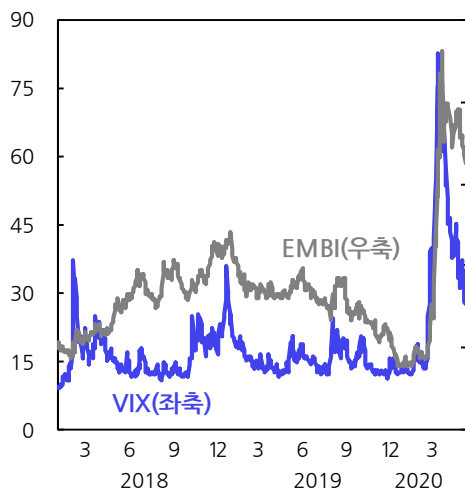
주요국의 근원물가



■ 국제금융시장도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고 주요 지표들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등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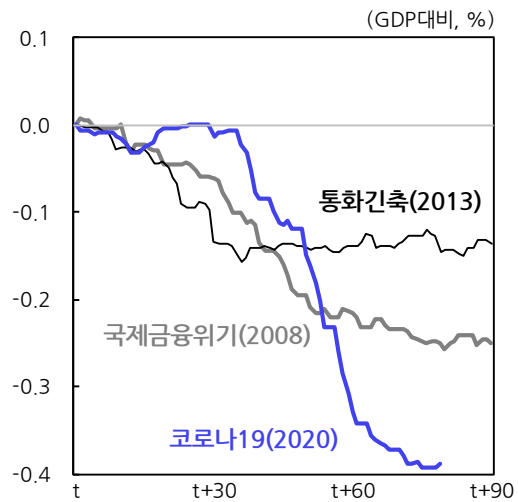
● 주가지수가 경기침체 및 기업실적 악화 우려로 급락하였고, 특히 신흥시장에서는 외국인 자본유출이 확대되고 가산금리와 변동성 관련 지표들이 급등

주가변동성과 신흥시장채권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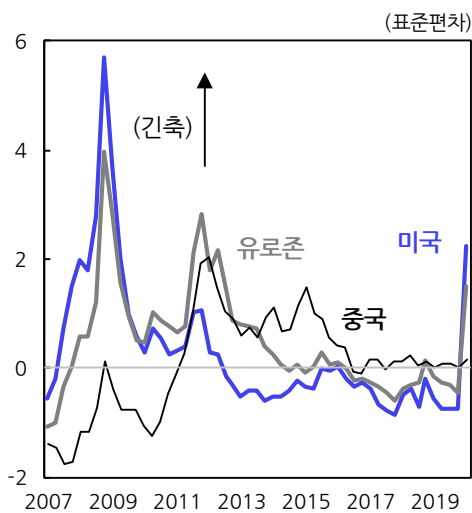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IMF.

신흥국의 자본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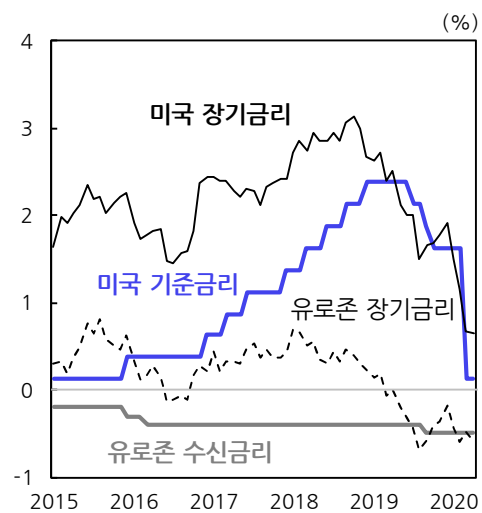
● 주요국의 적극적인 대응조치로 시장 불안이 다소 완화된 상황이나, 선진국 장기금리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달러화도 주요 신흥국 통화대비 강세를 나타내고 있음.

주요국의 금융여건



자료: IMF; 블룸버그.

주요 선진국의 정책금리와 장기금리



■ 세계경제는 대다수 국가의 실물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지난 금융위기 이상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광범위한 봉쇄 조치를 시행하면서 선진국과 신흥국 경제 모두 크게 악화될 전망

- 미국과 유로존 경제는 코로나19의 지속 여부와 정책 지원의 효과 등으로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나, 2020년에 성장률이 각각 -5.9%와 -7.5%로 하락하고, 실업률도 10% 이상으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신흥국의 경우에도 중국과 인도는 성장률이 크게 낮아진 1%대에 그치고, 브라질·러시아 등 경제여건이 취약하거나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큰 폭의 역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주요국의 경기가 빠른 속도로 악화됨에 따라 국제기구들은 올해 세계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

- IMF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급락하고 있는 경제지표와 원자재가격, 금융시장 불안 등을 반영하여 2020년에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3.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음.
-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성장률이 추가 하락하고 회복도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IMF)

(%)

| | 세계 | 미국 | 유로존 | 일본 | 중국 | 인도 | 브라질 | 한국 |
|-------|---------------|---------------|---------------|---------------|--------------|--------------|---------------|---------------|
| 2019년 | 2.9 | 2.3 | 1.2 | 0.7 | 6.1 | 4.2 | 1.1 | 2.0 |
| 2020년 | -3.0 [3.3] | -5.9 [2.0] | -7.5 [1.3] | -5.2 [0.7] | 1.2 [6.0] | 1.9 [5.8] | -5.3 [2.2] | -1.2 [2.2] |

주: [] 안은 IMF가 2020년 1월에 발표한 전망치이며, 한국은 2019년 10월 전망 기준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0.

2. 주요 국가별 경제상황

가. 미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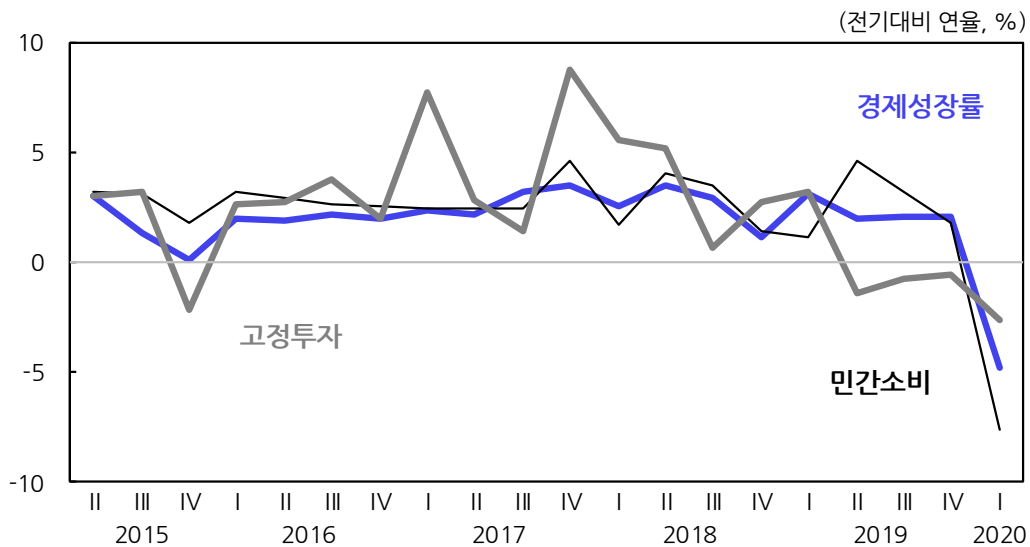
미국경제는 민간소비의 부진이 심화되고 고용 여건도 크게 악화되는 등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는 모습

■ 2020년 1/4분기 미국경제는 전분기(2.1%)보다 크게 하락한 전기대비 연율 -4.8%의 성장률을 기록

● 민간소비와 고정투자가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수출입도 위축되는 등 경기침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민간소비와 고정투자는 각각 전분기(1.8%, -0.6%)보다 크게 낮아진 -7.6%, -2.6%의 증가율을 기록
- 정부지출 증가율도 0.7%를 기록하면서 전분기(2.5%)보다 크게 하락함.
- 수출은 8.7% 감소하여 전분기(2.1%)의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었고, 수입도 -15.3%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전분기(-8.4%)보다 감소폭이 확대

미국의 경제성장률



■ 산업생산과 자본재출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선행지표도 하락하는 등 실물경기 전반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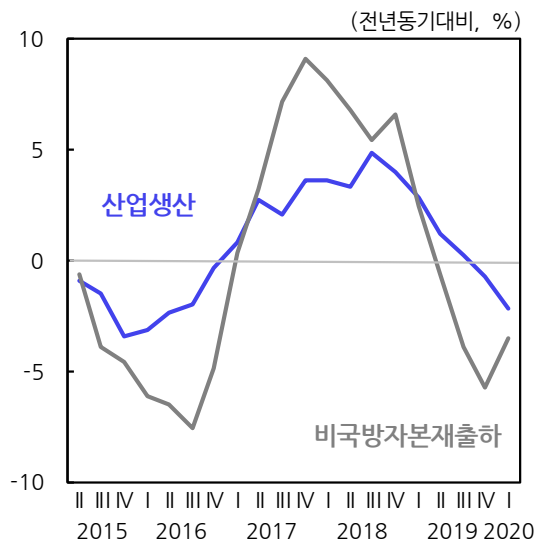
● 1/4분기 산업생산의 감소폭이 확대되었고, 내구재주문과 비국방자본재출하도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 산업생산은 자동차(-6.0%)를 중심으로 2.1% 감소하여 전분기(-0.7%)보다 크게 하락하였고, 내구재주문도 전분기(-3.5%)보다 낮아진 -5.3%의 증가율을 기록
- 비국방자본재출하도 3.5% 감소하면서 전분기(-5.8%)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

● 제조업심리지수 등 경기 관련 선행지수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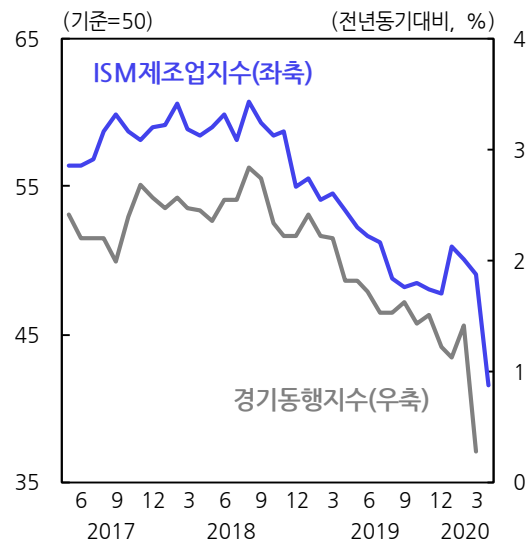
- 1/4분기 경기선행지수와 경기동행지수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8%, 0.9%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전분기(0.2%, 1.4%)보다 하락함.
- 4월 ISM제조업지수는 전월(49.1)보다 크게 낮아진 41.5를 기록하면서 하락세를 지속

미국의 산업생산과 비국방자본재출하



자료: 미 상무부; 미 통계국; 블룸버그.

미국의 ISM제조업지수와 경기동행지수



■ 소매판매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심리지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소비 관련 지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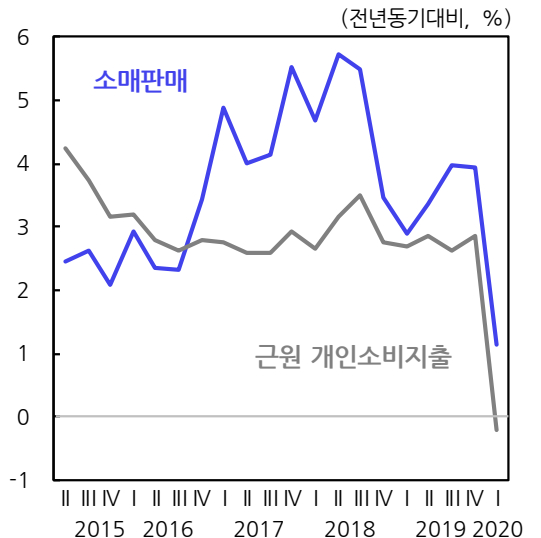
● 소매판매와 개인소비지출 증가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개인소득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음.

- 1/4분기 소매판매와 개인소비지출은 각각 1.1%, 0.4% 증가하면서 전분기(3.9%, 2.7%)보다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고, 개인소득 증가율도 전분기(4.1%)보다 낮아진 3.1%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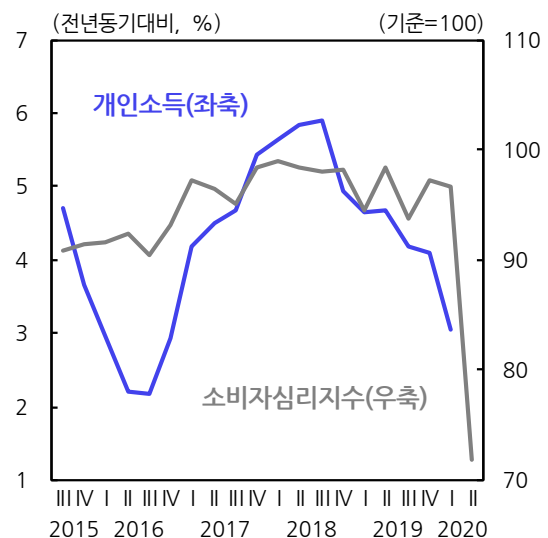
● 소비 관련 심리지도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급락함.

- 4월 소비자신뢰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는 각각 86.9, 71.8을 기록하면서 전월(118.8, 89.1)보다 크게 하락

미국의 소매판매와 근원 개인소비지출



미국의 개인소득과 소비자심리지수



■ 대부분의 주택 관련 지표들이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나, 주택시장지수가 하락하는 등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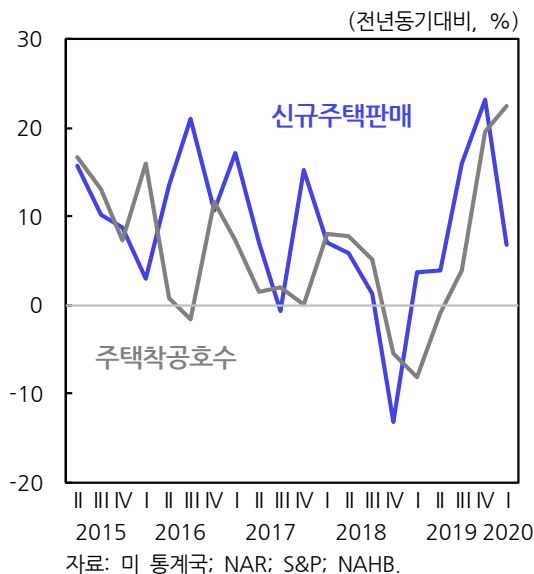
● 1/4분기 주택허가 및 주택착공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신규주택판매 증가율은 크게 낮아짐.

- 기존주택판매는 전분기(5.8%)에 이어 7.1% 증가하였으나, 신규주택판매는 전분기(23.2%)보다 증가폭이 크게 축소된 6.9%의 증가율을 기록
- 주택허가건수와 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각각 전분기(12.1%, 19.6%)에 이어 13.5%, 22.4%를 기록하면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감.
- 한편, 기존주택 재고가 전분기 대비 15만호 감소한 145만호를 기록하였고, 기존주택판매 대비 재고비율은 전분기(29.7%)보다 하락한 26.5%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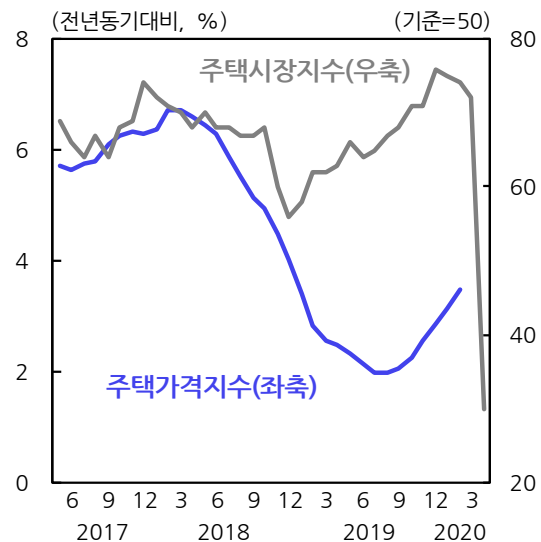
●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주택시장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 2월 20개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3.5%를 기록하면서 전월(3.1%)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
- 그러나 4월 주택시장지수는 경기침체 우려 확대로 전월(72)보다 크게 낮아진 30을 기록

미국의 신규주택판매와 주택착공



미국의 주택가격지수와 주택시장지수



■ 수출입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점차 축소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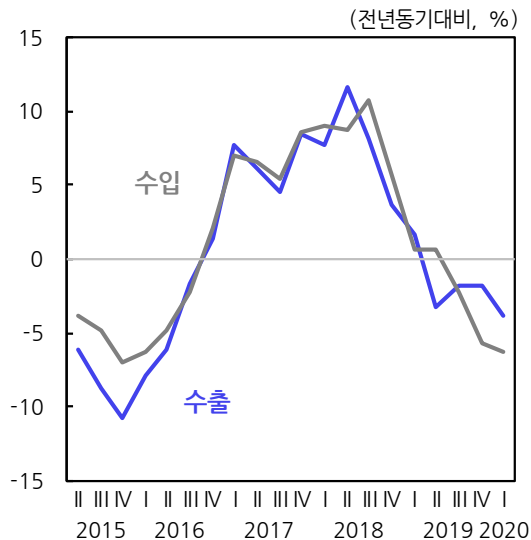
● 1/4분기 상품 수출 및 수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교역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부진이 심화됨.

- 상품수출은 자본재(-7.1%)와 소비재(-10.5%) 등을 중심으로 3.8% 감소하여 전분기(-1.7%)보다 감소폭이 확대되었고, 상품수입도 전분기(-5.7%)보다 낮아진 -6.3%의 증가율을 기록

● 한편, 2019년 4/4분기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동기(1,439억달러)보다 축소된 1,098억달러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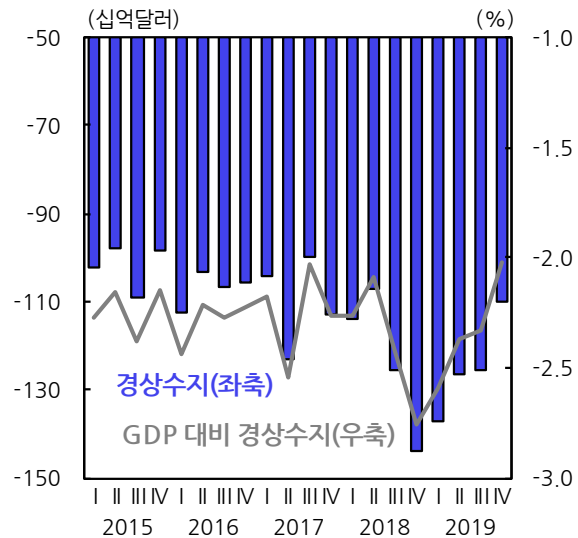
-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도 -2.0%를 기록하면서 전년동기(-2.8%)보다 낮아짐.

미국의 상품수출입



자료: 미 통계국; 미 상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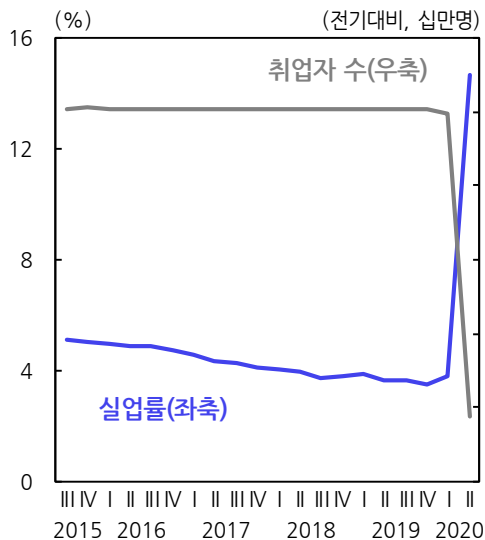
미국의 경상수지



■ 노동시장은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실업률이 급등하는 등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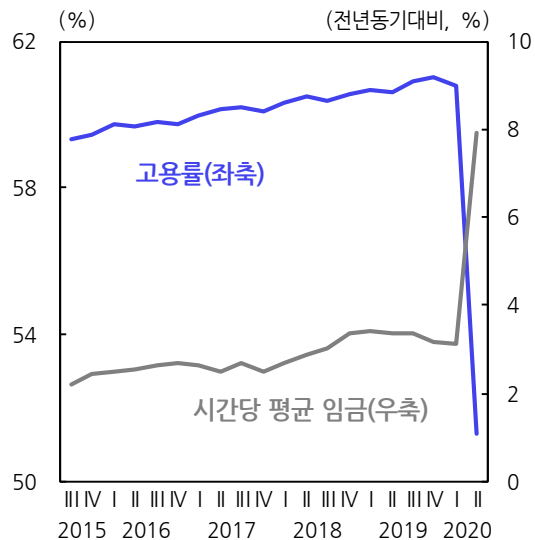
- 1/4분기 비농업 취업자 수는 월평균 14만명 감소하면서 전분기(21만명)의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었고, 고용률도 60.8%를 기록하면서 전분기(61.0%)보다 소폭 하락함.
 - 4월 비농업 취업자 수는 숙박 및 음식점업(-633만명) 등을 중심으로 2,054만명 감소하였고, 고용률도 큰 폭으로 하락한 51.3%를 기록
- 실업률은 전분기(3.5%)보다 높아진 3.8%를 기록하였고, 평균 주간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도 전분기(21.9만건)보다 크게 높아진 103.0만건을 기록
 - 4월 실업률은 전월(4.4%)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14.7%를 기록하였고, 평균 주간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도 503.5만건을 기록하면서 전년동기(21.6만건)보다 큰 폭으로 증가
- 한편, 민간부문의 시간당 평균 임금상승률은 전분기(3.2%)보다 하락한 3.0%를 기록 하였으나, 저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대량 실업이 발생하면서 4월에는 7.9%를 기록

미국의 실업률과 취업자 수



주: 2020년 2/4분기는 4월 수치임.
자료: 미 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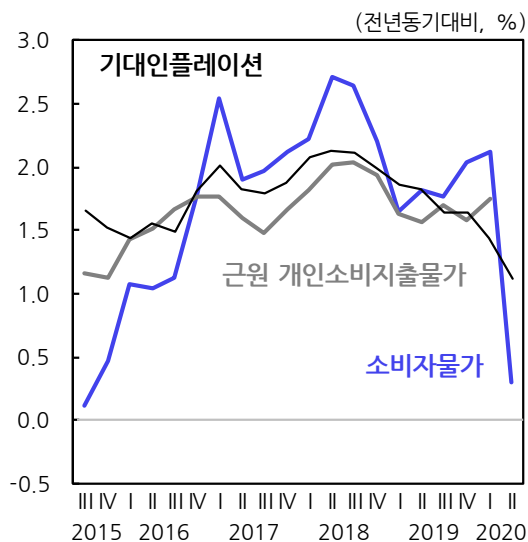
미국의 고용률과 시간당 임금상승률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크게 낮아진 가운데, 수출입물가의 하락세는 지속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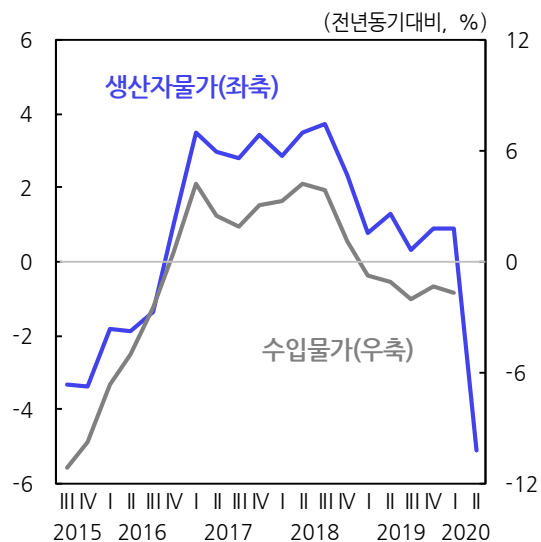
- 1/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분기(2.0%)에 이어 2.1% 상승하였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0.9%를 기록
 - 상품물가와 서비스물가는 각각 0.9%, 2.8% 상승하여 전분기(0.7%, 2.8%)와 비슷한 흐름을 유지
 - 기대인플레이션은 전분기(1.6%)보다 낮아진 1.4%를 기록하며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근원 개인소비지출물가는 1.8% 상승하며 전분기(1.6%)보다 소폭 높아짐.
- 그러나 4월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는 각각 0.3%, -5.1%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월(1.5%, -0.9%)보다 크게 낮아짐.
- 1/4분기 수출 및 수입 물가는 모두 -1.7%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각각 전분기(-1.2%, -1.3%)보다 하락폭이 확대됨.

미국의 소비자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



주: 2020년 2/4분기는 4월 수치임.
자료: 미 노동부; 미 상무부.

미국의 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



■ 금융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모습

● 주가는 적극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 등을 바탕으로 일부 회복되었으나, 광범위한 봉쇄조치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우려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 가계 및 기업 금융 지원 등이 포함된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더불어 기준금리 인하(0.00~0.25%), 무제한 양적완화 및 회사채 시장 유동성 공급 등이 시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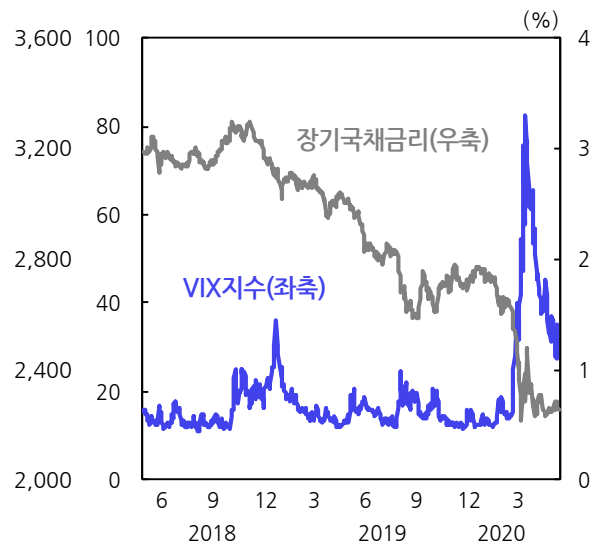
●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달러화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장기국채금리는 하락하고 변동성지수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달러인덱스와 S&P500



자료: 블룸버그.

VIX지수와 장기국채금리



■ 미국경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성장률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대규모 봉쇄조치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2020년에 -5.9%의 성장률을 나타낸 후, 2021년에는 대규모 정책 대응을 바탕으로 4.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주요 해외투자은행들도 소비 위축과 공급망 붕괴 우려 등을 반영하여 2020년에 -4.0%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21년에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

●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0년에 0.6%를 기록한 후, 2021년에는 2.2%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주요기관의 미국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

(%)

| | IMF | | 투자기관(평균) | |
|-----------|-----------|----------|-----------|----------|
| | 2020 | 2021 | 2020 | 2021 |
| 경제성장률 | -5.9(2.1) | 4.7(1.7) | -4.0(1.7) | 3.8(1.8)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0.6(2.3) | 2.2(2.4) | 1.0(2.1) | 1.7(2.1) |

주: 1) 투자기관 전망치는 4월 기준.

2) 괄호 안의 수치는 각 기관들의 2019년 하반기 전망치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0; 블룸버그.

나. 유로존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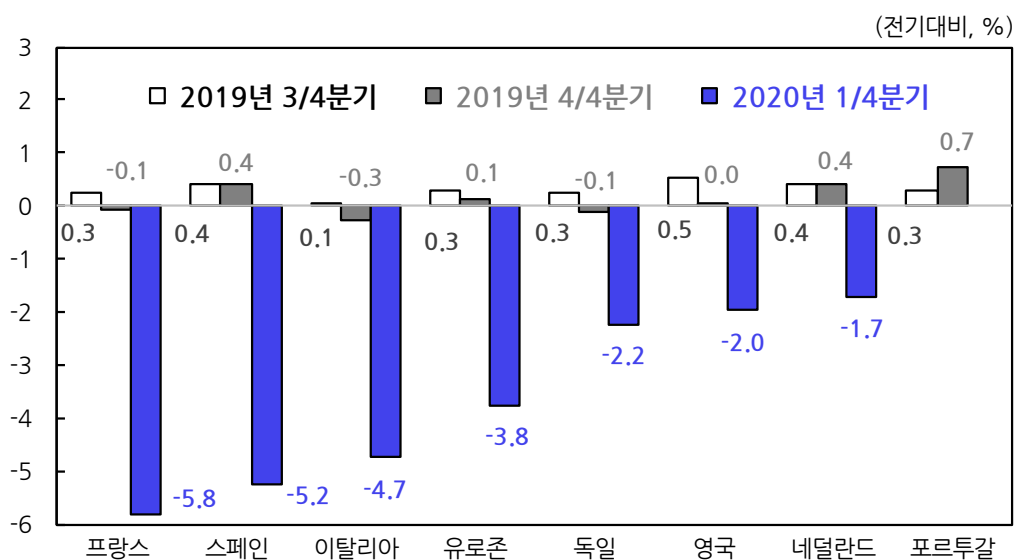
유로존경제는 경기 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가에서 광범위한 봉쇄조치가 시행되면서 실물경기가 전반적으로 크게 침체된 모습

- 1/4분기에 유로존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기 전반이 급격하게 위축되며 -3.8%의 경제성장률(전기대비)을 기록

● 사회적 통제 강도가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실물경기가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프랑스(-5.8%)와 스페인(-5.2%), 이탈리아(-4.7%) 등에서 성장세가 큰 폭으로 위축된 가운데, 독일(-2.2%), 영국(-2.0%) 등의 주요국에서도 역성장을 나타냄.
- 유럽 내 대부분 국가들의 광범위한 봉쇄조치가 장기화되면서 향후 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게 확대된 상황

유럽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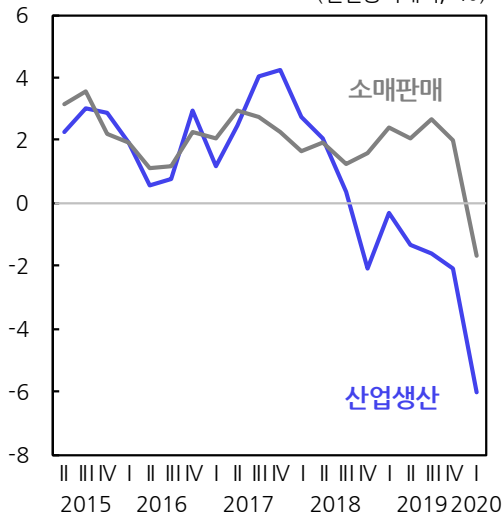
■ 소비가 감소로 전환된 가운데, 생산 감소폭이 확대되고 주요 심리지수도 급락하는 등 실물경기 전반이 빠르게 위축되는 모습

- 1/4분기 산업생산은 독일(-7.2%)과 프랑스(-7.5%)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6.0%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
- 소매판매도 이탈리아(-4.9%)와 프랑스(-4.2%)를 중심으로 전분기(2.0)의 증가에서 1.7% 감소로 전환
- 코로나19가 3월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된 점을 감안하면 향후 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이와 함께 제조업심리지수와 경기체감지수 등 주요 심리지표도 빠른 속도로 하락하면서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

- 4월 제조업PMI와 경기체감지수는 각각 33.4와 67.0을 기록하면서 전월(44.5, 94.2)에 이어 큰 폭의 하락세를 지속

유로존의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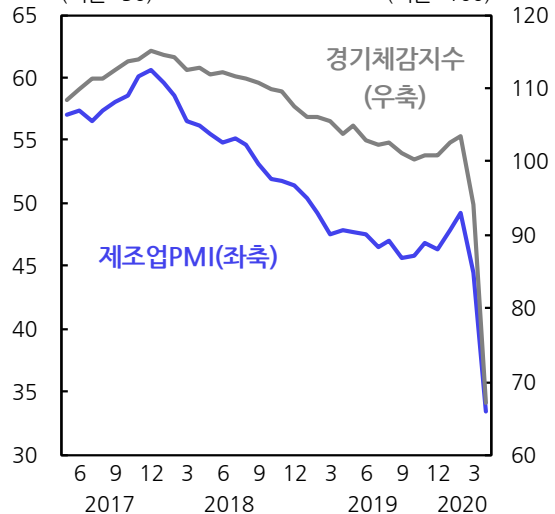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블룸버그.

유로존의 제조업PMI 및 경기체감지수

(기준=50)

(기준=100)



■ 수출이 낮은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수입도 감소세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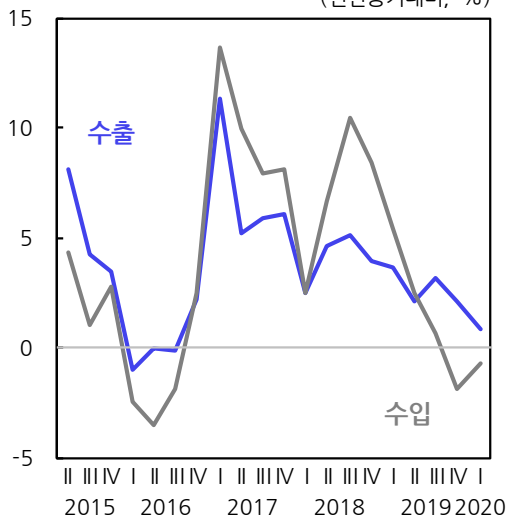
● 1~2월 수출은 전분기(2.1%)보다 낮은 0.9% 증가하였고, 수입도 전분기(-1.9%)보다 감소폭이 축소된 -0.7%의 증가율을 기록

- 상품수출은 음식료품(6.8%)과 화학제품(4.7%) 등이 증가한 반면, 원자재(-3.5%)와 기계 및 운송장비(-1.7%)는 감소
- 상품수입은 화학제품(4.8%) 등이 증가하였으나, 에너지(-7.7%)와 원자재(-3.0%)가 전분기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감소

● 한편, 1~2월 유로존의 경상수지는 443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하며 전년동기간(298억 유로)에 비해 흑자폭이 확대

유로존의 수출입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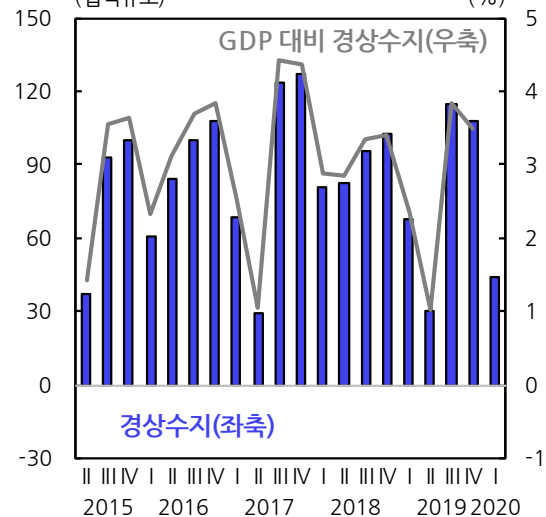


주: 2020년 1/4분기 수출입과 경상수지는 1~2월 수치임.
자료: Eurostat.

유로존의 경상수지

(십억유로)

(%)



■ 노동시장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는 모습이나, 2/4분기 이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크게 악화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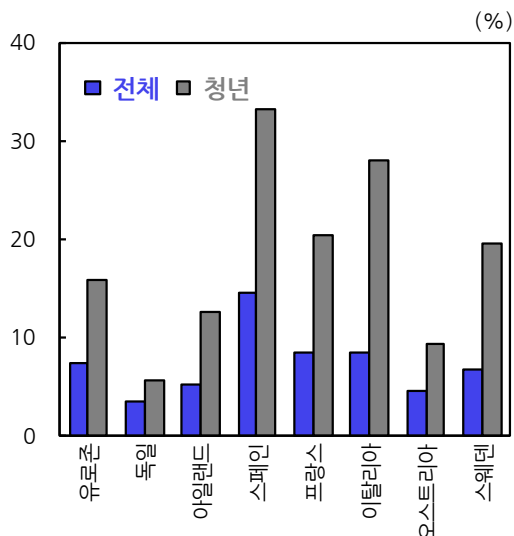
● 유로존의 실업률은 1/4분기에 7%대 초반을 유지한 가운데, 청년실업률도 낮은 수준의 상승세를 보임.

- 3월 유로존의 전체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은 각각 7.4%와 15.8%를 기록하며, 전월(7.3%, 15.4%)보다 상승한 모습

● 한편, 임금상승률이 2%대 초반을 유지하는 가운데, 장기실업자(전체실업자 대비 12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비중은 완만한 하락세를 지속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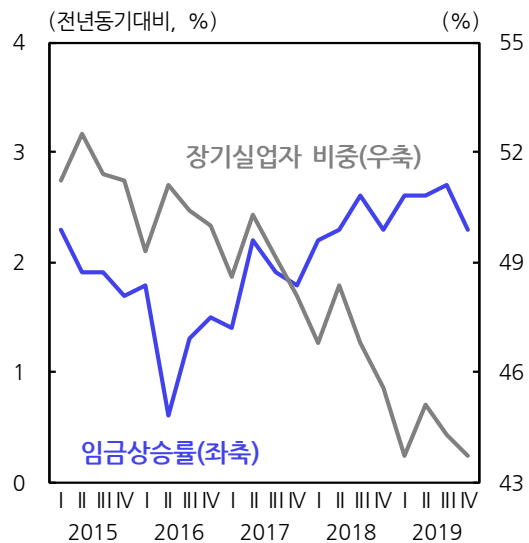
- 2019년 4/4분기 임금상승률은 2.3%를, 장기실업자 비중은 전년동기(45.6%)보다 낮은 43.7%를 기록

유로존의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자료: Eurostat.

유로존의 임금 상승률과 장기실업자 비중



■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유로존 내 대다수 국가들의 주택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

● 1/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분기(1.0%)와 비슷한 1.1%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근원물가도 1%대 초반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

- 4월 에너지 부문의 물가상승률이 -9.6%를 기록하면서 전월(-4.5%)보다 감소폭이 확대되었고, 서비스(1.2%) 및 에너지 제외 상품물가(0.3%)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3월 생산자물가도 전월(-1.4%)보다 낮은 -2.8%의 상승률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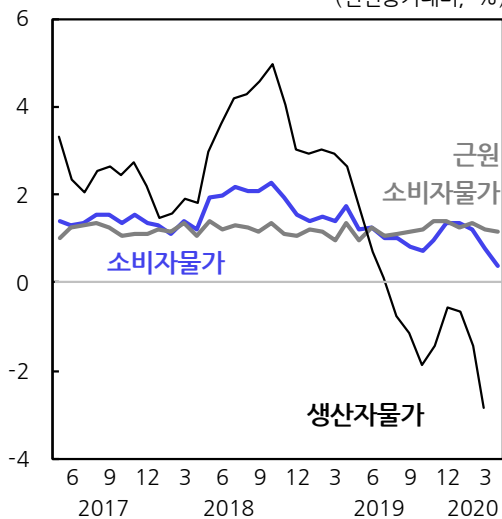
● 유로존의 주택가격은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감.

- 2019년 4/4분기 독일과 프랑스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분기(4.8%, 3.3%)보다 높은 5.7%와 3.8%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유지

- 한편, 스페인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3.7%를 기록하며 전분기(4.8%)보다 상승폭이 축소되었고, 이탈리아(0.3%)는 낮은 수준의 상승률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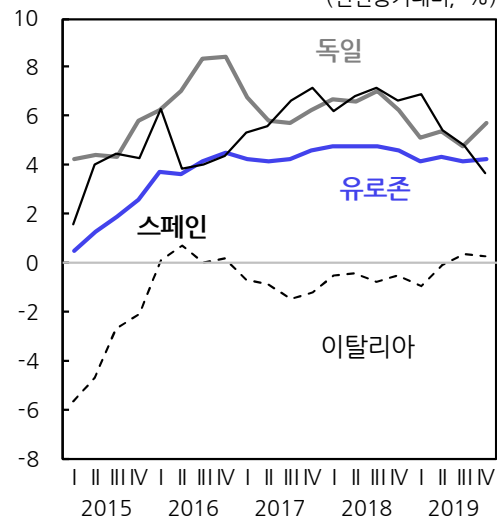
유로존의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전년동기대비, %)



유로존의 주택가격지수

(전년동기대비, %)



■ 코로나19에 대응한 완화적 통화정책과 대규모 재정지출의 영향으로 통화량과 민간대출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

● ECB가 저금리 기조를 지속하고 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을 편성하면서 통화량은 급격하게 확대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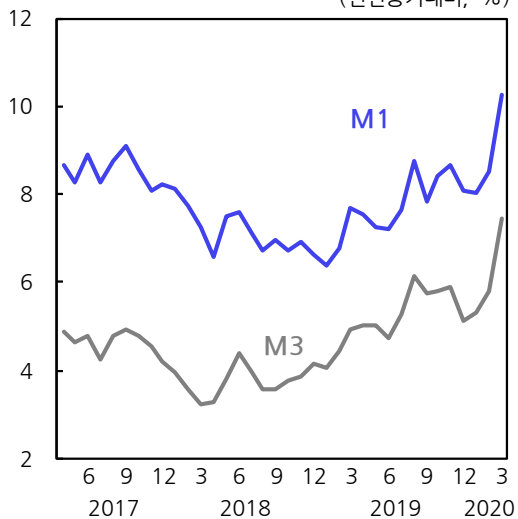
- 3월 M1과 M3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전월(8.5%, 5.8%)보다 확대되며 각각 10.3%와 7.5%를 기록

● 또한, 은행대출프로그램 요건 등이 완화되면서 민간대출과 기업대출이 전월보다 크게 증가하는 모습

- 3월 민간대출이 4.1% 증가하면서 전월(2.9%)보다 확대되었고, 비금융기업대출도 전월(1.5%)보다 높은 3.9%의 증가율을 기록

유로존의 통화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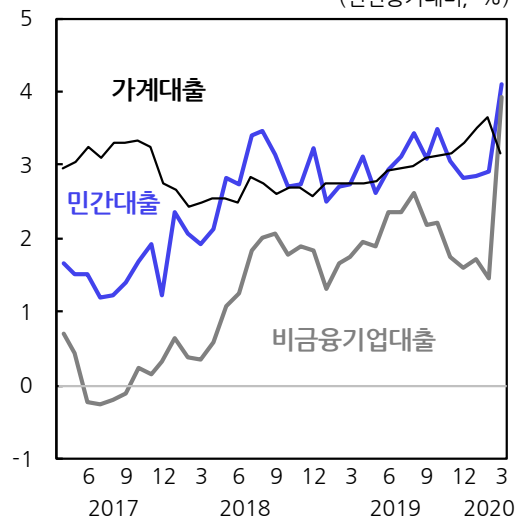
(전년동기대비, %)



자료: ECB.

유로존의 민간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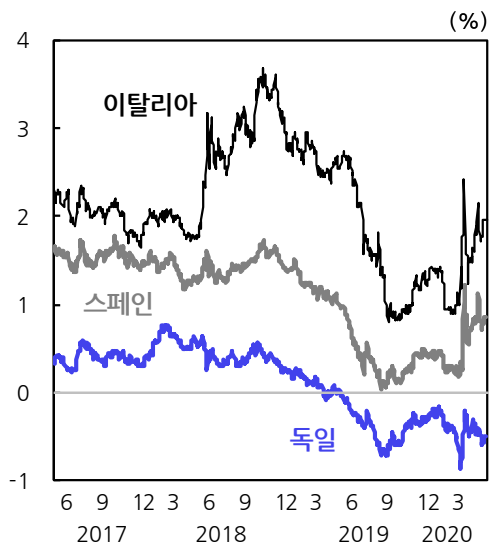
(전년동기대비, %)



■ 유로존 금융시장은 다소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나 경기침체 우려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

- ECB가 팬데믹 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PEPP)으로 연말까지 7,500억유로 매입을 결정하는 등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정책을 시행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은 확산 초기보다 다소 진정되는 모습
- 유로화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일시적으로 달러대비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ECB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강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약세를 지속
- 투자심리도 코로나19로 크게 악화된 이후 적극적인 대응조치 등으로 다소 개선된 모습이나,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은 지속되는 모습

주요 국가들의 장기국채금리



자료: 블룸버그.

유로화환율과 STOXX50



■ 주요 국제기구들은 코로나19가 실물경기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반영하여 유로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하향 조정

● 유로존 경제는 코로나19로 역내 모든 국가들의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2020년에 -7.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한편, 유로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0년에 0% 수준으로 내려간 뒤 2021년에 1% 내외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

주요기관의 유로존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

(%)

| | IMF | | 투자기관(평균) | |
|-------|-----------|----------|-----------|------|
| | 2020 | 2021 | 2020 | 2021 |
| 경제성장률 | -7.5(1.4) | 4.7(1.3) | -5.6(1.1) | 4.5 |
| 소비자물가 | 0.2(1.6) | 1.0(1.9) | 0.5(1.5) | 1.3 |

주: 1) 투자기관 전망치는 5월 기준.

2) () 안의 수치는 각 기관들의 2019년 하반기 전망치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0; 블룸버그.

다. 일본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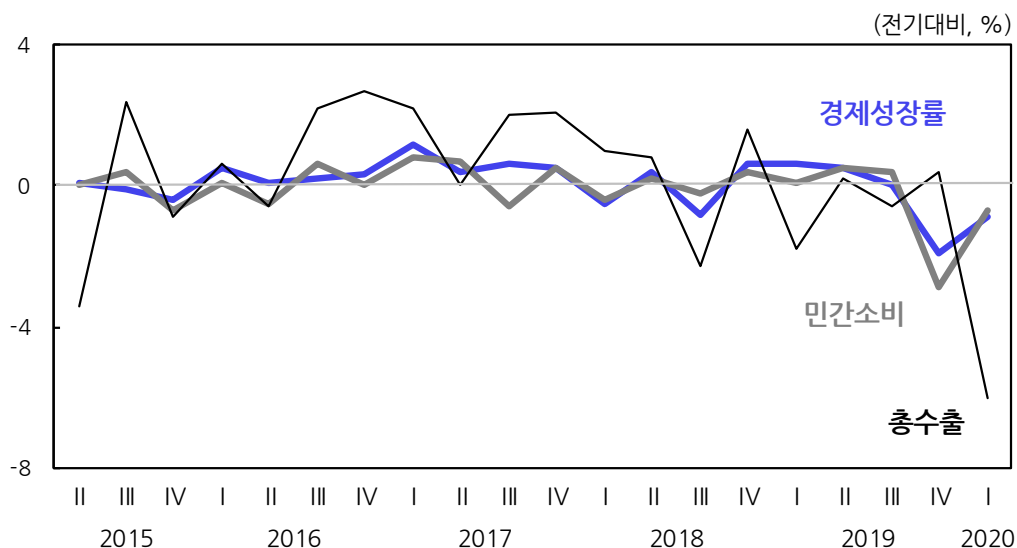
일본경제는 산업생산과 수출의 부진이 지속되는 등 경기 전반이 크게 위축된 모습

■ 2020년 1/4분기 일본경제는 전분기(-1.9%)에 이어 전기대비 -0.9%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

● 민간소비와 투자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수출입도 위축되면서 경제 성장세가 크게 약화된 모습

- 민간소비가 전분기(-2.9%)에 이어 0.7% 감소하였고, 주택투자(-4.5%)와 설비투자(-0.5%)도 전분기(-2.5%, -4.8%)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
- 수출은 6.0% 감소하면서 전분기(0.4%)의 증가에서 큰 폭의 감소로 전환되었고, 수입도 전분기(-2.4%)보다 감소폭이 확대된 -4.9%의 증가율을 기록
- 한편, 내수 기여도는 -0.7%p를, 순수출 기여도는 -0.2%p를 각각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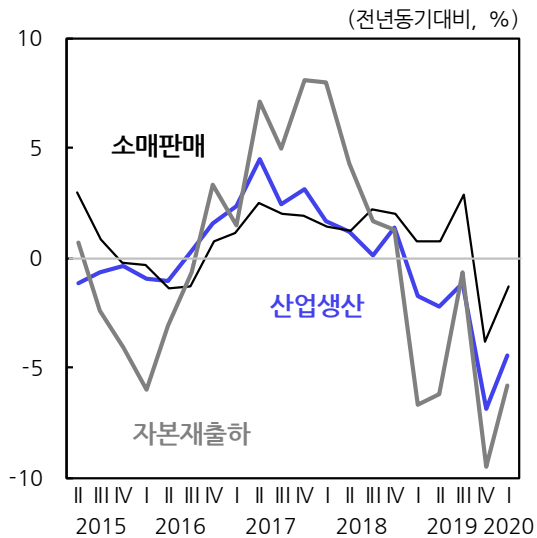
일본의 국민계정



■ 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크게 감소하고 주요 심리지수도 급락하는 등 경기가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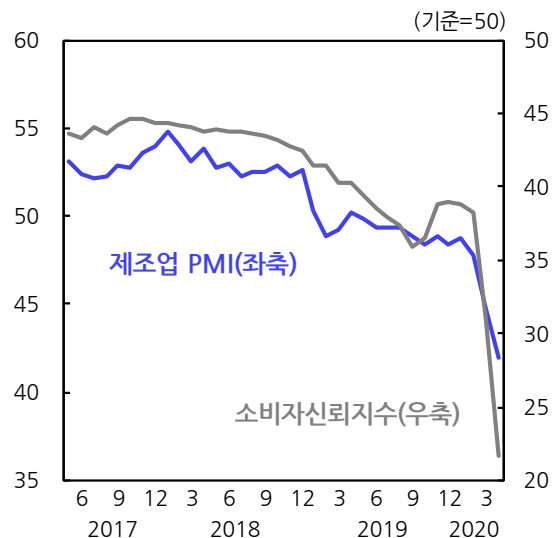
- 1/4분기 산업생산과 자본재출하의 증가율은 각각 -4.5%, -5.8%를 기록하며 전분기(-6.9%, -9.5%)에 이어 부진이 지속됨.
- 소매판매의 경우에도 전분기(-3.8%)에 이어 1.3% 감소하였음.
 - 자동차(-1.2%)와 의류(-9.5%)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감소하였고, 백화점매출 증가율도 전분기(-9.6%)보다 감소폭이 확대된 -17.7%를 기록
 - 한편, 가계소비지출도 교육(-19.6%)과 문화·여가(-9.4%) 부문 등을 중심으로 2.9% 감소하면서 전분기(-2.3%)보다 감소폭이 확대됨.
- 제조업PMI, 소비자신뢰지수 등 경기 관련 선행지표도 하락하면서 기준치를 크게 하회
 - 4월 제조업 PMI와 소비자신뢰지수는 각각 41.9와 21.6을 기록하면서 전월(44.8, 30.9)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일본의 산업생산, 출하 및 소매판매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일본 내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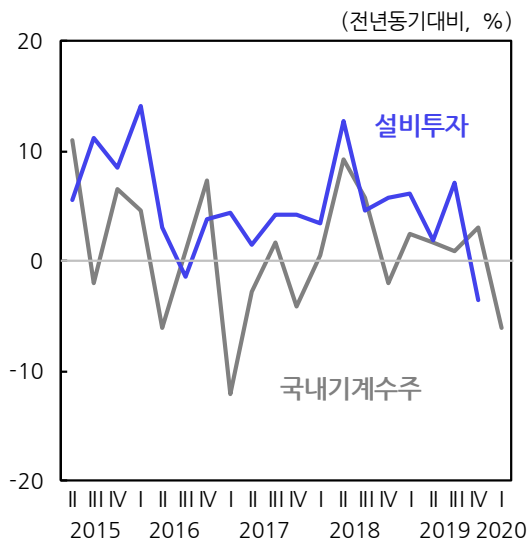
일본의 제조업 PMI와 소비자신뢰지수



■ 설비투자과 건설수주가 감소로 전환되었고, 주택착공도 부진이 심화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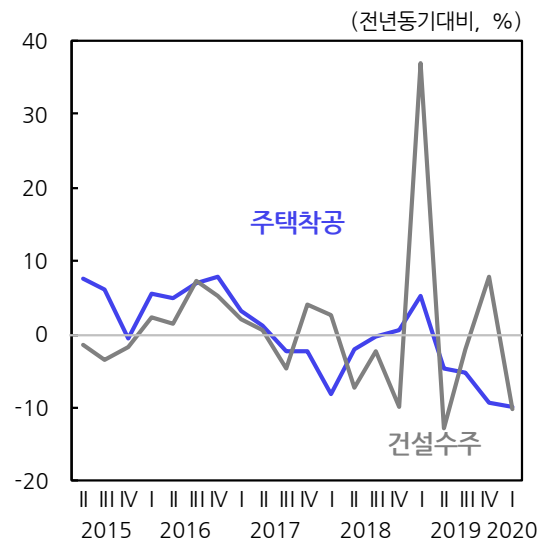
- 4/4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분기(7.1%)의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된 -3.5%를 기록
- 1~2월 국내 민간기계수주는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전분기(3.0%)의 증가에서 6.1% 감소로 전환됨.
 - 제조업 증가율이 전분기(-10.2%)에 이어 -3.6%를 기록한 가운데, 비제조업은 -7.5%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분기(12.1%)의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
- 1/4분기 건설수주는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전분기(8.8%)의 증가에서 11.8% 감소로 전환되었고, 주택착공 증가율도 전분기(-9.4%)와 유사한 -9.9%를 기록
 - 제조업 및 비제조업의 건설수주는 각각 -5.9%, -20.3%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전분기(3.8%, 6.2%)의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었음.
 - 판매용 및 임대용 주택착공은 각각 전분기(-3.1%, -15.0%)에 이어 11.8%, 9.6% 감소

일본의 설비투자과 국내기계수주



주: 2020년 1/4분기 국내기계수주는 1~2월 수치임.
자료: 일본 재무성; 블룸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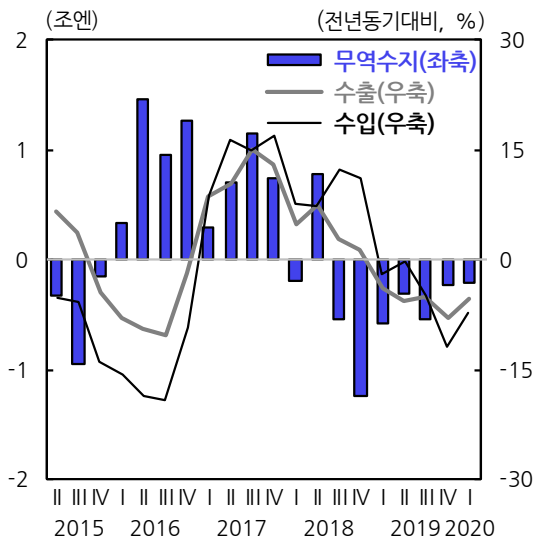
일본의 주택착공과 건설수주



■ 수출입이 모두 크게 위축된 가운데, 무역수지 적자도 지속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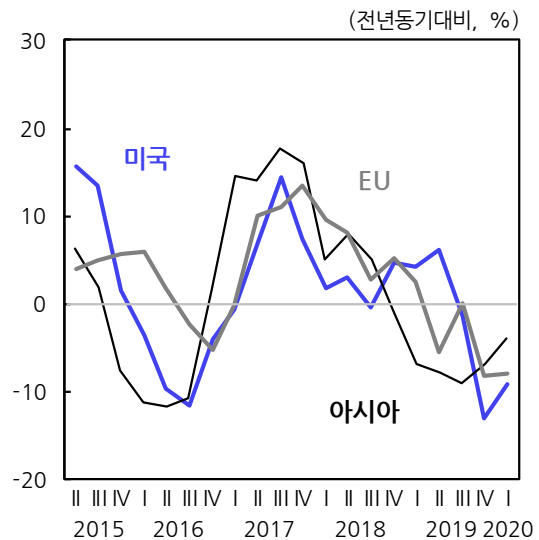
- 1/4분기 수출과 수입은 각각 -5.5%, -7.2%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분기(-7.8%, -11.9%)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감.
 - 수출이 미국(-9.2%)과 중국(-5.3%)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부진한 가운데, 기계류(-12.6%)와 운송장비(-8.8%) 등이 크게 하락하였음.
 - 수입은 중국(-16.7%)과 EU(-6.7%) 등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기계류(-12.1%)와 운송장비(-9.4%)를 포함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감소
- 한편, 무역수지는 2,031억엔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년동기(-5,780억엔)보다 적자폭이 축소되었음.

일본의 수출입과 무역수지



자료: 일본 재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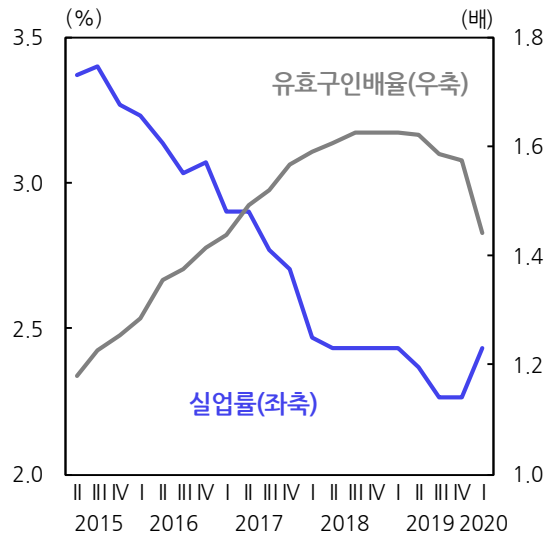
일본의 지역별 수출



■ 노동시장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유효구인배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임금상승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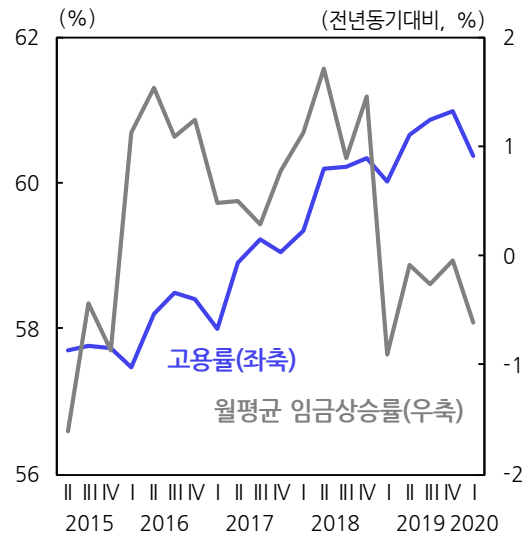
- 1/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2.3%)보다 소폭 상승한 2.4%를 기록하였고, 유효구인배율(1.44)도 전분기(1.57)보다 하락함.
-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61.9%, 60.4%를 기록하면서 전분기(62.3%, 61.0%)보다 모두 하락
- 이와 함께 1~2월 월평균 임금상승률도 전분기(-0.1%)보다 하락폭이 확대된 -0.6%를 기록

일본의 실업률 및 유효구인배율



주: 2020년 1/4분기 월평균 임금상승률은 1~2월 수치임.
자료: 일본 총무성; 블룸버그.

일본의 고용률 및 임금상승률



■ 물가상승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택가격의 상승세는 계속됨.

● 1/4분기 소비자물가와 근원소비자물가(신선식품 및 에너지제외)는 각각 전분기와 동일한 0.5%, 0.7%의 상승률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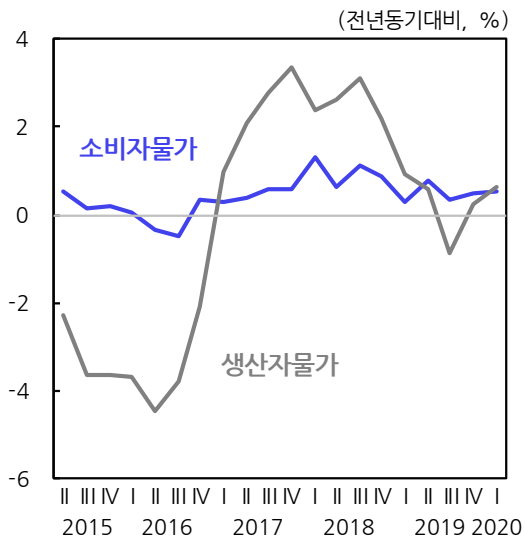
- 신선식품물가는 전분기(-0.4%)보다 감소폭이 확대된 -1.2%의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에너지물가도 전분기(-1.8%)에 이어 0.4% 하락하였음.

●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0.6%를 기록하며 전월(0.3%)에 이어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

● 한편, 4/4분기 전국 주택가격은 전분기(4.1%)와 비슷한 4.2%의 상승률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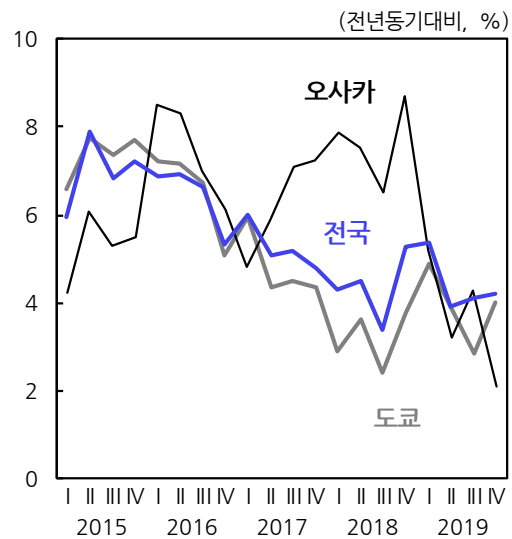
- 도쿄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전분기(2.8%)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4.0%를 기록한 반면, 오사카는 2.1%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전분기(4.3%)보다 상승폭이 다소 축소됨.

일본의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자료: 일본 통계청; 일본은행; 블룸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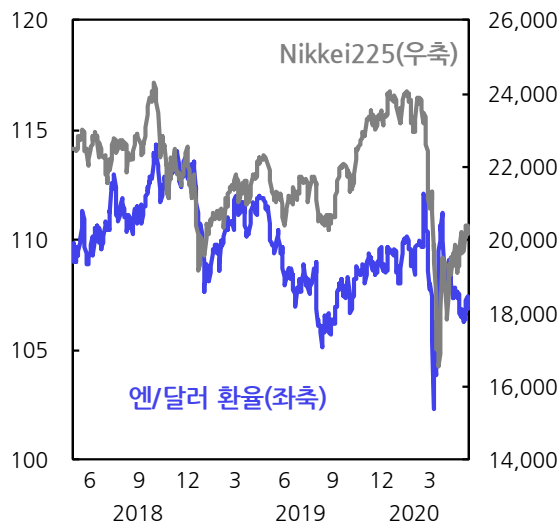
일본의 주택가격지수



■ 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인해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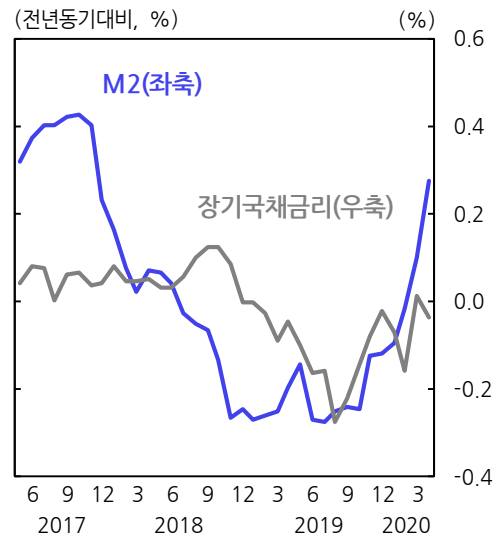
- 주가지수는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크게 하락한 후, 대규모 재정 및 통화정책 등에 기 인하여 일부 회복
- 엔/달러 환율은 달러화 가치 변동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였으나, 최근 들어 안전자산 선호가 반영되면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한편,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강화되면서 4월 통화량(M2) 증가율은 전월(3.3%)보다 소폭 높아진 3.7%를 기록
 - 일본은행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국채매입 목표 폐지, 기업어음 및 회사채 매입보유 한도 확대 등의 조치를 발표함.

일본의 환율 및 Nikkei225



자료: 일본은행; 블룸버그.

일본의 통화량 및 장기국채금리



■ 일본경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경제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소비와 수출 부진이 심화되며 2020년 경제성장률은 큰 폭으로 하락한 후, 2021년에는 대규모 경기부양대책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IMF는 2020년 경제성장률을 작년 하반기에 비해 5.7%p 하향 조정된 -5.2%로 전망
- 주요 투자기관들도 올림픽 연기와 소비·수출의 감소 등을 반영하여 2020년에 -3.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0.2%, 0.4%를 기록할 전망

주요기관의 일본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

(%)

| | IMF | | 투자기관(평균) | |
|-----------|-----------|----------|-----------|----------|
| | 2020 | 2021 | 2020 | 2021 |
| 경제성장률 | -5.2(0.5) | 3.0(0.5) | -3.4(0.3) | 1.7(0.8)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0.2(1.3) | 0.4(0.7) | 0.0(1.0) | 0.3(0.9) |

주: 1) 투자기관 전망치는 4월 기준.
 2) 괄호 안의 수치는 각 기관들의 2019년 하반기 전망치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0; 블룸버그.

라. 중국경제

중국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요 경제지표가 크게 악화된 가운데, 대외 수요 부진 등 경기하방 위험도 상존

■ 1/4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주요 실물지표가 빠르게 악화되면서 전분기(6.0%)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6.8%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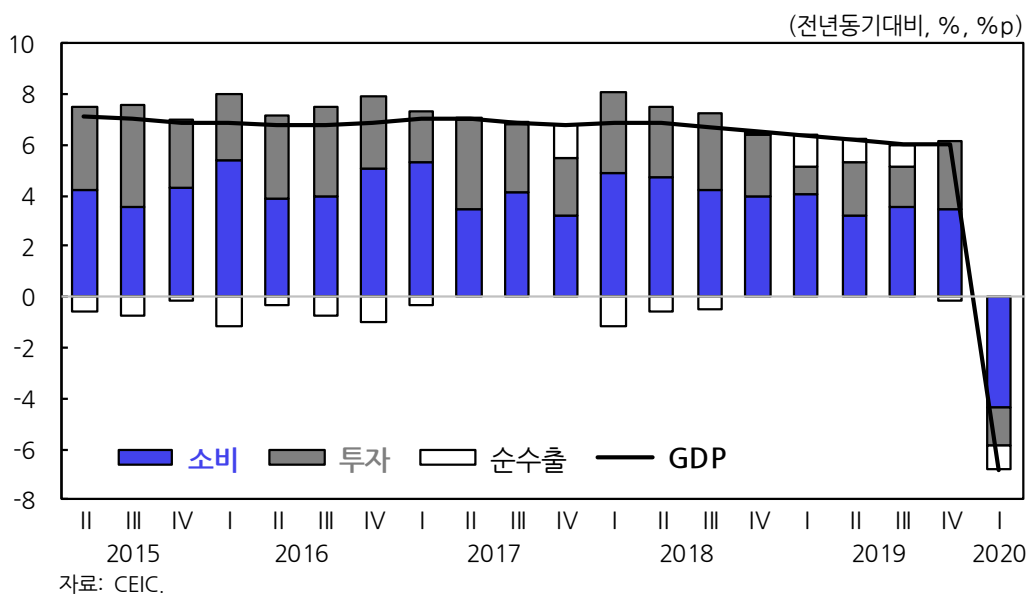
● 코로나19의 충격이 반영되면서 소비, 투자 및 순수출 모두 크게 감소하여 1/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민간소비 기여도는 전분기(3.5%p)보다 크게 하락한 -4.4%p를 기록하였고, 투자 기여도 전분기(2.7%p)보다 낮은 -1.5%p로 하락

- 순수출 기여도는 수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분기(-0.1%p)에 비해 하락한 -1.0%p를 기록

● 3월 이후의 경제활동 재개와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위축과 대외수요의 부진으로 경기하방 압력이 여전히 높은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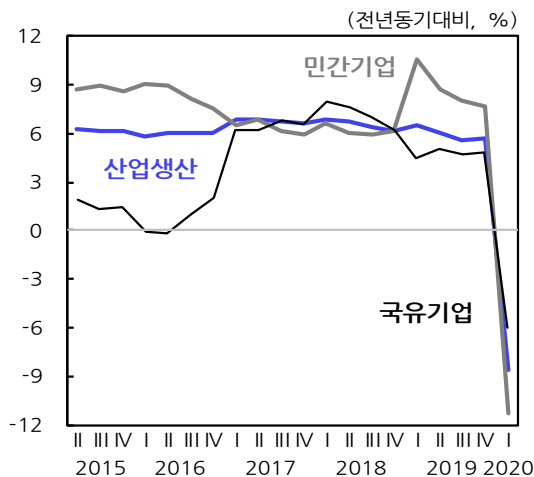
중국의 성장률과 부문별 성장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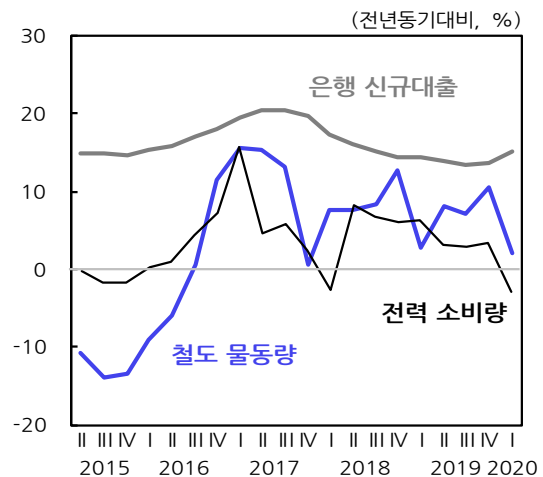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생산이 급격하게 위축된 가운데, 소비도 자동차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감소

- 1/4분기 산업생산은 국유기업과 외국자본기업을 중심으로 전분기(5.9%)보다 대폭 하락한 -6.0%의 증가율을 기록
 - 기업형태별로 대부분의 기업이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국유기업(-2.5%)과 외국자본기업(-5.4%)이 전분기에 비해 감소폭이 확대
 - 산업별로는 자동차와 전자기기가 전분기(각각 7.7%, 11.9%)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며 -31.8%와 -24.7%의 증가율을 기록
 - 다만, 3월에 산업생산은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1~2월에 비해 감소폭이 축소된 -1.1%의 증가율을 기록
- 제조업 PMI는 코로나19로 인한 춘절연휴 연장 및 이동제한 등으로 기준(50)을 하회한 45.9를 기록하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중소기업 위주의 Caixin PMI 또한 전분기(51.7)보다 큰 폭 하락한 47.2를 기록
- 경기 관련 주요 보조지표들의 증가율도 크게 하락하면서 경기하방 압력이 높은 상황임을 시사
 - 철도물동량과 전력소비량이 각각 전분기보다 큰 폭으로 낮아진 2.1%, -2.8%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은행 신규대출 증가율은 15.2%로 전분기보다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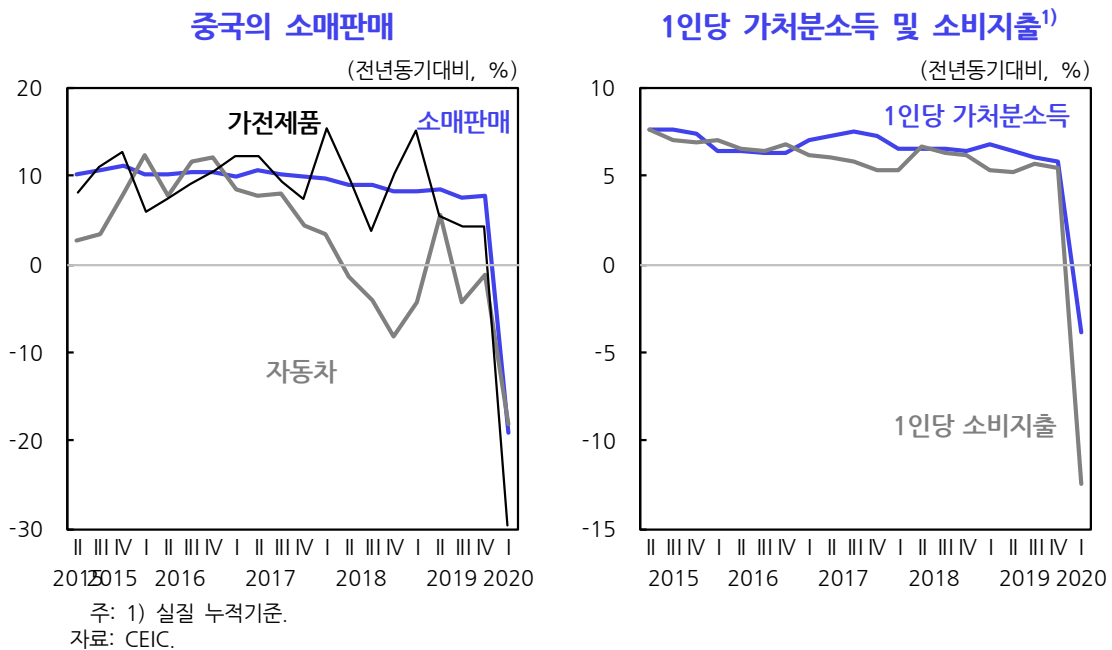
중국의 산업생산¹⁾



경기 관련 주요 보조지표



- 1/4분기 소매판매는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전분기(7.7%)보다 크게 하락한 -19.0%의 증가율을 기록
 - 자동차와 가전제품 판매는 각각 전분기(-1.1%, 4.4%)보다 크게 낮은 -18.1%, -29.7%의 증가율을 기록
 - 반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의료 관련 소비는 전분기(6.1%)보다 높은 8.0% 증가
- 1인당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전분기(5.8%)보다 하락한 -3.9%를 기록하였으며, 소비지출도 전분기(5.5%)에 비해 큰 폭으로 위축되며 12.5% 감소



■ 제조업 설비투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투자 관련 지표도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

● 1/4분기 고정자산투자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모두 감소하며 전분기(5.4%)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16.1%의 증가율을 기록함.

- 국유기업 투자 증가율이 전분기(6.8%)보다 큰 폭 하락한 -12.8%를 기록하였고, 민간투자 증가율도 전분기(4.7%)보다 크게 낮아진 -18.8%를 기록

* 국유기업 투자(전년동기대비, 누적, %):

(19.1/4) 6.7 → (2/4) 6.9 → (3/4) 7.3 → (4/4) 6.8 → (20.1/4) -12.8

* 민간기업 투자(전년동기대비, 누적, %):

(19.1/4) 6.4 → (2/4) 5.7 → (3/4) 4.7 → (4/4) 4.7 → (20.1/4)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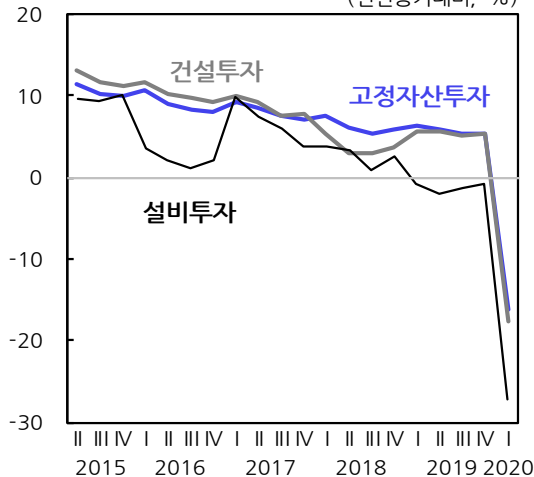
- 지출별로는 설비투자가 -27.2%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건설투자와 R&D투자는 각각 -17.6%, -1.4%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

● 산업별로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투자가 부진하였으며, 특히 자동차 산업과 정보통신업이 전분기에 비해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 산업의 투자는 전분기(-1.5%)에 비해 감소폭이 확대된 -27.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정보통신업도 전분기(8.6%)보다 낮은 -21.2%의 증가율을 기록
- 이와 함께 부동산 투자가 9.3% 감소하였고, 인프라 투자도 19.7%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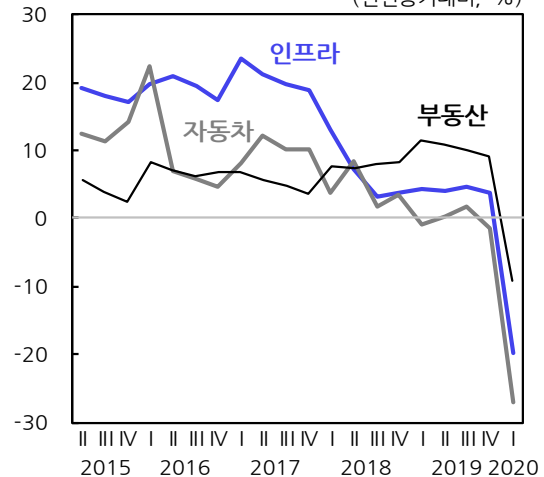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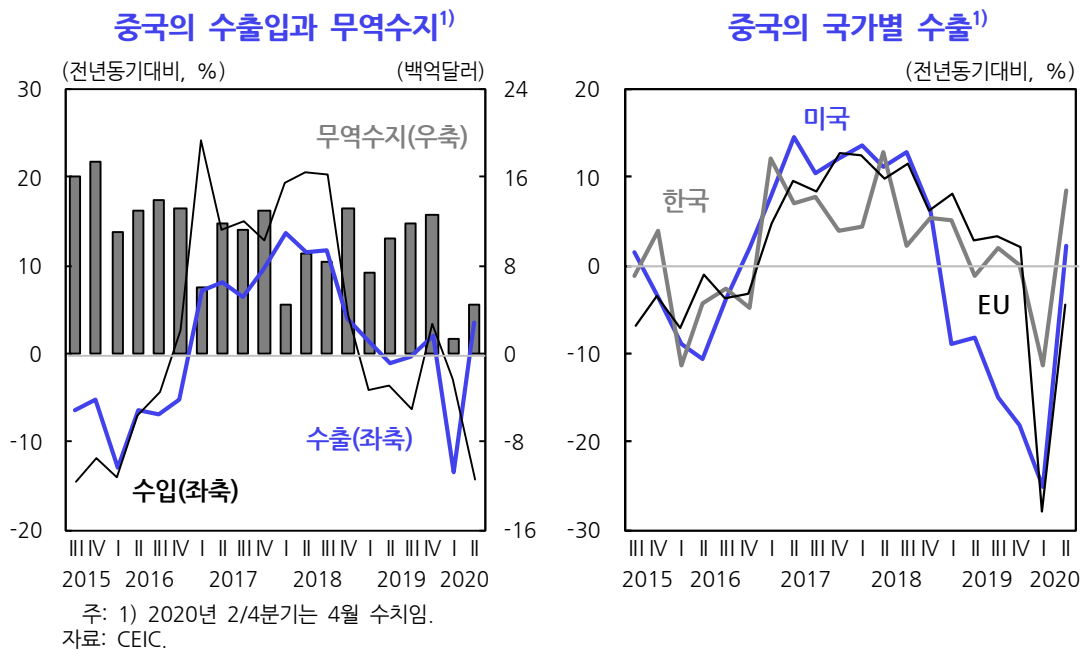
중국의 산업별 투자

(전년동기대비, %)



■ 수출입이 부진한 가운데, 무역수지 흑자폭도 크게 축소됨.

- 1/4분기 수출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감소하여 전분기(2.0%)보다 낮은 -13.3%의 증가율을 기록
 - 품목별로 통신장비는 전분기(-5.5%)보다 낮은 -15.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철강도 작년 2/4분기 이후의 감소세가 지속되며 전분기(-18.3%)보다 낮은 -19.5%의 증가율을 기록
 - 국가별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25.1%)과 EU(-28.0%)에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한편, 4월 들어 수출이 일본·대만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해외수요 부진으로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수입은 자동차 및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감소하며 전분기(3.4%)보다 낮은 -2.9%의 증가율을 기록
 - 유럽(-14.7%)과 일본(-4.3%)에서의 수입이 크게 감소된 가운데, 한국(-5.7%)에서의 수입도 전분기(-7.3%)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
- 1/4분기 무역수지는 수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동기(728.7억달러)보다 큰 폭으로 축소된 130.6억달러를 기록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택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감.

●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음식료품과 소비재를 중심으로 전분기(4.3%)보다 확대된 5.0%를 기록

- 소비재 가격은 전분기(6.0%)보다 높은 7.3%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음식료품 가격도 전분기(12.7%)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된 14.9%의 상승률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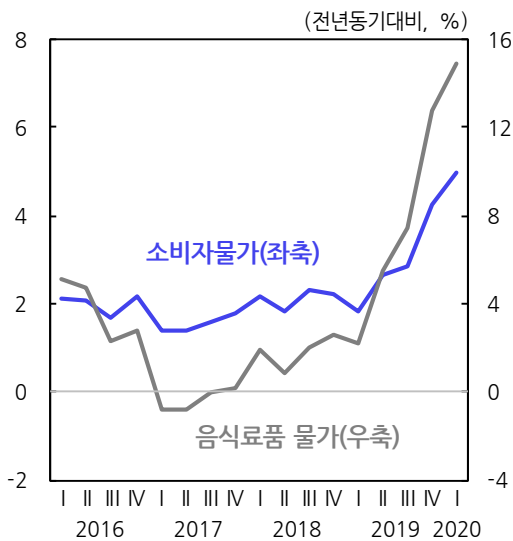
- 다만,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분기(1.4%)보다 소폭 낮은 1.2% 상승

● 코로나19의 여파로 주택판매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은 상승폭이 점차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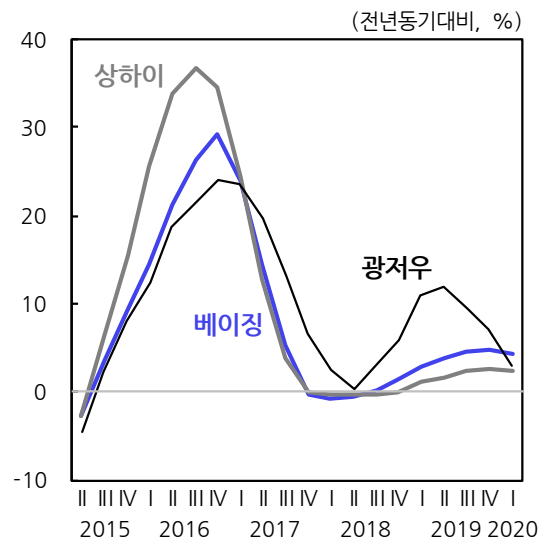
- 1/4분기 주택판매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감소하며 전분기(6.5%)보다 큰 폭으로 낮아진 -24.7%의 증가율을 기록

- 베이징(4.2%), 상하이(2.5%), 광저우(3.0%) 등 주요 대도시에서 신규주택가격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주택가격이 상승한 도시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

중국의 소비자물가와 음식료품 물가



중국 주요 도시의 신규주택가격



■ 금융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정한 모습이나,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에 대한 기대로 주가는 일부 회복

● 안전자산 선호로 위안화 가치가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경기부양책과 경제활동 재개로 주가지수는 소폭이나마 회복되는 모습

- 달러당 위안화 환율은 전분기(7.0위안)보다 소폭 상승한 7.1위안을 기록
- 상하이종합지수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확진자수 감소 및 경제활동 정상화 등으로 2,800 수준으로 회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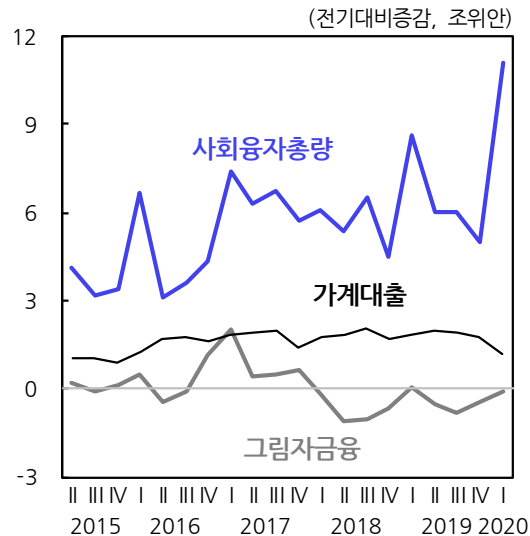
● 전체 사회용자총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림자금융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 1/4분기 사회용자총량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전분기(5.0조위안)보다 크게 확대된 11.1조 위안 증가
- 신규 은행대출은 가계대출(1.2조위안)을 포함하여 7.1조위안 증가하였고, 그림자금융은 0.1조위안 감소하며 전분기(-0.5조위안)에 이어 감소

중국의 주가지수 및 위안화 환율



중국의 사회용자총량 증감



■ 중국경제는 2020년에 1~2%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주요 국제기구들은 2020년에 중국경제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 5월 중순에 개최될 예정인 양회를 통해 중국정부는 GDP목표치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이나, 경제심리 위축과 대외수요 급감으로 경기 하방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0년에 3% 초반을 기록하고, 2021년에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주요기관의 중국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

(%)

| | IMF | | 투자기관(평균) | |
|-------|-----------|-----------|-----------|-----------|
| | 2020 | 2021 | 2020 | 2021 |
| 경제성장률 | 1.2 (5.8) | 9.2 (5.9) | 2.0 (5.9) | 8.0 (5.8) |
| 소비자물가 | 3.0 (2.4) | 2.6 (2.8) | 3.2 (2.4) | 2.1 (2.2) |

주: 1) 투자기관 전망치는 4월 기준.

2) () 안의 수치는 각 기관들의 2019년 하반기 전망치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0, October 2019; 블룸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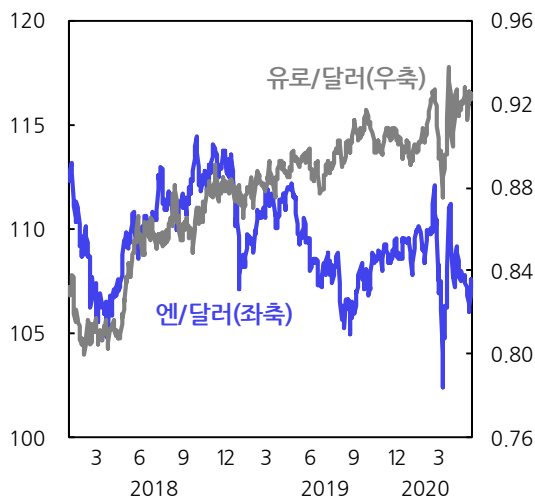
3. 환율 및 금리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고 투자심리 관련 지표들은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냄.

■ 달러화는 신흥국 통화대비 강세를 보인 가운데, 주요국의 대응조치에 따라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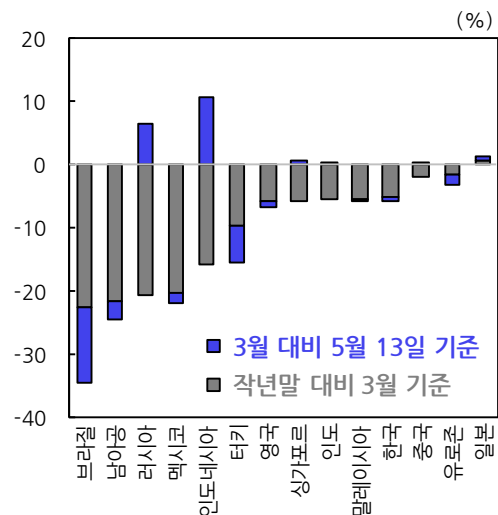
- 유로화는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대외 불확실성도 지속되면서 달러대비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
- 엔화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후 달러당 102엔에서 111엔대 사이에서 급등락을 거듭하다가 주요국 경기부양책으로 불안정성은 다소 진정
- 올해 들어 위안화가 달러대비 약세로 전환된 가운데, 러시아 및 브라질 등 여타 주요 신흥국의 통화가치도 급락세를 보임.
- 한편, 해외투자은행은 엔화의 가치가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위안화 경우에는 큰 변화 없이 현재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엔/달러 및 유로/달러 환율



자료: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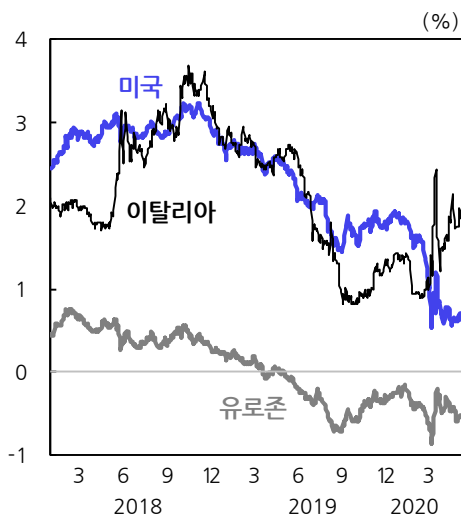
달러화 대비 주요국의 통화 절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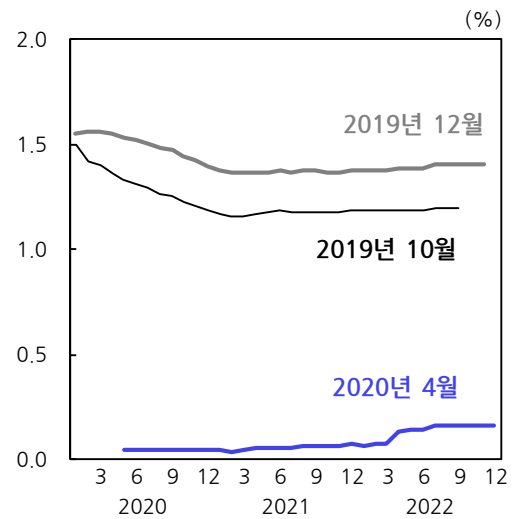
■ 주요 선진국의 장기금리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등락을 반복하였으며, 최근 경기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

- 미국의 장기금리는 대규모 경기부양조치로 일시적으로 급등하기도 했으나, 경기침체 우려와 연준의 채권매입 확대로 하락세를 보임.
- 마이너스 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도 비교적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나, 안전자산으로서 국채 수요가 급증하면서 낮은 수준을 유지
- 주요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하하는 등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강화되면서 장기금리는 현재 수준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주요 선진국의 장기금리



미국의 정책금리 전망



■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가지수가 급락하고 투자심리를 반영하는 지표들이 악화되는 등 국제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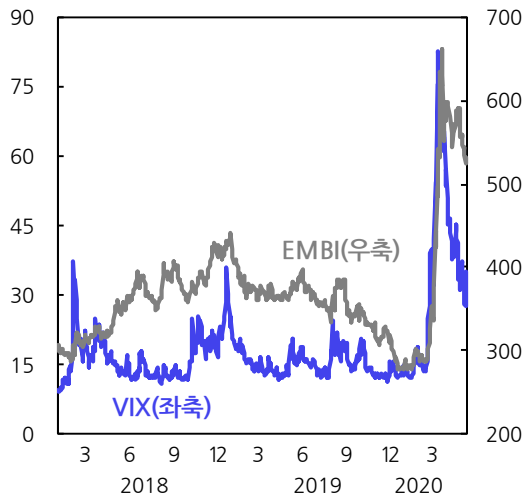
● 주가지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한 세계경기 위축 및 기업실적 악화 우려가 부각됨에 따라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음.

● VIX와 신흥시장 가산금리도 급등한 이후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르는 등 변동성 관련 지수들도 불안정한 모습

– 특히, 재정 및 대외 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들의 CDS가 급등하면서 금융위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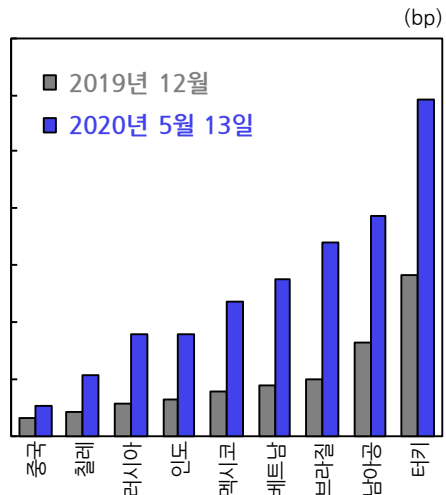
● 최근 주요국의 대응조치로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경기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기간 내에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은 어려울 전망

미국 주가변동성과 신흥시장채권지수



주: 1) 러시아와 터키는 2020년 4월말 기준.
자료: CBOE; 블룸버그.

주요 신흥국의 CDS¹⁾



4. 원자재 가격

유가는 주요 산유국의 공급 확대와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급락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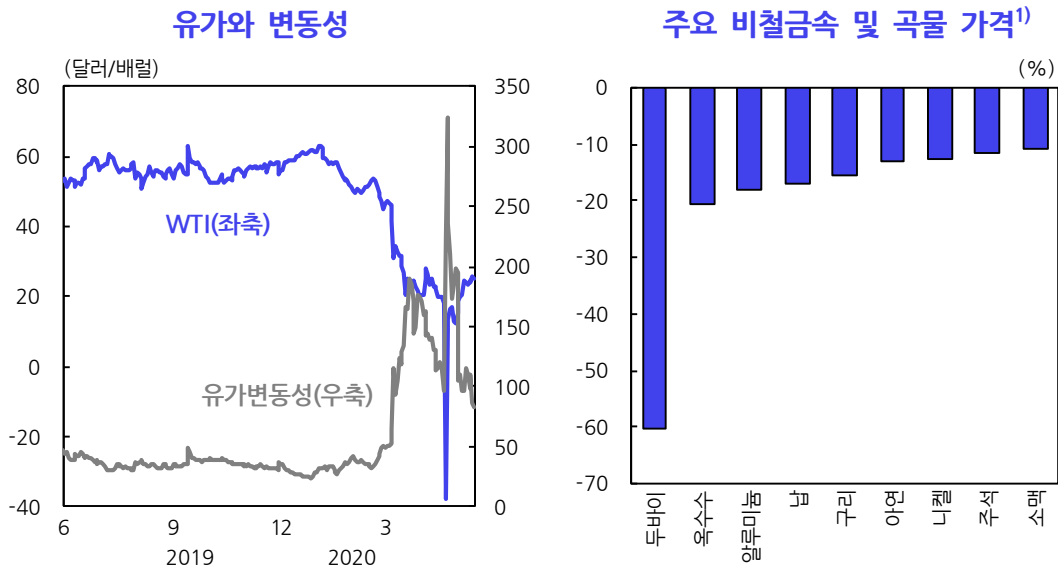
■ 주요 원자재가격은 세계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일부는 공급 과잉 우려도 커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 유가는 주요 산유국 간의 분쟁으로 원유 공급이 확대되고 코로나19로 수요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급락하였음.

- 특히, WTI 선물가격은 공급과잉이 예상보다 심각하고 저장공간 부족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4월 중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음.

- 금년 5월 13일까지 두바이 기준의 평균 유가는 배럴당 41.6달러로 작년대비 34.5% 하락하여 연초에 예상했던 유가 전망치를 크게 하회

● 농산물 수출 금지 및 규제로 일부 곡물가격이 일시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알루미늄과 니켈 등 산업용 기초금속은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우려로 크게 하락



주: 1) 작년 12월 말 대비 5월 13일 기준.
자료: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 블룸버그.

■ 다수의 기관들은 2020년에 원유 공급 과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유가 전망치를 비교적 큰 폭으로 하향 조정

● 올해 유가(Brent 기준)는 연평균 기준으로 배럴당 30달러대 중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EIA 2020년 유가 전망(Brent, 달러/배럴): (2019.12월) 60.5 → (2020.1월) 64.8 → (2월) 61.3 → (3월) 43.3 → (4월) 33.0 → (5월) 34.1

● 한편, 추가 감산 합의로 원유시장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코로나19 및 주요 산유국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어 유가가 낮은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주요 기관 유가 전망

(달러/배럴)

| | 기준 유종 | 2019년 | 2020년 | | | | |
|--------------------|----------|-------|-------|------|------|------|------|
| | | | 1/4 | 2/4 | 3/4 | 4/4 | 평균 |
| EIA | Brent | 64.4 | 50.0 | 23.1 | 30.0 | 34.0 | 34.1 |
| | WTI | 57.0 | 45.3 | 20.6 | 25.5 | 29.5 | 30.1 |
| 블룸버그 ¹⁾ | Brent | - | - | 30.0 | 35.0 | 43.0 | 38.0 |
| | WTI | - | - | 26.3 | 31.3 | 40.0 | 34.5 |

주: 1) 주요 애널리스트의 전망치 중간값.
자료: EIA; 블룸버그.

| KDI 경제전망 현안분석 목록 | | |
|----------------------------------|----------|---------|
| 원유와 주요 원자재의 가격전망 | 1982 2/4 | 거시경제팀 |
| 중심통화지표의 선정 | 1982 2/4 | 거시경제팀 |
| 외채현황과 문제점 | 1982 3/4 | 이 선 |
| 중동원유시장과 한국건설수출 전망 | 1982 3/4 | 장오현 |
| 단기금융기관의 최근동향과 개선방향 | 1982 4/4 | 이덕훈 |
| 최근 국제경제 환경변화와 당면과제 | 1982 4/4 | 김중웅 |
| 유가 인하의 기대효과와 대응방향 | 1983 1/4 | 장오현 |
| 최근 국제금융위기의 근본원인과 그 해결책 | 1983 1/4 | 엄봉성 |
| 최근의 임금동향과 당면정책과제 | 1983 2/4 | 박원구 |
| 선진국경제정상회담과 세계경제의 당면과제 | 1983 2/4 | 서상목 |
| 국제외채위기와 한국의 외채 | 1983 3/4 | 김인철 |
| 남미제국의 경제위기와 향후전망 | 1983 3/4 | 이인호 |
| 태평양지역의 공산품교역현황과 공산품교역확대를 위한 협력방안 | 1983 4/4 | 양수길 |
| 근년의 보호무역주의의 특징과 원인 | 1983 4/4 | 유정호 |
| 미대통령선거와 경제적 파급효과 | 1984 1/4 | 이성섭 |
| 미달러화 변동과 우리나라의 환율결정 | 1984 1/4 | 김인철 |
| 최근 경기동향과 통화정책 | 1984 2/4 | 남상우 이덕훈 |
| 증권시장 개방의 기대효과와 추진전략 | 1984 2/4 | 엄봉성 |
| 최근의 임금 및 노동시장 동향 | 1984 3/4 | 김수곤 최돈길 |
| 산업구조의 개선과 중소기업의 육성 | 1984 3/4 | 김재원 |
| 경기순환과 경기종합지수 | 1984 3/4 | 여운방 |
| 한일관계의 역사적 전환과 새로운 경제협력방향 | 1984 4/4 | 김중웅 이경주 |
| 미국의 통상정책 수립과정과 수입규제법 | 1984 4/4 | 엄봉성 |
| 가계저축 동향과 유인제도의 개편방향 | 1985 1/4 | 이계식 |
| 2000년을 향한 한국경제의 진로와 과제 | 1985 1/4 | 곽태원 |
| 신국제 무역협상과 태평양협력방안 | 1985 2/4 | 양수길 |
| 최근의 고용동향과 정책과제 | 1985 3/4 | 박원구 장준경 |
| 경제특구와 중공의 개방정책 | 1985 3/4 | 홍종덕 |
| 산업기술혁신과 성장잠재력 | 1986 1/4 | 박준경 |
| 경기조합지수의 예측능력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 1986 1/4 | 여운방 |
| OPEC행태의 분석과 유가전망 | 1986 2/4 | 이 선 |
| 서비스개방의 문제와 정책방향 | 1986 2/4 | 김인철 |
| 엔고와 새로운 한일경제관계 | 1986 3/4 | 이규억 |
| 한일 기업저축과 세제비교 | 1986 3/4 | 이계식 배준호 |
| 국제금융 환경변화와 우리의 과제 | 1986 4/4 | 엄봉성 이영기 |
| J커브효과와 대일 무역수지 | 1986 4/4 | 박원암 |

| | | |
|---|----------|-------------|
| 환위험과 외환선물거래의 헤징효과분석 | 1987 1/4 | 이 선 |
| 흑자기조하의 환율정책에 대한 소고 | 1987 1/4 | 좌승희 |
| 실업·임금·물가에 대한 현황, 실증분석과 정책과제 | 1987 2/4 | 김중수 |
| 증권시장의 최근 활황과 주식공급의 확대 | 1987 2/4 | 이덕훈 홍성훈 |
| 미증권 시장의 붕괴 : 그 배경과 여파 | 1987 4/4 | 유정호 |
| 미래의 산업구조변화와 정책대응 | 1987 4/4 | 이원영 |
| 통화량 중시정책의 재평가 | 1988 1/4 | 강문수 |
| 경제안정과 흑자관리 | 1988 1/4 | 노성태 |
| 80년대 일본의 금융국제화와 해외증권투자 | 1988 2/4 | 엄봉성 |
|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장기구조에 대한 논의 | 1988 2/4 | 좌승희 |
| 환율, 임금과 이윤율 | 1988 3/4 | 박원암 |
| 현행 중심통화지표 및 그 운용방법의 변경 필요성 | 1988 3/4 | 박우규 |
| 우리나라 공기업부문의 문제와 정책방향 | 1988 4/4 | 송대희 |
| 부실은행정리와 신용질서유지 | 1988 4/4 | 강문수 |
| 경제규제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의 모색 | 1989 1/4 | 이재형 |
| 1988년 가을 연례회의 (KDI·Project LINK Central 공동주관) | 1989 1/4 | 김진영 |
| 통화의 파급효과와 통화정책 개선방향 | 1989 2/4 | 남상우 이덕훈 |
| 주택건설 경기변동의 추세 | 1989 2/4 | 김관영 |
| 교역조건변동의 추이와 파급효과 | 1989 3/4 | 노성태 오상훈 |
| 주식옵션에 관한 연구 | 1989 3/4 | 금정연 |
| 과학기술투자의 장기계획·투자재원의 조달과 활용을 중심으로 | 1989 4/4 | 이원영 |
| 최근의 실업률 분석 | 1989 4/4 | 장창원 |
| 현 경기 국면의 진단과 정책대응 | 1990 1/4 | 박우규 |
| 자본이득환수기능 제고를 위한 토지정책방향 | 1990 1/4 | 손재영 |
| 최근 물가불안의 요인과 대응방향 | 1990 2/4 | 남상우 이선애 |
| 성장잠재력과 경제운용 | 1990 2/4 | 박준경 |
| 건설투자활동의 전망 | 1990 2/4 | 김관영 |
| 원화, 엔화 환율변동의 수출입 및 물가효과분석 | 1990 3/4 | 심상달 좌승희 |
| 재정의 역할과 운용방안 | 1990 3/4 | 송대희 유일호 문형표 |
| 재정지축의 거시경제효과 | 1991 1/4 | 유윤하 |
| 명목임금의 추정과 관련된 제모형의 비교연구 | 1991 1/4 | 김성연 |
| 산업경쟁력과 경제운용 | 1991 1/4 | 박준경 |
| 유가인상의 산업부문별 효과분석: 일반 균형적 접근 | 1991 1/4 | 이원영 안영석 |
| 92년의 증시개방과 자금흐름의 문제 | 1991 2/4 | 최범수 |
| 새로운 여건하의 제조업 대책 | 1991 2/4 | 김지홍 |
| 5·8조치의 토지 정책적 의미 | 1991 2/4 | 손재영 |
| 물가와 공공요금관리 | 1991 2/4 | 김종석 |
| 환경문제의 현황과 대책 | 1991 2/4 | 정진승 |

| | | |
|---------------------------------|----------|-------------|
| 2000년까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조달 전망 | 1991 2/4 | 유일호 |
| 물가불안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리정책 | 1991 2/4 | 박우규 |
| 최근의 인력수급추세와 정책과제 | 1991 2/4 | 박원구 장창원 |
| 세계잉여금발생 및 추경편성의 문제점 | 1991 3/4 | 문형표 |
| 상반기 무역수지적자요인 분석 | 1991 3/4 | 유윤하 |
| 무역수지악화와 수입의존도 | 1991 3/4 | 유정호 |
| 금융긴축과 수신금리인상 | 1991 3/4 | 박우규 |
| 금리자유화와 정책금융의 당면과제 | 1991 3/4 | 김준경 |
| 수출입과 선행지표 | 1991 3/4 | 박원암 |
| 기술개발지원정책 효율화방안 | 1991 3/4 | 이홍구 |
| 선거의 거시경제효과 | 1991 4/4 | 심상달 |
| 최근 수출입 물량변화의 요인 | 1991 4/4 | 백웅기 |
| 금리자유화의 진행지표와 예대 마진률 | 1991 4/4 | 박우규 |
| 석유화학의 구조조정문제 | 1991 4/4 | 김지홍 |
| 90년대의 산업환경과 산업정책의 기본방향 | 1991 4/4 | 박준경 |
| 자금 흐름의 개선과 상업어음 할인제도 활성화 방안 | 1991 4/4 | 김준경 |
| 유통시장개방의 전망과 대응과제 | 1991 4/4 | 남일총 |
| 거시경제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 | 1992 1/4 | 최승희 |
| 제조업 금융비용 현황과 정책과제 | 1992 1/4 | 이영기 |
| 자금순화계정으로 본 고금리현상의 원인 | 1992 1/4 | 최범수 |
| 우리나라 재정의 경기조절 역할 | 1992 1/4 | 문형표 |
|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이와 투자환경 | 1992 1/4 | 이원영 |
| 월별 경기지표를 이용한 내수의 단기예측 | 1992 1/4 | 심상달 이항용 |
| 법정공휴일 단축에 따른 제조업 인력난해소 및 생산증대효과 | 1992 1/4 | 백웅기 |
| 현 경기국면의 진단 | 1992 2/4 | 박우규 |
| 투자증가율의 둔화는 심각한 문제인가 | 1992 2/4 | 최범수 |
| 기업금융행태와 거시경제운용 | 1992 2/4 | 이영기 |
| 안정적 재정운용과 통합예산관리 | 1992 2/4 | 황성현 |
| 근년의 무역수지악화와 우리 사회의 반응 | 1992 2/4 | 유정호 |
| 경지논쟁소고 | 1992 2/4 | 백웅기 |
| 산업경쟁력과 정부역할 | 1992 2/4 | 박준경 |
| 엔화 약세반전과 거시 경제적 파급효과 | 1995 3/4 | 조동철 고영선 오상훈 |
| 경기연착륙 전망과 향후의 경기국면 진단 | 1995 3/4 | 김준일 |
| 최근의 물가압력 추이 | 1995 3/4 | 유윤하 성명기 |
| 금리추이에 대한 평가 및 전망 | 1995 3/4 | 김준일 |
| 최근의 무역수지적자에 대한 평가 | 1995 3/4 | 유윤하 고영선 |
| 노동력부족 및 정책과제 | 1995 3/4 | 장창원 이진면 |
| 경기양극화의 원인과 정책대응 | 1995 4/4 | 김준경 김윤수 |

| | | |
|---------------------------------|----------|--------------------|
| 경기국면 진단 | 1995 4/4 | 김준일 이항용 |
| 환율변동과 경상수지 | 1995 4/4 | 조동철 이항용 |
| 금리의 10%대 진입 가능성 타진 | 1996 1/4 | 조동철 오상훈 |
| L/C 내도액의 수출 예고능력 | 1996 1/4 | 거시경제팀 |
| 소비자금융 규제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 1996 1/4 | 김준경 김윤수 |
| 최근의 소비재수입 동향 및 시사점 | 1996 2/4 | 김준경 박양래 |
| 최근의 수출부진에 대한 평가와 대외경쟁력 점검 | 1996 2/4 | 거시경제팀 |
| 무역외 및 이전 수지의 추이 및 일본, 대만과의 비교 | 1996 2/4 | 조동철 |
| 임금수준의 국제비교 | 1996 3/4 | 김세중 |
| 한국, 일본 및 대만의 소비자물가 비교 | 1996 3/4 | 유윤하 성명기 |
| 최근의 부도율 현황분석과 향후 전망 | 1996 3/4 | 김준일 |
| 해외직접투자의 요인, 효과 및 정책방향 | 1996 3/4 | 김승진 |
| OECD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균형금리수준의 모색 | 1997 1/4 | 함준호 |
| 우리나라 저축률의 분석과 전망 | 1997 1/4 | 홍기석 |
| 안정성장기의 재정운영방향 | 1997 1/4 | 고영선 |
| 엔화강세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 1997 2/4 | 조동철 |
| 최근 어음할인 현황과 정책과제 | 1997 2/4 | 김준경 |
| 여성실업 증가의 요인분석 | 1997 2/4 | 김대일 |
| 80년대 이후 통화정책의 평가와 정책시사점 | 1997 3/4 | 신인석 |
| 기업의 과다부채와 장기불황 가능성 | 1998 1/4 | 김준경 |
| 건설업체 부도급증 원인 및 평가 | 1998 1/4 | 김준경 |
|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 형태별 파급효과 | 1998 1/4 | 조동철 |
| 유가하락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 1998 1/4 | 한진희 |
| 국제수지의 오차 및 누락에 대한 평가 | 1998 1/4 | 조동철 |
|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공채소화 방안 | 1998 2/4 | 조동철 함준호 황성현 |
| 재고투자의 변동과 경제적 파급효과 | 1998 2/4 | 홍기석 유덕현 |
| 신용경색의 분석적 이해 및 대응방향 | 1998 2/4 | 조동철 신인석 함준호 나동민 |
| 남미국가들의 금융위기재발과 시사점 | 1998 3/4 | 심상달 |
|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와 정책방향 | 1998 3/4 | 조동철 |
|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방안 | 1998 3/4 | 남일총 |
| 어음의 경제적 기능과 제도 개혁방안 | 1998 4/4 | 김준경 |
| 노동소득불평등도의 변화추이 및 전망 | 1998 4/4 | 유경준 |
| 중장기 산업전망과 정책방향 | 1998 4/4 | 장기비전팀 |
| 외화위기 이전 재벌기업의 과잉투자에 대한 실증분석 | 1999 1/4 | 한진희 |
| 재벌의 제2금융권 금융기관 소유에 따른 문제점 | 1999 1/4 | 김준경 |
| 외채상환 능력의 거시적 평가 및 국가부채 관리의 기본방향 | 1999 1/4 | 함준호 |
| 외환위기 이후 소비자물가 변동의 특징과 요인분석 | 1999 1/4 | 성명기 |

| | | |
|--------------------------------------|----------|---------|
| 우리나라 외환위기의 발생원인 | 1999 2/4 | 홍기석 |
| 한국기업의 수익성 분석: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이해갈등을 중심으로 | 1999 2/4 | 조성욱 |
| 오쿤의 법칙을 이용한 실업률 전망 | 1999 2/4 | 유경준 |
|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을 위한 대책 | 1999 3/4 | 고영선 |
| 90년대 국내 외국환은행의 포괄적 환율위험 분석 | 1999 3/4 | 함준호 유재균 |
| 우리나라 및 동아시아의 성장요인 분석 및 장기성장률 전망 | 1999 4/4 | 한진희 김종일 |
| 벤처산업의 발전전망과 정책과제 | 2000 1/4 | 성소미 |
|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망과 과제 | 2000 1/4 | 우천식 |
| 균형실업률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 2000 2/4 | 유경준 |
| 교역조건 악화와 최근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 | 2000 3/4 | 조동철 |
| 진입·퇴출의 창조적 파괴과정과 제조업 생산성 증가에 대한 분석 | 2000 4/4 | 한진희 양정삼 |
| 최근의 실업률 동향분석 | 2001 2/4 | 최경수 |
| 가계대출 증가현상의 평가와 정책대응 | 2002 1/4 | 신인석 박창균 |
| 가계대출과 소비의 관계 분석 | 2002 4/4 | 신인석 |
|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수단의 선택: 일본과 미국의 사례 | 2003 4/4 | 고영선 |
| 소비 및 저축률의 추이와 시사점 | 2004 1/4 | 조동철 임경묵 |
|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분석 | 2004 2/4 | 김동석 |
| 상장사 기업재무자료를 중심으로 살펴 본 설비투자 분석 | 2004 2/4 | 임경묵 |
| 최근의 건설경기 둔화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2004 4/4 | 이항용 |
| 최근 환율 하락에 대한 평가와 총수요항목에 미치는 영향 | 2004 4/4 | 조동철 |
| 개인소득에 대한 분석 및 민간소비에 대한 시사점 | 2004 4/4 | 조성훈 김현욱 |
| 환율하락 및 유가상승의 경제적 파급효과 | 2005 1/4 | 김동석 조동철 |
| 소비자기대지수의 경기변동에 대한 예측력 | 2005 1/4 | 김장렬 이항용 |
| 설비투자 추이 분석 및 시사점 | 2005 2/4 | 임경묵 김동석 |
| 단시간 취업자 증가현상 분석 | 2005 2/4 | 김용성 신석하 |
| 최근 경기변동성 확대의 원인 분석 | 2005 3/4 | 신인석 |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과 국내기업의 진입·퇴출간의 관계 | 2005 3/4 | 최용석 차문중 |
| 최근 물가여건 점검 | 2005 4/4 | 신인석 |
| 미시자료를 이용한 고성장 중소기업체의 특성 분석 | 2005 4/4 | 안상훈 |
| 최근 해외소비 급증현상의 이해 | 2006 1/4 | 허석균 |
| 최근 경상수지 추이의 분석과 전망 | 2006 1/4 | 이항용 김현욱 |
|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과 고용간의 괴리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 2006 2/4 | 김용성 |
| 경상수지 흑자 축소에 대한 이해 및 전망 | 2006 3/4 | 조동철 |
|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분석 | 2006 3/4 | 신석하 |
| 최근 은행 외화차입 증가의 배경과 위험요인 | 2006 4/4 | 김현욱 |
| 최근의 물가안정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 2006 4/4 | 조동철 |
| 기업 수익성의 변동성 증가와 설비투자 | 2006 4/4 | 임경묵 |
| 최근의 실업률 하락 및 고용률 정체 요인 분석 | 2007 상반기 | 유경준 |

| | | |
|---|----------|-------------|
| 재무구조조정 측면에서 살펴본 최근 설비투자 추세 | 2007 상반기 | 임경목 |
| 기업의 국제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 기업내 수출을 중심으로 | 2007 상반기 | 이시욱 임경목 |
| 투자형태별 경기변동 요인 분석 | 2007 하반기 | 이재준 |
| 최근 우리나라 수출호조세 요인 분석 | 2007 하반기 | 이시욱 신석하 |
|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현황과 평가 | 2007 하반기 | 송준혁 연태훈 |
| 최근의 취업자 증가세 둔화에 대한 분석 | 2008 상반기 | 신석하 김희삼 |
| 최근 물가상승세의 원인 및 향후 전망 | 2008 상반기 | 조동철 송준혁 |
| 자산가격 변동과 민간소비 | 2008 하반기 | 김영일 |
| 성장률 및 주가 변동에서 차지하는 해외요인의 비중 변화 | 2008 하반기 | 송준혁 |
| 가계대출의 현황 및 평가 | 2008 하반기 | 김준경 |
| 최근 우리나라 수출 급락세의 특징 및 요인 분석 | 2009 상반기 | 이시욱 이한규 |
| 외국자본 유출입 패턴 변화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 2009 상반기 | 송민규 |
| 민간소비의 구성항목별 추이에 대한 분석 | 2009 상반기 | 김영일 |
| 최근 설비투자 회복세에 대한 평가 및 전망 | 2009 하반기 | 임경목 |
| 최근 물가에 대한 분석 및 향후 전망 | 2009 하반기 | 정대희 |
| 여성 중심의 고용 부진 현상에 대한 분석 | 2009 하반기 | 김희삼 |
| 건설부문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한 평가 | 2010 상반기 | 임경목 |
| 최근 우리나라 물가의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 | 2010 상반기 | 이재준 정대희 |
| 주요 공기업 부채의 장단기 위험요인 평가 | 2010 하반기 | 김성태 |
| 외국인 채권투자의 국내 장·단기금리차에 대한 영향 분석 | 2010 하반기 | 이한규 정대희 |
| 가계 부채 위험도에 대한 평가: 미시자료를 중심으로 | 2010 하반기 | 김영일 임경목 |
| 국제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평가 | 2011 상반기 | 이재준 이준상 |
| 최근 물가상승세의 구성항목별 특징과 향후 물가 여건 | 2011 상반기 | 김현욱 김성태 |
|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 및 변화 추이 | 2011 상반기 | 김동석 |
| 재정기조지표를 이용한 재정정책 평가 및 시사점 | 2011 하반기 | 김성태 |
| 정책금리 결정행태 분석 및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 | 2011 하반기 | 김태봉 이한규 |
| 노동공급을 중심으로 살펴본 최근 고용증가세 분석 | 2011 하반기 | 황수경 신석하 김인경 |
| 중국 내부요인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012 상반기 | 이한규 |
| 조세지출 현황 및 효율적 관리방안 | 2012 상반기 | 유한욱 |
| 요인별 유가 상승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2012 상반기 | 이준상 신석하 |
| 기초노령연금의 대상효율성 분석과 선정기준 개선방안 | 2012 하반기 | 윤희숙 |
| SOC 투자규모의 적정성 평가 : 20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 2012 하반기 | 김형태 류덕현 |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 | 2012 하반기 | 김용성 |
| 건설부문 재무안정성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2012 하반기 | 김성태 |
| 향후 재정정책기조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2012 하반기 | 김성태 |
| 중산층 현황에 대한 다면적 분석과 중산층 확대전략에의 시사점 | 2013 상반기 | 윤희숙 |
| 최근 기업 간접금융시장에 대한 분석 | 2013 상반기 | 남창우 |
| 최근의 민간소비 부진에 대한 원인 분석 | 2013 상반기 | 김태봉 |

| | | |
|--------------------------------------|----------|---------|
| 민간소비 수준에 대한 평가: 소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2013 하반기 | 오지윤 |
| 최근 경상수지 흑자 확대의 요인 분석 | 2013 하반기 | 정규철 김성태 |
| 최근 물가상승률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 | 2013 하반기 | 정대희 김성태 |
| 성장회계 비교분석을 통한 2000년대 생산성 증가세 평가 | 2014 상반기 | 신석하 |
| 연령별 소비성향의 변화와 거시경제적 시사점 | 2014 상반기 | 권규호 오지윤 |
| 최근 설비투자 추이 분석: 상장사 재무자료를 중심으로 | 2014 상반기 | 정대희 정규철 |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 2014 상반기 | 송인호 |
|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 2014 하반기 | 권규호 |
| 중국경제 구조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2014 하반기 | 정규철 |
|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의 부정적 파급효과 | 2014 하반기 | 정대희 |
| 일본의 1990년대 통화정책과 시사점 | 2014 하반기 | 이재준 |
| 가계부채의 연령별 구성변화: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2014 하반기 | 김지섭 |
| 추격 관점에서 살펴본 한·중·일 수출경쟁력의 변화 | 2015 상반기 | 정규철 |
|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배분기능 효율성 | 2015 상반기 | 김대일 |
|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사업체간 자원배분 효율성 추이 및 국제비교 | 2015 상반기 | 오지윤 |
| 최근 국제수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2015 상반기 | 김성태 |
| 최근 중국경제 불안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2015 하반기 | 김성태 정규철 |
|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미치는 영향 | 2015 하반기 | 남창우 정대희 |
| 고령층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 2015 하반기 | 김지섭 |
| 최근 아파트 분양물량 급증의 함의 | 2015 하반기 | 송인호 |
| 기대수명 증가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 2016 상반기 | 권규호 |
| 글로벌 투자 부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2016 상반기 | 정규철 |
| 최근 주택건설 급증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 2016 하반기 | 오지윤 정규철 |
|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 2016 하반기 | 김지섭 |
| 대내외 여건 변화가 국내 소비자물가에 미친 영향 | 2016 하반기 | 천소라 |
| 최근 기업집단 비중 확대의 특징과 거시경제적 함의 | 2016 하반기 | 조덕상 |
|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2017 상반기 | 정규철 |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 2017 상반기 | 김지운 |
|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 변화와 시사점 | 2017 상반기 | 김성태 천소라 |
| 최근 설비투자 추이 분석: 제조업 가동률을 중심으로 | 2017 상반기 | 정대희 조덕상 |
| 재정여력에 대한 평가와 국가부채 관리노력 점검 | 2017 하반기 | 이태석 허진욱 |
| 최근 주택건설 호황에 대한 분석 및 전망: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 2017 하반기 | 오지윤 |
| 최근 취업자 증감에 대한 분석 및 향후 전망 | 2017 하반기 | 정대희 김지운 |
|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외국자본 유출에 미치는 영향 | 2018 상반기 | 최우진 |
| 최근 물가상승률 점검 및 향후 전망 | 2018 상반기 | 이장욱 |
|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 | 2018 하반기 | 김지운 |
| 외국인 국내소비의 변동과 시사점 | 2018 하반기 | 박종호 정규철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을 둔화와 장기전망 | 2019 상반기 | 권규호 |
| 최근 GDP 디플레이터 변동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 2019 상반기 | 정규철 |

| | | |
|---------------------------|----------|---------|
| 중국경제의 위험요인 평가 및 시사점 | 2019 하반기 | 김성태 |
| 최근 물가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2019 하반기 | 정규철 |
| 법인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 및 변화 요인 분석 | 2019 하반기 | 오지윤 엄상민 |
| 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 | 2020 상반기 | 한요셉 |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시경제 경로 전망 | 2020 상반기 | 경제전망실 |